



ETHER LIBRARY

0010

싯다르타

Siddhartha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 1922

문학 · 소설

싯다르타

Siddhartha. Eine indische Dichtung

헤르만 헤세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Siddhartha. Eine indische Dichtung

부제 인도의 시

지은이 헤르만 헤세(1877~1962)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리히

초판 1922년, S. 피셔(베를린)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Siddhartha)》(1922)를 독일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1922년 베를린의 S. 피셔 출판사에서 나온 초판을 스캔한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영어 번역은 뜻이 막히는 자리에서 대조하는 데만 썼습니다.

두 부 열두 장, 원문 524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두 부 앞에 붙은 헌사도 초판대로 옮겼습니다.

저본을 바로잡은 곳

7장 「윤회」의 한 문단은 저본에서 문장이 깨져 있습니다. 소년 싯다르타가 브라만들의 칭찬을 받던 시절, 가슴속에서 「네 앞에 길이 놓여 있다」는 부름을 느끼던 대목인데, 그 부름을 적은 구절 조각이 앞 문장 한가운데에 한 번 더 찍혀 있습니다. 같은 저본을 옮긴 영어 번역도 깨진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 그 구절을 한 번만 살려 문장을 되살렸습니다.

그 밖에 뜻에 영향이 없는 오자 몇 곳은 바로잡아 옮겼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독일어의 du와 Ihr만으로는 우리말의 높임과 낮춤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마다 말의 등급을 미리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등급이 바뀌는 자리는 관계가 바뀌는 자리뿐입니다.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반말을 씁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 알아보지 못할 때만 낯선 사람끼리의 하오체를 쓰다가, 알아보는 순간 다시 반말로 돌아갑니다(8장, 12장).

카말라와 싯다르타는 첫 만남에서 서로 하오체를 쓰고, 연인이 된 뒤로는 반말을 씁니다(6장).

벳사공 바수데바는 처음 싯다르타를 「나리」라 부르며 깍듯이 대하다가, 9장에서 이름을 주고받은 뒤로는 하계체와 「자네」로 부릅니다. 싯다르타는 그를 스승처럼 우러러 하오체와 「그대」로 부릅니다.

고타마 붓다는 누구에게나 담담한 하오체와 「그대」를 씁니다.

서술에서는 붓다를 높이지 않았습다. 원문이 붓다를 한 사람의 인물로 담담하게 그리기 때문입니다. 인물들이 붓다를 부르고 이야기할 때는 높였습니다.

되풀이에 관하여

헤세의 문장은 같은 낱말과 구절이 파도처럼 돌아옵니다. 「싯다르타」라는 이름, 「미소」, 「강」, 「옴」, 그리고 「생각할 줄 안다, 기다릴 줄 안다, 굶을 줄 안다」. 우리말은 되풀이를 꺼리지만, 이 책에서는 되풀이가 곧 음악이어서 지우지 않았습다. 돌아오는 구절은 돌아올 때마다 같은 우리말로 옮겨왔습니다.

인도와 불교의 말

사문, 옴, 아트만, 브라흐만, 열반, 윤회 같은 말은 처음 나올 때만 각주로 짧게 밝혔습다. 제사를 맡는 사제 계급 「브라만」과 우주의 근원 「브라흐만」은 소리를 달리해 구별했습다. 붓다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여덟 가지 바른 길」처럼 풀어 옮겨왔습니다.

그 밖에

각주 16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용어와 고유명사만 밝혔고, 상징을 풀이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5장에서 싯다르타가 카말라에게 바치는 여섯 줄 시는 시의 모양대로 짤았습니다.

차례

제1부	8
브라만의 아들	9
사문들 곁에서	19
고타마	30
깨어남	41
제2부	46
카말라	47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곁에서	62
윤회	72
강가에서	82
뱃사공	95
아들	109
옴	120
고빈다	128

제1부

존경하는 벳 로맹 롤랑에게

브라만의 아들

집 그늘에서, 배들이 매인 강가의 햇볕 속에서, 사라나무 숲 그늘에서,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브라만의 아름다운 아들, 젊은 매 싯다르타는 벤틀이 자 브라만 집안의 아들인 고빈다와 함께 자랐다. 햇볕은 강가에서, 먹을 감을 때, 거룩한 목욕재계 때, 거룩한 제사 때 그의 환한 어깨를 그늘렸다. 그들은 망고 숲에서, 소년들과 뛰놀 때, 어머니가 노래할 때, 거룩한 제사 때, 학자인 아버지가 가르칠 때, 현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의 검은 눈 속으로 흘러들었다. 싯다르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자들의 대화에 참여했고, 고빈다와 함께 논쟁을 익혔고, 고빈다와 함께 관조의 기예를, 명상의 수행을 익혔다. 벌써 ¹옴을, 말 중의 말을 소리 없이 읊을 줄 알았다. 영혼을 한데 모으고 맑게 생각하는 정신의 광채를 이마에 두른 채, 들숨에 실어 그 말을 소리 없이 제 안으로 읊어 들이고, 날숨에 실어 소리 없이 제 밖으로 읊어 낼 줄 알았다. 벌써 제 존재의 깊은 곳에 깃든 아트만²을, 부서지지 않고 온 우주와 하나인 아트만을 알고 있었다.

배움이 빠르고 얇에 목마른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가슴속에서는 기쁨이 뛰놀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위대한 현자이자 사제가, 브라만들 가운데 왕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면, 아들이 걷는 것을 볼 때면, 아들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을 볼 때면, 힘세고 아름다운 싯다르타를, 늘씬한 다리로

걸어가는 싯다르타를, 더없이 반듯한 예절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싯다르타를 볼 때면 가슴속에서 환희가 뛰놀았다.

브라만 집안의 젊은 딸들은 싯다르타가 빛나는 이마를 하고, 왕의 눈을 하고, 날렵한 허리를 하고 도시의 골목을 지나갈 때면 가슴속에서 사랑이 일렁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보다 더 싯다르타를 사랑한 이는 벤틀자 브라만 집안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고빈다는 싯다르타의 눈과 고운 목소리를 사랑했고, 걸음걸이와 더없이 반듯한 몸놀림을 사랑했고, 싯다르타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정신을, 높고 뜨거운 생각을, 불타는 의지를, 높은 소명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알았다. 이 사람은 속된 브라만도, 게으른 제관도, 주문을 파는 탐욕스러운 장사치도, 허영에 찬 텅 빈 웅변가도, 악하고 음흉한 사제도 되지 않으리라. 못사람의 양 떼 속에 섞인 착하고 어리석은 양 한 마리도 되지 않으리라. 아니, 고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만 명이나 있는 그런 브라만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싯다르타를, 사랑하는 이를, 눈부신 이를 따르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싯다르타가 신이 된다면, 언젠가 빛나는 이들 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에도 고빈다는 벤틀로, 길동무로, 종으로, 창을 든 시종으로, 그의 그림자로 따르고 싶었다.

이렇게 모두가 싯다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고,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싯다르타는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무화과 동산의 장밋빛 길을 거닐 때도, 관조의 숲에 드리운 푸르스름한 그늘에 앉아 있을 때도, 날마다 속죄의 목욕으로 팔다리를 씻을 때도, 그늘 짙은 망고 숲에서 제사를 올릴 때도, 몸짓은 더없이 반듯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모두의

기쁨이었건만, 가슴속에는 아무 기쁨도 품지 못했다. 꿈이, 실 줄 모르는 생각들이 강물에서 흘러오고, 밤하늘의 별에서 반짝이며 오고, 햇살에서 녹아내려 그에게로 왔다. 꿈이, 영혼의 불안이 제물에서 연기로 피어오르고, 리그베다의 시구에서 숨결로 불어오고, 옛 브라만들의 가르침에서 방울방울 떨어져 그에게로 왔다.

싯다르타는 마음속에 불만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그리고 벳 고빈다의 사랑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넉넉히 채워 주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어렵듯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아버지와 다른 스승들이, 지혜로운 브라만들이 저마다 지닌 지혜 가운데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자기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그들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그릇에 이미 다 부어 주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릇은 차지 않았고, 정신은 흡족하지 않았고, 영혼은 고요하지 않았고, 가슴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목욕재계는 좋았으나 그것은 물이었다. 죄를 씻어 내지 못했고, 정신의 목마름을 달래 주지 못했고, 마음의 두려움을 풀어 주지 못했다. 제사도, 신들을 부르는 기도도 훌륭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을까? 제사가 행복을 주었던가? 그리고 신들은 또 어떠했던가? 세상을 지은 이가 정말 프라자파티였던가? 오히려 아트만이, 그분이, 오직 하나인 이, 모든 것이자 하나인 이가 아니었던가? 신들이란 너나 나처럼 지어진 형상들, 시간에 매여 덧없이 스러지는 것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좋은 일이었던가, 옳은 일이었던가, 뜻있고 가장 높은 일이었던가? 그분, 오직 하나인 이, 아트만 말고 또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랴? 그렇다면 아트만은 어디서 찾아야 했던가, 그분은 어디에 머물렀고 그분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서 뛰었던가, 저마다 제 안에 품고 있는 자아 속, 가장 깊은 곳, 부서지지

않는 것 속 말고 또 어디였겠는가? 그러나 어디에, 대체 어디에 이 자아가, 이 가장 깊은 것이, 이 마지막 것이 있었던가? 그것은 살과 뼈가 아니었고, 생각도 의식도 아니었다.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어디에 있었던가? 그곳으로, 자아에게로, 나에게로, 아트만에게로 뚫고 들어가는 것, 그 밖에 찾아 나설 만한 다른 길이 있었던가? 아, 그런데 아무도 이 길을 보여 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들과 현자들도, 거룩한 제사의 노래들도! 그들은, 브라만들과 그들의 거룩한 책들은 모든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아니 모든 것 이상을 두루 헤아렸다. 세상이 지어진 일부터, 말과 음식과 들숨과 날숨이 생겨난 내력, 감각의 질서, 신들이 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없이 많은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를, 오직 하나뿐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안다 한들 무슨 값어치가 있었던가?

물론 거룩한 책들의 많은 시구가,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³가 이 가장 깊은 것, 이 마지막 것을 이야기했다. 눈부신 시구들이었다. 거기에는 "그대의 영혼이 온 세계다"라고 쓰여 있었고, 사람은 잠 속에서, 깊은 잠 속에서 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트만 안에 머문다고도 쓰여 있었다. 이 시구들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가장 지혜로운 이들의 모든 앎이 별들이 모은 꿀처럼 순수하게, 마력 어린 말 속에 모여 있었다.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세대를 이어 지혜로운 브라만들이 여기에 모이고 간직해 온 그 엄청난 인식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가장 깊은 앎을 그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 낸 브라만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런 사제는 어디에, 그런 현자나 참회자는 어디에 있었던가? 아트만 안에 제 집처럼 깃드는 일을 잠에서 생시로, 삶 속으로, 걸음걸음 속으로, 말과 행실 속으로 마법처럼 옮겨

온 사람, 그 길에 밝은 이는 어디에 있었던가? 싯다르타는 존경받는 브라만을 여럿 알았고, 그 가운데 으뜸은 깨끗하고 학식 깊고 누구보다 존귀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우리를 만찬 분이였다. 몸가짐은 고요하고 고결했으며, 삶은 깨끗했고, 말은 지혜로웠으며, 이마에는 섬세하고 기품 있는 생각들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이 아는 아버지도 과연 지복 속에 살았던가, 평화를 누렸던가, 아버지 역시 한낱 찾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던가? 목마른 사람이 되어 거룩한 샘에서, 제사에서, 책에서, 브라만들의 문답에서 거둬들여 목을 축여야 하지 않았던가? 허물 하나 없는 아버지가 어째서 날마다 죄를 씻어 내야 했고, 날마다 정결해지려 애써야 했고, 날마다 새로이 그래야 했던가? 아버지 안에는 아트만이 있지 않았던가, 제 가슴속에 근원의 샘이 흐르고 있지 않았던가? 바로 그 샘을, 제 자아 속에 있는 근원의 샘을 찾아내야 했다. 그 샘을 제 것으로 삼아야 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찾아 헤매이었고, 에움길이었고, 길 잃음이었다.

싯다르타의 생각은 이러했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요, 이것이 그의 괴로움이었다.

싯다르타는 찬도가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을 자주 혼자 되뇌었다. "진실로 브라흐만⁴의 이름은 사티얌⁵이라. 참으로 이를 아는 자는 날마다 하늘 세계에 드느니라." 하늘 세계는 자주 가까워 보였으나, 그는 한 번도 그곳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고, 마지막 목마름을 한 번도 풀지 못했다. 그가 알고 가르침을 누리던 지혜로운 이들과 가장 지혜로운 이들, 그 모두 가운데 하늘 세계에 온전히 이른 이는 하나도 없었고, 영원한 목마름을 온전히 풀어낸 이도 하나도 없었다.

"고빈다," 싯다르타가 벵에게 말했다. "고빈다, 친구야, 나와 함께 반얀나무 아래로 가자. 명상에 들자."

두 사람은 반얀나무로 가서, 이쪽에는 싯다르타가, 스무 걸음 떨어진 곳에는 고빈다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싯다르타는 자리에 앉으며 몸을 읊을 채비를 했고, 나직이 웅얼거리며 그 시구를 되뇌었다.

몸은 활이요, 화살은 영혼이라,
브라흐만이 화살의 과녁이니,
흔들림 없이 그 과녁을 맞힐지니라.

늘 하던 명상 수련 시간이 다 지나자 고빈다가 일어섰다. 저녁이 되었고, 저녁 목욕재계를 할 시간이었다. 고빈다는 싯다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싯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싯다르타는 깊이 잠겨 앉아 있었다. 두 눈은 아주 먼 과녁을 겨누는 채 굳어 있었고, 혀끝은 이 사이로 조금 비어져 나와 있었으며, 숨도 쉬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그는 명상에 감싸여, 몸을 생각하며, 제 영혼을 화살 삼아 브라흐만을 향해 쏘아 보낸 채 앉아 있었다.

언젠가 사문⁶들이 싯다르타의 도시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 순례하는 고행자들, 늙지도 젊지도 않은, 바싹 마르고 생기 꺼진 세 사내였다. 어깨는 먼지와 피로 얼룩지고, 거의 별거벗은 몸은 햇볕에 검게 타고, 고독에 둘러싸인 채, 세상에 낯설고 세상에 날 선 그들은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선 이방인이요 야윈 자칼들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 고요한 열정의, 스스로를 허무는 헌신의, 가차 없는 자기 소멸의 냄새가 뜨겁게 풍겨 왔다.

저녁에, 관조의 시간이 끝난 뒤, 싯다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다. "내일 새벽에, 친구야, 싯다르타는 사문들에게로 간다. 그는 사문이 될 것이다."

고빈다는 그 말을 듣고, 벼의 흔들림 없는 얼굴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무엇으로도 빳나가게 할 수 없는 결심을 읽고는 창백해졌다.

고빈다는 대번에, 첫눈에 알아차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싯다르타가 제 길을 가는구나. 이제 싯다르타의 운명이 움트기 시작하는구나. 그 운명과 함께 나의 운명도. 그리고 그는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싯다르타," 고빈다가 외쳤다. "네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하실까?"

싯다르타는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고빈다 쪽을 바라보았다. 화살처럼 재빠르게 고빈다의 영혼을 읽었다. 두려움을 읽었고, 체념을 읽었다.

"오, 고빈다," 싯다르타가 나직이 말했다. "말을 허비하지 말자.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사문의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마."

싯다르타는 나무껍질로 엮은 돛자리 위에 아버지가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뒤로 가서 섰고, 누군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느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브라만이 말했다. "너냐, 싯다르타? 그렇다면 하러 온 말을 해 보아라."

싯다르타가 말했다. "아버지, 허락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행자들에게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사문이 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막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브라만은 침묵했다. 어찌나 오래 침묵했던지, 방 안의 침묵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창 속에서 별들이 자리를 옮겨 가며 제 모양을 바꾸었다. 말없이 꼼짝 않고 팔짱을 낀 채 아들이 서 있었고, 말없이 꼼짝 않고 돛자리 위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으며, 하늘에서는 별들이 흘러갔다. 이윽고 아버지가 말했다. "거칠고 성난 말을 하는 것은 브라만에게 걸맞지 않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언짢구나. 이런 청을 네 입에서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브라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싯다르타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싯다르타가 말했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짢은 마음으로 방을 나갔고, 언짢은 마음으로 잠자리를 찾아가 누웠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자, 브라만은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방의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니, 싯다르타가 팔짱을 낀 채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었다. 밝은 빛깔의 겹옷이 희부영게 어른거렸다. 가슴에 불안을 안고 아버지는 잠자리로 돌아갔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자, 브라만은 다시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집 앞으로 나갔고, 달이 떠오른 것을 보았다. 방의 창으로 들여다보니, 싯다르타가 그 자리 그대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드러난 정강이에 달빛이 어리어 있었다. 가슴에 근심을 안고 아버지는 잠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시간 뒤에 다시 왔고, 두 시간 뒤에 다시 와서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았고,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 서 있는 싯다르타를 보았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없이 다시 와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아들을 보았고, 가슴을 노여움으로 채웠고, 가슴을 불안으로 채웠고, 가슴을 두려움으로 채웠고, 슬픔으로 채웠다.

그리고 밤의 마지막 시각, 날이 밝기 전에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 방에 들어섰고, 거기 서 있는 젊은이를 보았다. 젊은이는 커다랗게,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싯다르타," 아버지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알고 계십니다."

"날이 밝고 한낮이 되고 저녁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서 기다릴 테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지칠 것이다, 싯다르타."

"지칠 것입니다."

"잠들 것이다, 싯다르타."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싯다르타."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냐?"

"싯다르타는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뜻을 거두겠느냐?"

"싯다르타는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새벽의 첫 빛이 방 안으로 비쳐 들었다. 브라만은 싯다르타의 무릎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싯다르타의 얼굴에서는 아무 떨림도 보이지 않았고, 두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아버지는 싯다르타가 벌써 더는 자기 곁에도, 고향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벌써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싯다르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아버지가 말했다. "숲으로 가서 사문이 될 것이다. 숲에서 지복을 찾았거든 돌아와 내게 지복을 가르쳐 다오. 환멸을 찾거든 다시 돌아와, 우리 다시 함께 신들께 제물을 바치자꾸나. 이제 가서 어머니께 입 맞추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려라. 나는 이제 강으로 나가 첫 목욕재계를 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 밖으로 나갔다. 싯다르타는 걸음을 떼려다가 옆으로 비틀거렸다. 그는 팔다리를 억지로 가누어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절하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려고 어머니에게 갔다.

첫 햇빛 속에서 싯다르타가 굳은 다리로 천천히, 아직 고요한 도시를 벗어날 때, 마지막 오두막 곁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몸을 일으켜 순례길에 오른 이를 따라나섰다. 고빈다였다.

"왔구나." 싯다르타가 말하고 미소 지었다.

"왔어." 고빈다가 말했다.

1. 인도 전통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음절. 베다를 외거나 기도할 때 처음과 끝에 읊는다.

2. 고대 인도 철학에서 사람 안에 깃든 참된 자아, 죽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본질을 이르는 말.

3. 베다에 딸린 고대 인도의 철학 경전들. 베다는 브라만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리그베다와 사마베다 등이 있다.

4. 우주의 근원이자 궁극의 실재. 사제 계급을 가리키는 '브라만'과는 다른 말이다.

5. 산스크리트어로 '참', '진리'라는 뜻.

6. 집을 떠나 떠돌며 고행하던 수행자. 산스크리트어 '슈라마나'를 한자로 옮긴 말로, 불교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던 출가 수행자들을 두루 이른다.

사문들 곁에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고행자들을, 바싹 마른 사문들을 따라잡았고, 길동무가 되어 따르며 순종하겠노라고 나섰다. 둘은 받아들여졌다.

싯다르타는 길에서 만난 가난한 브라만에게 제 옷을 내주었다. 이제 걸친 것이라고는 아랫도리를 가리는 천 한 자락과 꿰매지 않은 흙빛 겹옷뿐이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었고, 익힌 음식은 결코 입에 대지 않았다. 열댓새를 굶었다. 스무여드레를 굶었다. 허벅지와 뺨에서 살이 빠져나갔다. 커다래진 두 눈에서는 뜨거운 꿈들이 일렁였고, 말라 가는 손가락 끝에서는 손톱이 길게 자라났으며, 턱에서는 메마르고 텅수룩한 수염이 자라났다. 여자들과 마주칠 때면 눈길의 얼음장처럼 싸늘해졌고,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를 지날 때면 입가가 경멸로 찡그러졌다. 싯다르타는 보았다.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제후들이 사냥을 나가고, 상을 당한 이들이 죽은 이를 두고 울고, 창녀들이 몸을 팔겠다고 나서고, 의원들이 병자를 돌보느라 애쓰고, 사제들이 씨 뿌릴 날을 정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고,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눈길 한 번 줄 값어치도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을 했고, 모든 것이 악취를 풍겼고,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겼으며, 모든 것이 뜻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꾸며 보였으나, 모든 것은 썩어 가면서도 그 썩음을 시인하지 않았다. 세상은 쓴맛이 났다. 삶은 고통이었다.

싯다르타 앞에 놓인 목표는 하나, 오직 하나뿐이었다. 텅 비는 것. 목마름을 비우고, 소망을 비우고, 꿈을 비우고, 기쁨과 슬픔을 비우는 것. 자기 자신에게서 죽어 떠나는 것, 더는 자아가 아닌 것, 텅 빈 가슴으로 고통을 찾는 것, 자기가 소멸한 생각 속에서 경이를 향해 열려 있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자아라는 자아가 모두 극복되어 죽고, 가슴속의 모든 욕망과 모든 충동이 잠잠해지면, 그때에는 마지막 것이, 더는 자아가 아닌 존재 속 가장 깊은 것이, 그 위대한 신비가 깨어날 터였다.

말없이 싯다르타는 머리 위에서 곧장 내리꽂히는 불별 속에 아픔으로 달아오르고 목마름으로 달아오른 채 서 있었고, 아픔도 목마름도 더는 느끼지 못할 때까지 서 있었다. 말없이 그는 우기의 빗속에 서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물이 추위에 떠는 어깨를 타고, 추위에 떠는 허리와 다리를 타고 흘렀으나, 참회자는 어깨와 다리가 더는 추위에 떨지 않을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서 있었다. 말없이 그는 가시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화끈거리는 살갗에서는 피가, 붉은 상처에서는 고름이 방울져 떨어졌으나, 싯다르타는 굳은 채 머물렀고, 꿈쩍 않고 머물렀다. 더는 피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더는 아무것도 찌르지 않을 때까지, 더는 아무것도 화끈거리지 않을 때까지.

싯다르타는 곳곳이 앓아 숨을 아끼는 법을 배웠고, 적은 숨으로 견디는 법을 배웠고, 숨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숨에서 시작하여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고, 심장이 뛰는 횟수를 줄이는 법을 배웠다. 몇 번 되지 않을 때까지, 거의 뛰지 않을 때까지.

사문들의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싯다르타는 새로운 사문의 규율에 따라 자기 소멸을 닦았고 명상을 닦았다. 왜가리 한 마리가 대숲 위로 날아갔다. 그러자 싯다르타는 그 왜가리를 제 영혼 속에 받아들여 숲과 산을 넘어 날았고, 왜가리였고,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왜가리의

허기로 굶주렸고, 왜가리의 울음을 울었고, 왜가리의 죽음을 맞았다. 죽은 자칼 한 마리가 모래톱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싯다르타의 영혼은 그 주검 속으로 스며들었고, 죽은 자칼이었고, 물가에 누워 부풀어 오르고, 악취를 풍기고, 썩어 갔고, 하이에나들에게 갈가리 찢겼고, 독수리들에게 가죽이 벗겨졌고, 뼈대가 되었고, 먼지가 되어 들판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싯다르타의 영혼은 돌아왔다. 죽었고, 썩었고, 먼지로 흩어졌고, 순환의 탁한 취기를 맞본 그 영혼은 새로운 목마름 속에서 사냥꾼처럼 틈을 노리며 기다렸다. 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곳, 원인들이 끝나는 곳, 괴로움 없는 영원이 시작될 곳, 그 틈. 싯다르타는 제 감각을 죽였고, 제 기억을 죽였고, 제 자아에서 빠져나와 천 가지 낯선 형상 속으로 스며들어, 짐승이었고, 썩은 고기였고, 돌이었고, 나무였고, 물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어나 보면, 해가 비치든 달이 비치든, 그는 다시 자기 자신 속에 있었고, 다시 자아였고, 순환 속을 맴돌았고, 목마름을 느꼈고, 목마름을 이겨 냈고, 새로운 목마름을 느꼈다.

싯다르타는 사문들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자아에게서 멀어지는 많은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그는 아픔을 거쳐, 아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를 스스로 겪고 이겨 내는 일을 거쳐 자기 소멸의 길을 걸었다. 명상을 거쳐, 마음에서 모든 상념을 비워 내는 일을 거쳐 자기 소멸의 길을 걸었다. 이런 길들과 또 다른 길들을 걷는 법을 배웠고, 천 번이나 제 자아를 떠났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자아 아닌 것 속에 머물렀다. 그러나 길들이 자아에게서 멀리 이끌어 가도, 그 끝은 언제나 다시 자아로 이어졌다. 싯다르타가 천 번 자아에게서 달아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머물고 짐승 속에, 돌 속에 머물러도, 돌아옴은 피할 수 없었다. 햇빛 속에서든 달빛 속에서든, 그늘 속에서든 빗속에서든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돌아와 다시 자아가 되고 싯다르타가 되어, 짊어진 순환의 고통을 다시 느끼는 그 시간은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 곁에서 고빈다가, 싯다르타의 그림자가 살았다. 고빈다는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수고를 견뎠다. 두 사람은 섬기는 일과 수행에 필요한 것 말고는 좀처럼 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따금 둘이서 마을들을 돌며 자기들과 스승들이 먹을 음식을 탁발했다.

"어떻게 생각해, 고빈다," 한번은 그런 탁발 길에서 싯다르타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갔을까? 무슨 목표에든 이르렀을까?"

고빈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배웠고, 지금도 배워 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사문이 될 거야, 싯다르타. 너는 어떤 수행이든 빨리 익혔고, 나이 든 사문들이 너를 보고 감탄할 때가 많았어. 너는 언젠가 성자가 될 거야, 오, 싯다르타."

싯다르타가 말했다. "내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친구야. 내가 오늘까지 사문들 곁에서 배운 건 말이야, 오, 고빈다, 더 빠르고 더 쉽게 배울 수도 있었어. 창녀촌의 어느 술집에서든, 친구야, 마부들과 주사위 노름꾼들 틈에서라도 그걸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싯다르타가 나한테 농담을 하는구나. 어떻게 명상을, 어떻게 숨 멈추기를, 어떻게 굶주림과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거기서, 그 비참한 자들 틈에서 배울 수 있었겠어?"

그러자 싯다르타가 혼잣말하듯 나직이 말했다. "명상이란 뭘까? 몸을 떠나는 건 뭘까? 굶는 건 뭘까? 숨을 멈추는 건 뭘까? 그건 자아를 피해 달아나는 거야. 그건 자아로 있는 고통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거야. 그건 아픔과 삶의 무의미를 무디게 하는 짧은 마비야. 같은 도피, 같은 짧은 마비를 소몰이꾼은 주막에서 찾아. 쌀술 몇 사발이나 발효한 야자즙을 마시면 말이야. 그러면 그는 제 자아를 더는 느끼지 못하고, 삶의

아픔들을 더는 느끼지 못하고, 짧은 마비를 찾아. 쌀술 사발을 앞에 두고
깜빡 잠든 소몰이꾼은, 싯다르타와 고빈다가 기나긴 수행 끝에 제
몸에서 빠져나가 자아 아닌 것 속에 머물 때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을
찾아. 그런 거야, 오, 고빈다."

고빈다가 말했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오, 친구야, 싯다르타가
소몰이꾼이 아니고 사문이 술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
술꾼이 마비를 찾는 건 맞아. 잠깐의 도피와 쉬를 찾는 것도 맞아.
하지만 술꾼은 망상에서 깨어나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 그대로야. 더
지혜로워지지도 않았고, 인식을 쌓지도 않았고, 몇 계단 더 높이
오르지도 못했어."

그러자 싯다르타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난 모르겠어. 술꾼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 싯다르타가 수행과 명상 속에서 짧은
마비밖에 찾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 배 속의 아기였을
때만큼이나 지혜에서, 해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건 알아, 오,
고빈다, 그건 알아."

그리고 또 한번은 싯다르타가 고빈다와 함께 형제들과 스승들에게
드릴 먹을거리를 조금 탁발하러 숲을 나서 마을로 갈 때, 싯다르타가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오, 고빈다, 우리는 정말 바른 길
위에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인식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정말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맴도는 건
아닐까? 순환에서 벗어나려던 우리가?"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많이 배웠어, 싯다르타. 배울 것도 아직
많이 남았고. 우리는 원을 그리며 맴도는 게 아니야.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 원은 나선이야. 우리는 벌써 여러 계단을 올라왔어."

싯다르타가 대답했다. "우리 장로님, 우리가 우리르는 스승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네 생각엔?"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 장로님은 아마 예수는 되셨을 거야."

그러자 싯다르타가 말했다. "예수 해를 사셨는데도 열반¹에 이르지 못하셨어. 장로님은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실 테고, 너와 나, 우리도 그만큼 늙어 가면서 수행하고, 굶고, 명상하겠지. 하지만 열반에는 이르지 못할 거야. 장로님도 못 이르고, 우리도 못 이르고. 오, 고빈다, 내 생각엔 세상의 모든 사문 가운데 어찌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거야. 우리는 위안을 찾고, 마비를 찾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재주들을 익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길 중의 길은 찾지 못해."

"제발," 고빈다가 말했다. "그렇게 무서운 말은 입에 담지 말아 줘, 싯다르타! 그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브라만들 가운데, 그 많은 엄격하고 존경받는 사문들 가운데, 그 많은 찾는 사람들, 온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길 중의 길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

그러나 싯다르타는 서글픔만큼이나 비웃음이 어린 목소리로, 나직하고, 조금 서글프고, 조금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지않아, 고빈다, 네 친구는 너와 그토록 오래 함께 걸어온 이 사문의 길을 떠날 거야. 나는 목마름을 앓고 있어, 오, 고빈다. 이 기나긴 사문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내 목마름은 조금도 줄지 않았어. 나는 늘 인식에 목말랐고, 늘 물음으로 가득했어. 브라만들에게 물었어, 한 해 또 한 해. 거룩한 베다에 물었어, 한 해 또 한 해. 경건한 사문들에게 물었어, 한 해 또 한 해. 어찌면, 오, 고빈다, 코뿔새나 침팬지에게 물었더라도 그만큼 좋았을지 몰라. 그만큼 현명하고 그만큼 이로웠을지 몰라. 오, 고빈다, 이걸 배우는 데 나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다 배우지 못했어.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 말이야! 내 생각에,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실은 없어. 오, 친구야, 있는 건 오직 하나의

얇뿐이야. 그건 어디에나 있고, 그건 아트만이고, 그건 내 안에도 네 안에도 모든 존재 안에도 있어. 그래서 나는 믿기 시작했어. 이 얇에게는 알리고 하는 마음보다, 배움보다 더 고약한 적이 없다고."

그러자 고빈다가 길 위에 멈춰 서서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말했다. "싯다르타, 제발 그런 말로 네 친구를 두렵게 하지 말아 줘! 정말이지, 네 말은 내 가슴에 두려움을 일깨워. 생각 좀 해 봐. 네 말이 옳다면, 배움이라는 게 없다면, 기도의 거룩함은 어디에 남고, 브라만 계급의 존엄은 어디에 남고, 사문들의 거룩함은 어디에 남겠어?!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한 것, 값진 것, 우리를 만든 것,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어, 오, 싯다르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고빈다는 시구 하나를, 어느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시구 하나를 혼잣말로 웅얼거렸다.

곰곰이 헤아리며 맑아진 정신으로 아트만 속에 깊이 잠기는 이,
그 가슴의 지복은 말로써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싯다르타는 말이 없었다. 그는 고빈다가 자기에게 한 말들을 생각했고, 그 말들을 끝까지 따라가며 생각했다.

그래, 하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서서 생각했다. 우리에게 거룩해 보이던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남으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시험을 견디는가?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 젊은이가 사문들 곁에서 세 해 가까이 살며 그들의 수행을 함께했을 무렵의 어느 날, 이런저런 길과 에움길을 거쳐 소식 하나가, 소문 하나가, 풍문 하나가 두 사람에게 닿았다. 고타마라 불리는 이가, 세존이, 붓다가 나타났는데, 그는 제 안에서 세상의 괴로움을 이겨 냈고 거둬 태어남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다고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침을 퍼며 나라 곳곳을 떠도는데, 가진 것도 없고, 고향도

없고, 아내도 없이 고행자의 누런 겹옷을 걸쳤으며 이마는 해맑은, 지복에 든 사람이라 했고, 브라만들과 제후들이 고타마 앞에 몸을 굽혀 제자가 된다고 했다.

이 풍문은, 이 소문은, 이 꿈같은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향기처럼 피어올랐다. 도시에서는 브라만들이, 숲에서는 사문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 고타마의 이름이, 붓다의 이름이 좋은 말에 실려서도 나쁜 말에 실려서도, 찬미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거듭거듭 두 젊은이의 귀에 들려왔다.

역병이 휩쓰는 어느 나라에서, 여기저기에 한 사람이, 한 현자가, 이치에 밝은 이가 있어 그의 말 한마디와 입김 한 번이면 역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 낫는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소식은 온 나라를 누비고, 누구나 그 이야기를 하며, 많은 이가 믿고, 많은 이가 의심하지만, 또 많은 이가 곧장 길을 떠나 그 현자를, 살려 줄 그 사람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꼭 그렇게 고타마에 관한, 붓다에 관한, 석가죽 출신 현자에 관한 그 풍문이, 그 향기로운 풍문이 온 나라를 누볐다. 믿는 이들은 말했다. 그는 가장 높은 인식을 지녔고,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며, 열반에 이르러 다시는 순환 속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는 형상들의 탁한 물결 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붓다에 관해서는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다. 기적을 행했고, 악마를 물리쳤고, 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러나 적의를 품은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은, 이 고타마라는 사람은 허영에 들떠 흑세무민하는 자로, 호의호식하며 나날을 보내고, 제사를 업신여기며, 학식도 없고, 수행도 고행도 모른다고 했다.

붓다의 풍문은 달콤하게 울렸고, 그 이야기들에서는 마법의 향기가 풍겨 나왔다. 세상은 병들어 있었고, 삶은 건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보라, 여기서 샘 하나가 솟아나는 듯했고, 여기서 전령의 외침 하나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위안에 차고, 부드럽고, 고귀한 약속으로 가득한 외침이. 붓다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인도의 온 땅 어디서나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리움을 느꼈고, 희망을 느꼈다. 도시와 마을의 브라만 집안 아들들은 순례자든 나그네든 그에 관한, 세존에 관한, 석가모니에 관한 소식을 가져오기만 하면 누구든 반가이 맞아들였다.

숲속의 사문들에게도, 싯다르타에게도, 고빈다에게도 그 풍문은 스며들었다. 천천히, 방울방울, 방울마다 희망으로 무겁고, 방울마다 의심으로 무거운 채로.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별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사문들의 장로가 이 풍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로는 붓다라는 그자가 전에는 고행자로서 숲에서 살았으나 그 뒤 호의호식과 세속의 쾌락으로 되돌아갔다고 들었고, 이 고타마를 하찮게 여겼다.

"오, 싯다르타," 어느 날 고빈다가 벳에게 말했다. "오늘 마을에 갔는데, 어떤 브라만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청했어. 그 집에 마가다에서 온 브라만 집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 눈으로 붓다를 보았고, 붓다가 가르치는 것도 들었대. 정말이지, 그때 가슴이 아리도록 숨이 막혔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 나도, 아니 우리 둘 다, 싯다르타와 나도 저 완성에 이른 이의 입에서 가르침을 듣는 그때를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해 봐, 친구야, 우리도 거기 가서 붓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어 보지 않을까?"

싯다르타가 말했다. "오, 고빈다, 나는 늘 고빈다가 사문들 곁에 머물 줄로만 생각했어. 예순 살, 일흔 살이 되도록 사문을 빛내 주는 재주와 수행을 끝없이 닦는 것, 그게 고빈다의 목표라고 늘 믿었지. 그런데 이것 봐, 나는 고빈다를 너무 몰랐어. 고빈다의 마음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야, 너는 새 길로 들어서서 붓다가 가르침을 퍼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지."

고빈다가 말했다. "넌 날 비웃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얼마든지 비웃어, 싯다르타! 하지만 네 안에서도 그 가르침을 듣고 싶은 갈망이, 설렘이 깨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언젠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사문의 길을 걸을 날도 이제 오래 남지 않았다고."

그러자 싯다르타가 그 특유의 웃음을 웃었다. 목소리에 서글픔의 그림자 하나와 비웃음의 그림자 하나가 어렸다.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래, 고빈다, 그래, 옳게 말했어. 제대로 기억했어. 그렇다면 내게서 들은 다른 말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 나는 가르침과 배움을 미심쩍어하게 되었고 거기에 지쳤다는 것, 스승들에게서 우리에게 건너오는 말을 나는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것 말이야. 하지만 좋아, 친구야, 그 가르침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어. 우리가 그 가르침의 가장 좋은 열매를 벌써 맛보았다고 마음속으로는 믿지만."

고빈다가 말했다. "네가 나서 주니 가슴이 기뻐. 하지만 말해 봐,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고타마의 가르침을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 벌써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내주었다는 거야?"

싯다르타가 말했다. "이 열매를 누리고 나머지는 기다려 보자, 오, 고빈다! 우리가 벌써 고타마 덕분에 얻은 이 열매는, 그가 우리를 사문들 곁에서 불러낸다는 거야! 그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는, 오, 친구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자."

바로 그날 싯다르타는 사문들의 장로에게 떠나겠다는 결심을 알렸다. 나이 어린 사람이자 제자에게 걸맞은 공손함과 겸손함으로 장로에게 알렸다. 그러나 사문은 두 젊은이가 자기를 떠나려 한다는 데 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고빈다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고빈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이제 저 노인한테 보여 줄게. 내가 그 밑에서 뭔가 배웠다는 걸."

싯다르타는 사문 바로 앞에 다가가 서서, 영혼을 한데 모으고, 제 눈길로 노인의 눈길을 붙잡아 움아매고, 말을 잃게 하고, 의지를 잃게 하고, 제 의지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소리 없이 행하라고 명했다. 노인은 말을 잃었고, 눈은 굳었고, 의지는 얼어붙었고, 두 팔은 축 늘어졌다. 노인은 힘없이 싯다르타의 마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싯다르타의 생각이 사문을 사로잡았고, 사문은 그 생각들이 명하는 대로 해야 했다. 그리하여 노인은 몇 번이고 몸을 굽혀 절했고, 축복하는 몸짓을 해 보였고, 더듬거리며 경건하게 길 떠나는 이들의 평안을 빌었다. 두 젊은이는 고마워하며 절로 답하고, 축원으로 답하고, 인사를 하며 그곳을 떠났다.

길을 가며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싯다르타, 너는 사문들 곁에서 내가 알던 것보다 더 많이 배웠구나. 늙은 사문을 홀리는 건 어려워, 아주 어려워. 정말이지, 네가 거기 남았더라면 머잖아 물 위를 걷는 법도 배웠을 거야."

"나는 물 위를 걷기를 바라지 않아." 싯다르타가 말했다. "늙은 사문들이나 그런 재주에 만족하라지!"

1. 인도의 종교, 특히 불교에서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져 다시는 태어남과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경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불이 꺼짐)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고타마

사바티¹라는 도시에서는 아이라면 누구나 세존이신 붓다의 이름을 알았고, 집집마다 고타마의 제자들에게, 말없이 탁발하는 이들에게 발우를 채워 줄 채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 가까이에는 고타마가 가장 즐겨 머물던 곳, 제타바나 동산²이 있었는데, 부유한 상인이자 세존을 한결같이 받들던 아나타핀디카³가 세존과 그 제자들에게 바친 동산이었다.

고타마가 머무는 곳을 찾아 나선 두 젊은 고행자가 들은 이야기와 대답은 하나같이 이 고장을 가리켰다. 사바티에 이르자, 두 사람이 탁발하려고 맨 처음 문 앞에 멈춰 선 집에서 곧바로 먹을 것을 내주었고, 두 사람은 먹을 것을 받았으며, 싯다르타는 먹을 것을 건네준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보시를 베푸는 이여, 우리는 알고 싶소. 붓다께서, 더없이 존귀하신 분께서 어디 머무시는지 꼭 알고 싶소. 우리는 숲에서 온 두 사문인데, 그분을, 완성에 이른 분을 뵈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다고요."

여인이 말했다. "숲에서 오신 사문들이여, 참으로 제대로 찾아오셨구려. 아시오, 세존께서는 제타바나에, 아나타핀디카의 동산에 머물고 계시오. 순례자들이여, 거기서 밤을 보내시구려.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으려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몰려들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다 머물 만큼 자리가 넉넉하다오."

그러자 고빈다가 기뻐했고, 기쁨에 넘쳐 외쳤다. "아, 그렇다면 우리 목표에 이르렀구나, 우리 길도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데 말해 주시오, 순례하는 이들의 어머니여, 그분을, 붓다를 아시오? 그분을 직접 보셨소?"

여인이 말했다. "세존을 여러 번 뵈었소. 여러 날, 그분이 누런 겹옷을 입고 말없이 골목을 지나가시는 것을, 말없이 집집의 문 앞에서 발우를 내미시는 것을, 채워진 발우를 들고 떠나가시는 것을 뵈었소."

고빈다는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고, 더 많은 것을 묻고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싯다르타가 그만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길을 떠났는데, 적지 않은 순례자들이, 그리고 고타마의 교단에 속한 승려들도 제타바나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길을 물을 필요도 거의 없었다. 밤이 되어 그곳에 다다르고 보니, 잠자리를 청하고 또 얻는 이들이 쉴 새 없이 도착하고, 서로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숲속 생활에 익숙한 두 사문은 재빨리, 소리 없이 몸 누일 곳을 찾아내어 아침까지 쉬었다.

해가 떠오르자 두 사람은 믿는 이들과 호기심에 찬 이들이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어 여기서 밤을 보냈는지 보고 놀랐다. 아름다운 동산의 길마다 누런 옷을 입은 승려들이 거닐었고, 나무 아래 여기저기에는 승려들이 관조에 깊이 잠기거나 도를 논하며 앉아 있었으며, 그늘진 동산은 사람들로 가득해 별 떴처럼 북적였다.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다. 승려들은 대부분 하루에 단 한 번 드는 점심 끼니를 도시에서 얻어 오려고 발우를 들고 길을 나섰다. 붓다 자신도, 깨달은 이도 아침이면 으레 탁발을 나섰다.

싯다르타는 붓다를 보았고, 곧바로 알아보았다. 어느 신이 가리켜 보여 준 것만 같았다. 누런 가사를 걸치고 손에 발우를 든 소박한 사내 하나가 고요히 걸어가는 것을 싯다르타는 보았다.

"저기 봐!" 싯다르타가 고빈다에게 나직이 말했다. "저분이 붓다야."

고빈다는 누런 가사를 입은 그 승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백 명의 승려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곧 고빈다도 알아보았다. 저분이구나. 두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며 그를 눈여겨보았다.

붓다는 겸손하게, 생각에 깊이 잠겨 제 길을 갔다. 그 고요한 얼굴은 즐거워 보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안으로 조용히 미소 짓는 듯했다. 숨은 미소를 머금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건강한 아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붓다는 걸었고, 그를 따르는 승려들과 똑같이 정해진 규율을 꼭 지켜 옷을 입고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걸음걸이, 고요히 내리칸 눈길, 고요히 늘어뜨린 손, 그리고 고요히 늘어뜨린 그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평화를 말했고, 완전함을 말했으며, 무엇을 찾지도 흥내 내지도 않았고, 시들지 않는 평온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 쉬었다.

그렇게 고타마는 탁발하러 도시를 향해 걸어갔고, 두 사문은 오로지 그 평온의 완전함으로, 그 모습의 고요함으로 그를 알아보았다. 그 모습에서는 찾아 헤맬도, 원함도, 흥내 냄도, 애씀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빛과 평화만이 보였다.

"오늘 우리는 저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게 될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싯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가르침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그 가르침이 자기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리라 믿지도 않았다. 두 다리 세 다리 건너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는 했어도, 고빈다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 붓다의 가르침에 무엇이 담겼는지 이미 몇 번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싯다르타가 고타마의 머리를, 어깨를, 발을, 고요히 늘어뜨린 손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 손의 손가락마다 마디

하나하나가 가르침이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숨 쉬고, 진리의 향기를 풍기고, 진리로 빛나는 것만 같았다. 이 사람은, 이 붓다는 마지막 손가락 하나의 몸짓에 이르기까지 참되었다. 이 사람은 거룩했다. 싯다르타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이토록 우러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이 사람만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도시까지 붓다를 따라갔다가, 그날은 자기들도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말없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새 한 마리 배도 채우지 못할 만큼 적게 끼니를 드는 것을 보았고, 망고나무 그늘로 물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더위가 가라앉고, 동산에 묵는 이들이 모두 생기를 되찾아 한데 모여들자, 두 사람은 붓다가 가르침을 퍼는 것을 들었다. 두 사람은 붓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 또한 완전했고, 완전한 평온을 품었으며, 평화로 가득했다. 고타마는 괴로움에 관한 가르침을,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에 관한 가르침을,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관한 가르침을 폈다. 그의 고요한 설법은 평온하고 맑게 흘렀다. 삶은 괴로움이었고,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으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은 이미 찾아졌다. 붓다의 길을 걷는 이는 해탈을 찾았다. 세존은 부드럽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가르쳤고, 여덟 가지 바른 길을 가르쳤으며, 가르침과 비유와 되풀이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을 참을성 있게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처럼, 별이 가득한 밤하늘처럼 듣는 이들 위로 밝고 고요하게 감돌았다.

붓다가 설법을 마쳤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순례자 여럿이 앞으로 나와 교단에 받아 달라고 청했고, 가르침에 귀의했다. 고타마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대들은 가르침을 잘 들었고,

가르침은 잘 설해졌소. 그러니 이리 가까이 와서 거룩한 삶을 걸으며 모든 괴로움을 끝내시오."

보라, 그때 수줍음 많은 고빈다도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저도 세존과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러고는 제자로 받아 달라고 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곧이어 붓다가 잠자리에 들려고 물러가자, 고빈다는 싯다르타에게 돌아서서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싯다르타, 내가 너를 나무랄 처지는 아니야. 우리 둘 다 세존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둘 다 가르침을 들었어. 고빈다는 가르침을 들었고, 고빈다는 거기에 귀의했어. 그런데 너는, 내가 우러르는 친구야, 너도 해탈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머뭇거리려는 거야? 아직도 기다리려는 거야?"

고빈다의 말을 들었을 때, 싯다르타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오래도록 고빈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비웃음 없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고빈다, 내 친구야, 이제 너는 발걸음을 내디뎠구나. 이제 너는 길을 골랐구나. 오, 고빈다, 너는 언제나 내 친구였고, 언제나 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걸어왔지. 나는 자주 생각했어. 고빈다도 언젠가 한 번쯤은 나 없이, 제 영혼에서 우러나 혼자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봐, 이제 너는 어른이 되어 네 길을 스스로 고르는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오, 내 친구야! 해탈을 찾기를!"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한 고빈다가 조바심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말 좀 해 봐, 제발, 친구야! 너도, 학식 깊은 내 친구도 거룩한 붓다께 귀의할 거라고 말해 줘. 달리 될 리가 없잖아!"

싯다르타가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축원을 흘려들었구나, 오, 고빈다. 다시 말할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해탈을 찾기를!"

그 순간 고빈다는 벼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울기 시작했다.

"싯다르타!" 고빈다가 서럽게 외쳤다.

싯다르타는 다정하게 말했다. "잊지 마, 고빈다, 너는 이제 붓다의 사문 무리에 속해 있다는 걸! 너는 고향과 부모를 버렸고, 태생과 재산을 버렸고, 네 뜻을 버렸고, 우정을 버렸어. 가르침이 그러기를 바라고, 세존께서 그러기를 바라셔. 너 스스로도 그러기를 바랐고. 내일, 오, 고빈다,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두 벗은 오래도록 숲속을 거닐었고, 오래도록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빈다는 어째서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 가르침에서 대체 무슨 힘을 찾았는지 말해 달라고 거듭거듭 벗을 졸랐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그때마다 물리치며 말했다. "이제 그만 마음을 놓아, 고빈다! 세존의 가르침은 아주 훌륭해. 내가 어떻게 거기서 힘을 찾겠어?"

이른 새벽, 붓다를 따르는 이 하나가, 붓다의 가장 나이 든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이 동산을 지나가며, 이제 막 가르침에 귀의한 이들에게 누런 옷을 입히고 새로 든 신분의 첫 가르침과 첫 의무를 일러 주려고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러자 고빈다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젊은 날의 벗을 한 번 더 끌어안고는, 갓 출가한 이들의 행렬에 섞였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생각에 잠겨 동산을 거닐었다.

그때 고타마가, 세존이 싯다르타와 마주쳤는데, 싯다르타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렸을 때 붓다의 눈길이 자애와 고요로 가득했기에,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존귀한 이에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청했다. 세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싯다르타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세존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는 복을 누렸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려고 벗과 함께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제 벗은 세존의 제자들 곁에 머물 것입니다. 벗은 세존께 귀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순례길에 오르려 합니다."

"그대 좋을 대로 하시오." 존귀한 이가 정중하게 말했다.

"너무 당돌한 말씀인 줄 압니다만," 싯다르타가 말을 이었다. "제 생각을 숨김없이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세존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분께서 잠시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붓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싯다르타가 말했다. "더없이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세존의 가르침에서 무엇보다 한 가지에 감탄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분명하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세상을 하나의 완전한 사슬로, 언제 어디서도 끊어진 적 없는 사슬로, 원인과 결과로 짜인 영원한 사슬로 보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토록 분명하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토록 반박할 수 없게 드러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을 거쳐 세상을 완전한 이어짐으로, 빈틈없고 수정처럼 맑으며 우연에 매이지 않고 신들에게도 매이지 않는 이어짐으로 바라볼 때, 브라만이라면 누구라도 참으로 가슴이 더욱 벅차게 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선한지 악한지, 세상 속의 삶이 괴로움인지 기쁨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하나임,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어짐,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같은 물줄기에, 원인과 생겨남과 죽음이라는 같은 법칙에 감싸여 있음, 이것이 세존의 숭고한 가르침에서 환히 빛납니다, 완성에 이르신 분이시여. 그런데 바로 그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의 이 하나임과 빈틈없는 맞물림이 그럼에도 한 곳에서 끊어집니다. 조그만 틈으로 이 하나임의 세계 안에 무언가 낯선 것이, 새로운 것이, 전에는 없었고 보여 줄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흘러듭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겨 넘에 관한, 해탈에 관한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틈으로, 이 조그만 끊어짐으로 영원하고 하나로 이어진 세계의 법칙 전체가 다시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이런 반론을 입 밖에 내는 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고타마는 미동도 없이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완성에 이른 이가 그 자애로운 목소리로, 정중하고 맑은 그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가르침을 들었소, 브라만 집안의 아들이여. 그리고 가르침을 그토록 깊이 헤아렸으니 잘된 일이오. 그대는 가르침에서 틈을, 흠을 하나 찾아냈소. 앞으로도 그것을 더 헤아려 보기를 바라오. 그러나 앎을 탐하는 이여, 견해의 덩불과 말씨름을 경계하십시오. 견해란 대수로운 것이 아니오. 견해는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도, 영리할 수도 어리석을 수도 있고, 누구든 그것을 따를 수도 버릴 수도 있소. 그러나 그대가 내게서 들은 가르침은 견해가 아니오. 그 목표는 앎을 탐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는 데 있지 않소. 그 목표는 다른 데 있소. 그 목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이오.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오. 다른 것은 없소."

"세존이시여,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젊은이가 말했다. "세존과 다투려고, 말씨름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세존의 말씀이 옳습니다. 견해란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한순간도 세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붓다이심을, 세존께서 목표에, 수천의 브라만과 브라만 집안의 아들들이 찾아 길을 나선 가장 높은 목표에 이르렀음을 저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찾으셨습니다. 그 해탈은 세존께서 몸소 찾아 해매신 끝에, 세존 자신의 길 위에서, 생각을 거쳐, 명상을 거쳐, 인식을 거쳐, 깨달음을 거쳐 얻으신 것입니다. 가르침을 거쳐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구도 가르침을 거쳐

해탈을 얻지는 못합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깨달음의 시간에 세존께 일어난 일을 세존께서는 누구에게도 말로, 가르침으로 전하고 일러 주지 못하실 것입니다! 깨달으신 붓다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많은 이에게 바르게 살고 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토록 분명하고 그토록 존귀한 이 가르침에도 담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세존께서 몸소 겪으신 일, 수십만 사람 가운데 오직 세존 홀로 겪으신 그 일의 비밀은 이 가르침에 담기지 않았습시다. 이것이 제가 가르침을 들으며 생각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방랑을 이어 가는 까닭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가르침을, 더 나은 가르침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을 떠나 홀로 제 목표에 이르거나 아니면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이날을, 제 눈이 한 성자를 뵈었던 이 시간을 자주 떠올릴 것입니다."

붓다의 두 눈은 고요히 땅을 내려다보았고, 헤아릴 길 없는 그 얼굴은 완전한 평정 속에서 고요히 빛났다.

"그대의 생각이," 존귀한 이가 천천히 말했다. "그릇되지 않기를 바라오! 그대가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오! 그러나 내게 말해 보시오. 가르침에 귀의한 내 사문들의 무리를, 나의 많은 형제들을 보았소? 그리고 낯선 사문이여, 그대는 믿소? 이들 모두가 가르침을 떠나 세상의 삶으로, 쾌락의 삶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다고 믿소?"

"그런 생각은 제게 당치도 않습니다." 싯다르타가 외쳤다. "그들 모두 가르침 곁에 머물기를, 그들 모두 저마다의 목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남의 삶을 판단할 처지가 제게는 못 됩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저 하나만을 위해서 저는 판단해야 하고, 골라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사문들이 찾는 것은 자아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만일 제가 세존의 제자가 된다면, 제 자아가

겉으로만, 거짓으로만 잠잠해지고 해탈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은 계속 살아남아 커 가는 일이 제게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때 저는 가르침을, 세존을 따르는 일을, 세존을 향한 제 사랑을, 승려들의 교단을 제 자아로 삼았을 테니 말입니다!"

고타마는 반쯤 미소를 머금은 채, 흔들림 없는 환함과 다정함으로 낮은 이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보일 듯 말 듯 한 몸짓으로 그를 떠나보냈다.

"사문이여, 그대는 영리하구려." 존귀한 이가 말했다.

"벗이여, 그대는 영리하게 말할 줄 아는구려. 지나친 영리함을 경계하십시오!"

붓다는 걸음을 옮겨 멀어져 갔고, 그 눈길과 반쯤 머금은 미소는 싯다르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저렇게 바라보고 미소 짓고, 저렇게 앉고 걷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참으로 나도 저렇게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고 걸을 수 있기를, 저토록 자유롭게, 저토록 존귀하게, 저토록 감추어져 있으면서도 저토록 열린 채로, 저토록 아이 같고 신비롭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참으로 저렇게 바라보고 걷는 이는 제 자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뿐이다. 좋다, 나도 내 자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보리라.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하고 싯다르타는 생각했다. 단 한 사람, 그 앞에서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제 다른 누구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으리라, 더는 누구 앞에서도. 이 사람의 가르침도 나를 끌어내지 못했으니, 이제 어떤 가르침도 나를 끌어내지 못하리라.

붓다는 내게서 앗아 갔다, 하고 싯다르타는 생각했다. 내게서 앗아 갔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선사했다. 내게서 벗을 앗아 갔다. 나를

믿다가 이제는 붓다를 믿는 이를, 나의 그림자였다가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가 된 이를. 그러나 붓다는 내게 싯다르타를, 나 자신을 선사했다.

1.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도읍. 한역 불전에서는 사위성이라 한다.
2. 사바티 교외에 있던 숲 동산으로, 붓다가 오래 머물며 가르침을 편 곳. 한역 불전에서는 기원정사라 한다.
3. 사바티의 부유한 상인. 제타 태자에게서 이 동산을 사들여 붓다와 제자들에게 바쳤다고 전한다. 한역 불전에서는 급고독 장자라 한다.

깨어남

붓다가, 완성에 이른 이가 남은 동산, 고빈다가 남은 동산을 떠날 때, 싯다르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도 이 동산에 남아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느꼈다. 온 마음을 가득 채운 이 느낌을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곰곰이 되새겼다. 깊이 되새겼다. 깊은 물속을 내려가듯 이 느낌의 바닥까지, 원인들이 잠겨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원인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일이며, 오직 그렇게 해야만 느낌은 인식이 되어 사라지지 않고, 본질을 얻어 제 안에 품은 것을 밖으로 내비치기 시작한다고 싯다르타는 여겼기 때문이다.

천천히 걸어가며 싯다르타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기가 더는 젊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묵은 허물이 뱀을 떠나가듯 무언가 하나가 자기를 떠나갔음을, 젊은 날 내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에게 속해 있던 무언가 하나가 이제 더는 자기 안에 없음을 알아차렸다.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제 길 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스승, 가장 높고 가장 지혜로운 스승, 가장 거룩한 이, 붓다, 그 스승마저 싯다르타는 떠났고, 그 스승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했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생각에 잠긴 이는 더욱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침에서, 스승들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너를 많이 가르친 그들조차 끝내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다. "내가 그 뜻과 본질을 배우고 싶었던 것은

자아였다.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것, 이겨 내고 싶었던 것도 자아였다. 그러나 나는 자아를 이겨 낼 수 없었다. 자아를 속일 수 있었을 뿐이고, 자아에게서 달아날 수 있었을 뿐이고, 자아 앞에서 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나의 자아만큼, 내가 살아 있다는 것, 내가 하나이며 다른 모든 이에게서 떨어지고 갈라져 있다는 것, 내가 싯다르타라는 것, 이 수수께끼만큼 내 생각을 사로잡은 적이 없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보다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싯다르타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던 이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곧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 하나가, 새로운 생각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생각은 이러했다. "내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싯다르타가 내게 이토록 낯설고 알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인에서, 오직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한다. 나는 나를 두려워했고, 나에게서 달아나고 있었다! 나는 아트만을 찾았고, 브라흐만을 찾았다. 나는 내 자아를 조각조각 토막 내고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그 알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껍질의 알맹이를, 아트만을, 생명을, 신성한 것을, 마지막 것을 찾아낼 작정이었다. 그러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싯다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고, 긴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느낌이 온몸을 타고 발끝까지 흘렀다. 그리고 곧 그는 다시 걸었다. 제가 할 일을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다.

"오," 그는 후련하게 숨을 깊이 들이쉬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는 싯다르타가 내게서 빠져나가게 두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생각과 내 삶을 아트만과 세상의 괴로움에서 시작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나를 죽이고 토막 내어 그 잔해 뒤에서 비밀을 찾으려 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요가베다도, 아타르바베다도, 고행자들도, 그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게 두지 않으리라.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우리라, 나 자신의 제자가 되리라, 나를 알아 가리라, 싯다르타라는 비밀을."

그는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세상은 알록달록했고, 세상은 기이하고 수수께끼 같았다! 여기에는 파랑이 있었고, 여기에는 노랑이, 여기에는 초록이 있었으며, 하늘이 흐르고 강이 흘렀고, 숲이 솟고 산이 솟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고 마법 같았으며, 그 한가운데에 그가, 싯다르타가, 깨어나는 이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노랑과 파랑이, 강과 숲이 처음으로 눈을 거쳐 싯다르타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더는 마라¹의 마법이 아니었고, 더는 마야²의 너울이 아니었으며, 더는 현상 세계의 무의미하고 우연한 다양함에, 다양함을 업신여기고 하나임을 찾는 깊이 생각하는 브라만이 경멸해 마지않는 그 다양함이 아니었다. 파랑은 파랑이었고, 강은 강이었다. 비록 파랑과 강 속에, 싯다르타 속에 하나인 것, 신성한 것이 숨어 살고 있다 해도, 여기서는 노랑이 되고, 여기서는 파랑이 되고, 저기서는 하늘이 되고, 저기서는 숲이 되고, 여기서는 싯다르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것의 본성이요 뜻이었다. 뜻과 본질은 사물 뒤 어딘가에 있지 않았다. 뜻과 본질은 사물 안에, 모든 것 안에 있었다.

"나는 얼마나 귀먹고 무디었던가!" 빠르게 걸어가던 이는 생각했다. "누군가 어떤 글을 읽으며 그 뜻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기호와 글자를 업신여기며 속임수라, 우연이라, 쓸모없는 껍질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읽고, 익히고, 사랑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런데 나는, 세상이라는 책과 나 자신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려 했던 나는, 미리 짐작해 둔 뜻을 좇느라 기호와 글자를 업신여겼다. 나는 현상의 세계를 속임수라 불렀고, 내 눈과 내 혀를 우연하고 쓸모없는 현상이라 불렀다.

아니다, 그것은 이제 지나갔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참으로 깨어났고, 오늘에야 비로소 태어났다."

이 생각을 하던 싯다르타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마치 앞길에 뱀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것 또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참으로 깨어난 사람이나 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은 그는 제 삶을 새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바로 그날 아침, 이미 깨어나기 시작하여 이미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에서 제타바나 동산을, 저 세존의 동산을 떠날 때만 해도, 고행자로 지낸 여러 해 끝에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마음먹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앞길에 뱀이 누워 있는 것처럼 걸음을 멈춘 바로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이 통찰에도 눈떴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더는 고행자가 아니고, 더는 사제가 아니고, 더는 브라만이 아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 곁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공부를 할까? 제사를 올릴까? 명상을 닦을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은 더는 내 길 위에 있지 않다."

싯다르타는 꿈쩍 않고 서 있었다. 자기가 얼마나 혼자인지 보았을 때, 한순간, 한 호흡 동안 심장이 얼어붙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작은 짐승처럼, 새 한 마리나 토끼 한 마리처럼. 여러 해 동안 고향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것을 느꼈다. 그때까지는 늘, 가장 아득한 명상 속에서도 싯다르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브라만이었으며, 높은 신분의 사람, 정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저 싯다르타, 깨어난 이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싯다르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고, 한순간 몸이 얼어붙으며 떨렸다. 아무도 것처럼 혼자이지는 않았다. 귀족이면 귀족들에게, 장인이면 장인들에게 속하여 그들 곁에서

의지할 곳을 찾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의 말을 쓰지 않는 이는 없었다. 브라만들 틈에 끼어 그들과 더불어 살지 않는 브라만은 없었고, 사문이라는 신분에서 의지할 곳을 찾지 않는 고행자는 없었으며, 숲속에서 가장 외로이 버려진 은자조차 하나이고 혼자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은자 역시 어딘가에 속해 있었고, 그런 은자 역시 제게 고향이 되어 주는 신분에 들어 있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었고, 천 명의 승려가 고빈다의 형제가 되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믿음을 믿고, 같은 말을 썼다. 그러나 그는, 싯다르타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가? 누구의 삶을 나누게 될까? 누구의 말을 쓰게 될까?

세상이 사방에서 녹아내려 멀어져 가고 그가 하늘의 별 하나처럼 홀로 서 있던 이 순간에서, 이 차가움과 낙담의 순간에서 싯다르타는 솟아올랐다. 전보다 더욱 자아가 되어, 더욱 단단히 뭉쳐진 채로. 그는 느꼈다. 이것이 깨어남의 마지막 떨림이었고, 태어남의 마지막 진통이었다. 그리고 곧 싯다르타는 다시 성큼 걸음을 내디뎠다, 빠르게, 조바심치며 걷기 시작했다. 더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더는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았다. 더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1. 불교에서 수행자를 찢고 위협하여 깨달음을 가로막는 마왕.

2. 산스크리트어로 '허상', '환영'이라는 뜻. 인도 철학에서 참된 실재를 가리는 눈앞 세계의 겉모습을 이른다.

제2부

일본에 있는 나의 사촌 빌헬름 군데르트에게

카말라

싯다르타는 길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세상이 모습을 바꾸었고, 가슴은 마법에 걸려 있었다. 그는 해가 숲으로 뒤덮인 산줄기 위로 떠올라 먼 야자수 바닷가 위로 지는 것을 보았다. 밤이면 하늘에 가지런히 자리 잡은 별들을 보았고, 쪽빛 하늘을 조각배처럼 떠가는 초승달을 보았다. 나무를, 별을, 짐승을, 구름을, 무지개를, 바위를, 풀을, 꽃을, 시내와 강을, 아침 덩불에서 번득이는 이슬을, 멀리 푸르고 희끄무레하게 솟은 높은 산들을 보았으며, 새들이 노래하고 별들도 노래했고, 바람은 눈 위를 은빛으로 쓸고 지나갔다. 천 가지로 알록달록한 이 모든 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고, 언제나 해와 달이 비추었고, 언제나 강물이 소리 내어 흐르고 별들이 잉잉거렸다. 그러나 예전의 싯다르타에게 이 모든 것은 눈앞에 드리운 덧없고 거짓된 너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 생각으로 꿰뚫어 없애 버려야 할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고 본질은 보이는 것 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풀려난 그의 눈은 이편에 머물러, 보이는 것을 보고 알아보았으며,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고, 본질을 찾지 않았고, 어떤 저편도 겨누지 않았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찾아 헤매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아이답게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웠다. 달과 별이 아름다웠고, 시내와 강기슭이, 숲과 바위가, 염소와 황금빛 풍뎡이가, 꽃과 나비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가까운 것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의심 없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이었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볕도 달랐고, 숲 그늘의 서늘함도 달랐고, 시냇물과 못물 맛도 달랐고, 호박과 바나나 맛도 달랐다. 낮은 짧았고 밤도 짧았으며, 한 시간 한 시간이 바다 위의 돛처럼 쏜살같이 달아났고, 그 돛 아래에는 보물을 가득, 기쁨을 가득 실은 배가 있었다. 싯다르타는 높다란 숲 지붕 속 높은 가지 사이로 원숭이 무리가 떼 지어 옮겨 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 거칠고 탐욕스러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싯다르타는 숫양 한 마리가 암양을 뒤쫓아 교미하는 것을 보았다. 갈대 우거진 호수에서는 저녁 허기에 쫓긴 강꼬치고기가 사냥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앞에서 어린 물고기들이 겁에 질려 파닥이고 번뜩이며 떼 지어 물 밖으로 튀어 올랐고, 사납게 몰아치는 사냥꾼이 일으킨 다급한 물소용돌이에서는 힘과 걱정의 냄새가 짙게 풍겨 나왔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제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 속해 있었다. 눈으로는 빛과 그림자가 흘러들었고, 가슴으로는 별과 달이 흘러들었다.

길을 가며 싯다르타는 제타바나 동산에서 겪은 모든 일도, 거기서 들은 가르침도, 신성한 붓다도, 고빈다와 헤어진 일도, 세존과 나눈 대화도 떠올렸다. 세존께 드렸던 자신의 말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고, 그때 자기가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것들을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랐다. 고타마에게 한 말, 곧 붓다의 보물이자 비밀은 가르침이 아니라 붓다가 일찍이 깨달음의 시간에 겪은 것, 말로 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그 무엇이라는 말. 바로 그것을 겪으려고 그는 이제 길을 나섰고, 바로 그것을 이제 겪기 시작했다. 이제 겪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제 자아가 아트만이요, 브라흐만과 똑같이 영원한 본질이라는 것쯤은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러나 이 자아를 참으로 찾아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생각의 그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몸이 자아가 아니고 감각의 놀이도 자아가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생각 또한 자아가 아니었고, 지성도, 배워 익힌 지혜도, 결론을 끌어내고 이미 생각한 것에서 새 생각을 자아내는 배워 익힌 기술도 자아가 아니었다. 아니, 이 생각의 세계도 아직 이편에 있었고, 감각이라는 우연한 자아를 죽이는 대신 생각과 학식이라는 우연한 자아를 살찌운다면 어떤 목표에도 이르지 못했다. 생각도 감각도 좋은 것이었고, 둘 모두의 뒤에 마지막 뜻이 숨어 있었으며, 둘 다 귀 기울여 들어야 했고, 둘 모두와 놀아야 했으며, 둘 다 업신여기지도 지나치게 떠받들지도 말아야 했고, 둘 모두에게서 가장 깊은 곳의 은밀한 목소리들을 엿들어야 했다. 목소리가 구하라 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리라, 목소리가 원하는 곳 말고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리라. 고타마는 어찌하여 그 옛날, 시간 중의 시간에, 깨달음이 찾아온 보리수 아래에 앉았던가? 그는 목소리를, 이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명하는 제 가슴속의 목소리를 들었고, 고행도 제사도 목욕재계도 기도도,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잠도 꿈도 앞세우지 않고 그 목소리에 따랐다. 그렇게 따르는 것, 바깥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목소리에만 따르는 것, 그렇게 채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좋았고, 그것이 꼭 필요했으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강가에 있는 뱃사공의 짚 오두막에서 잠든 밤, 싯다르타는 꿈을 꾸었다. 고빈다가 누런 고행자 옷을 입고 앞에 서 있었다. 고빈다는 슬퍼 보였고, 슬프게 물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그러자 싯다르타는 고빈다를 끌어안고 두 팔로 감싸 가슴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것은 이제 고빈다가 아니라 한 여자였고, 여자의 옷섶 사이로 풍만한 젖가슴이 솟아 나왔으며, 싯다르타는 그 가슴에 기대어 젖을 마셨고, 그 젖은 달고 진한 맛이 났다. 여자와 남자의 맛이, 해와 숲의 맛이, 짐승과 꽃의 맛이, 온갖 열매의 맛이, 온갖 쾌락의 맛이 났다.

그 젖에 취해 정신이 아득해졌다. 싯다르타가 깨어났을 때, 오두막 문 너머로 희부연 강이 어른거렸고, 숲에서는 올빼미의 어두운 울음이 깊고 그윽하게 울려왔다.

날이 밝자 싯다르타는 자기를 재워 준 주인,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 달라고 청했다. 뱃사공은 대나무 뗏목에 그를 태워 강을 건넜고, 넓은 강물이 아침 햇살에 불그스름하게 빛났다.

"아름다운 강이요." 싯다르타가 길동무에게 말했다.

"예," 뱃사공이 말했다. "참 아름다운 강입니다. 저는 이 강을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자주 이 강에 귀를 기울였고, 자주 이 강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언제나 이 강에게서 배웠습니다. 강에게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맙소, 나의 은인이여." 건너편 기슭에 내리며 싯다르타가 말했다. "벗이여, 나는 그대에게 묵어 간 답례로 줄 선물도 없고, 샀으로 줄 것도 없소. 나는 고향 없는 사람, 브라만 집안의 아들이자 사문이요."

"진작 알아보았습니다." 뱃사공이 말했다. "그래서 나리께 샀도 바라지 않았고, 답례 선물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은 나리께서 다음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오?" 싯다르타가 유쾌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것도 강에게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문 나리, 나리께서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나리의 우정이 제 샅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들께 제물을 바치실 때 저를 떠올려 주십시오."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은 헤어졌다. 미소를 지으며 싯다르타는 뱃사공의 우정과 다정함을 기뻐했다. "고빈다 같은 사람으로구나." 싯다르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고빈다 같다. 모두들 고마워한다, 정작 고맙다는 말은 자기들이 들어야

하는데도. 모두들 고분고분하고, 모두들 기꺼이 벗이 되려 하고, 기꺼이 따르려 하고, 생각은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로구나."

한낮 무렵 그는 어느 마을을 지나갔다. 흙집 앞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뒹굴며 호박씨와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놀았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엉겨 붙어 싸웠지만, 낮선 사문이 다가오자 모두 겁을 먹고 달아났다. 마을 끝에서 길은 시내를 건너가게 되어 있었는데, 시냇가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싯다르타가 인사하자 여자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띤 채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눈의 흰자위가 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는 길손끼리 으레 나누는 축복의 말을 건너편으로 외쳐 건네고, 큰 도시까지 아직 얼마나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자는 일어나 곁으로 다가왔고, 젊은 얼굴에서 축축한 입술이 곱게 반짝였다. 여자는 농을 주고받으며, 벌써 밥은 먹었느냐고, 사문들은 밤이면 숲에서 홀로 자고 여자를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데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왼발을 싯다르타의 오른발 위에 올려놓고, 교본들이 '나무 타기'라고 부르는 그런 사랑의 즐거움을 여자가 남자에게 청할 때 하는 몸짓을 해 보였다. 싯다르타는 피가 더워지는 것을 느꼈고, 마침 그 순간 꿈이 다시 떠올라 여자 쪽으로 몸을 조금 숙여 젖가슴 끝의 갈색 꼭지에 입술을 대었다. 고개를 들자 욕망에 찬 얼굴로 미소 짓는 여자가 보였고, 가늘게 좁혀진 눈이 갈망에 겨워 애원하고 있었다.

싯다르타도 갈망을 느꼈고 욕정의 샘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으나, 아직 한 번도 여자를 만져 본 적이 없었으므로 두 손은 벌써 여자를 붙잡으려 하는데도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몸을 떨며 제 안의 목소리를 들었고, 목소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 여자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마법이 모두 걷혔고, 이제 보이는 것은 발정난 암컷 짐승의 축축한 눈빛뿐이었다. 싯다르타는 다정하게 여자의

뺨을 쓰다듬고는 돌아서서, 실망한 여자를 뒤로한 채 가벼운 걸음으로 대숲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싯다르타는 어느 큰 도시에 이르렀고, 사람이 그리웠던 터라 기뻐다. 그는 오랫동안 숲에서 살았고, 간밤에 잠을 잔 뱃사공의 짙 오두막은 실로 오랜만에 머리 위를 덮어 준 첫 지붕이었다.

도시 앞, 울타리를 두른 아름다운 숲 곁에서, 길을 가던 싯다르타는 바구니를 짊어진 하인과 하녀들의 조그만 행렬과 마주쳤다. 그 한가운데, 네 사람이 멘 화려한 가마 안, 알록달록한 차양 아래 붉은 방석 위에 한 여인이, 행렬의 여주인이 앉아 있었다. 싯다르타는 그 즐거움의 숲 어귀에 멈춰 서서 행렬을 바라보며 하인들을 보았고, 하녀들을, 바구니들을 보았고, 가마를 보았고, 가마 안의 귀부인을 보았다. 높이 틀어 올린 검은 머리 아래로 아주 환하고, 아주 여리고, 아주 영리한 얼굴이 보였다. 갓 벌어진 무화과 같은 연붉은 입, 곱게 다듬어 높은 활 모양으로 그린 눈썹, 영리하고 빈틈없는 검은 눈, 초록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윗옷 위로 솟은 희고 긴 목, 손목 위에 넓은 금팔찌를 두른 채 가만히 쉬고 있는 길고 가느다란 흰 손이 보였다.

싯다르타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고, 가슴이 웃었다. 가마가 가까이 오자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했고, 다시 몸을 일으키며 환하고 고운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높이 흰 눈썹 아래 영리한 눈을 잠시 읽었고, 처음 맡는 향기를 한 줄기 들이마셨다. 아름다운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고운 징조 속에 이 도시에 들어서는가, 싯다르타는 생각했다. 당장 숲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제야 숲 어귀에서 하인과 하녀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았는지, 얼마나 업신여기며, 얼마나 미심쩍어하며, 얼마나 쌀쌀맞게 쳐다보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직 사문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여전히 고행자요 거지로구나.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리라, 이대로 저 숲에 들어서서는 안 되리라. 그러고는 웃었다.

그는 처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숲과 그 여인의 이름을 물었고, 그 숲이 이름난 기녀 카말라¹의 숲이며, 카말라에게는 그 숲 말고도 도시 안에 집이 한 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싯다르타는 도시로 들어섰다.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목표를 좇으며 그는 도시가 자기를 빨아들이는 대로 몸을 맡겨, 골목골목의 물결에 떠밀려 다니다가 광장에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고, 강가의 돌계단에 앉아 쉬기도 했다. 저녁 무렵에는 이발사 조수 하나와 사귀었는데, 둥근 천장 아래 그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비슈누 신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난 사람이었으며, 싯다르타가 비슈누와 락슈미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었다. 밤은 강가의 배들 곁에서 보냈고, 이른 아침 첫 손님들이 가게에 들기 전에 그 이발사 조수에게 수염을 깎게 하고 머리를 자르게 했으며, 머리를 빗고 고운 기름을 발라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강으로 가서 먹을 감았다.

늦은 오후, 아름다운 카말라가 가마를 타고 제 숲으로 다가올 무렵, 숲 어귀에 서 있던 싯다르타는 허리 굽혀 절하고 기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러고는 행렬 맨 끝에 가던 하인에게 손짓하여, 젊은 브라만 하나가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청한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뒤 하인이 돌아와 기다리던 사람에게 따라오라 이르고는, 뒤따라오는 그를 말없이 카말라가 긴 의자에 누워 있는 정자로 데려가 카말라 곁에 홀로 남겨 두었다.

"어제도 저 밖에 서서 내게 인사하던 사람이 그대 아니오?" 카말라가 물었다.

"그렇소. 어제 벌써 그대를 보았고, 인사도 했소."

"하지만 어제는 수염을 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 머리에 먼지까지 뒤집어쓰고 있지 않았소?"

"잘 보았소, 하나도 빠짐없이 보았구려. 그대가 본 것은 사문이 되려고 고향을 떠나 세 해 동안 사문으로 살아온 브라만 집안의 아들, 싯다르타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길을 떠나 이 도시로 왔고, 도시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맨 처음 마주친 사람이 바로 그대였소. 이 말을 하려고 그대를 찾아왔소, 오, 카말라! 그대는 싯다르타가 눈을 내리깔지 않고 말을 건네는 첫 여인이오. 앞으로는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쳐도 다시는 눈을 내리깔지 않겠소."

카말라는 미소 지으며 공작 깃털 부채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물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말을 하려고 싯다르타가 나를 찾아왔단 말ियो?"

"그 말을 하려고, 그리고 그대가 그렇게 아름다워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려고 왔소. 또 그대가 언짢지 않다면, 카말라, 그대가 으뜸인 그 기예를 나는 아직 하나도 모르니, 내 친구가 되어 주고 스승이 되어 달라고 청하고 싶소."

그러자 카말라가 소리 내어 웃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오, 친구. 숲에서 온 사문이 나를 찾아와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다니! 이런 일도 처음이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낡아 해진 형겔으로 아랫도리만 가린 사문이 나를 찾아오다니! 나를 찾아오는 젊은이는 많고 그 가운데는 브라만 집안의 아들들도 있지만, 다들 고운 옷을 입고 오고, 좋은 신을 신고 오고, 머리에서는 향내가 나고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 있소. 나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그런 모양이라오, 사문 양반."

싯다르타가 말했다. "나는 벌써 그대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소. 어제 이미 배웠소. 벌써 수염을 깎았고, 머리를 빗었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소. 이제 모자란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소, 빼어난 이여. 고운 옷, 고운 신, 주머니 속의 돈이오. 알아 두시오, 싯다르타는 이런 하찮은 것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마음먹었고, 그 일을 이루어 냈소. 그대의 친구가 되어 그대에게서 사랑의 기쁨을 배우겠다고 어제 마음먹은 일을 내가 어찌 이루지 못하겠소! 두고 보시오, 카말라, 내가 얼마나 잘 배우는지. 나는 그대가 가르쳐 줄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배웠소. 그러니 이제 말해 보시오, 머리에 기름은 발랐지만 옷도 없고 신도 없고 돈도 없는, 지금 이대로의 싯다르타로는 그대 마음에 차지 않소?"

카말라가 웃으며 소리쳤다. "아니오, 귀하신 분, 아직은 모자라오. 옷이 있어야 하오, 예쁜 옷이. 신도 있어야 하오, 예쁜 신이. 주머니에는 돈이 두둑해야 하고, 카말라에게 줄 선물도 있어야 하오. 이제 알겠소, 숲에서 온 사문 양반? 잘 새겨 두었소?"

"잘 새겨 두었소." 싯다르타가 외쳤다. "그런 입에서 나온 말을 어찌 새겨 두지 않겠소! 그대의 입은 갓 벌어진 무화과 같구려, 카말라. 내 입도 붉고 싱싱하니 그대 입에 꼭 맞을 거요. 두고 보시오. 그런데 말해 보시오, 아름다운 카말라. 사랑을 배우겠다고 숲에서 나온 사문이 조금도 두렵지 않소?"

"내가 왜 사문을 두려워하겠소? 자칼들 틈에서 살다 와서 여자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 숲에서 온 어리석은 사문을?"

"오, 그 사문은 힘이 세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소. 그 사문이 그대를 억지로 어찌할 수도 있소, 어여쁜 아가씨. 그대를 빼앗아 갈 수도 있소. 그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소."

"아니오, 사문 양반, 그런 건 두렵지 않소. 누가 와서 덮쳐 학식이며 경건함이며 깊은 생각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한 사문이나 브라만이며 여태 있었소? 그런 사람은 없었소, 그런 것은 오롯이 그 사람 것이어서 주고 싶은 것만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주기 때문이요. 그렇소, 카말라도, 사랑의 기쁨도 꼭 그와 같소. 카말라의 입은 곱고 붉지만, 카말라가 원하지 않는데 그 입에 입 맞추려 해 보시오, 그토록 많은 달콤함을 줄 줄 아는 그 입에서 단물은 한 방울도 얻지 못할 거요! 그대는 잘 배우는 사람이니, 싯다르타, 이것도 배워 두시오. 사랑은 구걸해서 얻을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길에서 주을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는 없소. 그대는 길을 잘못 짚었구려. 아니, 그대처럼 잘생긴 젊은이가 그렇게 서투르게 덤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거요."

싯다르타는 미소 지으며 고개 숙여 절했다. "안타까운 일일 거요, 카말라, 그대 말이 참으로 옳소! 몹시 안타까운 일일 거요. 아니, 그대 입의 단물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소, 그대도 내 입의 단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싯다르타는 아직 모자란 것, 곧 옷과 신과 돈을 갖추면 다시 오겠소. 그런데 말해 주오, 고운 카말라. 내게 작은 충고를 하나 더 해 줄 수 없겠소?"

"충고라? 안 될 게 뭐 있소? 숲에서 자칼들 틈에 살다 온 가엾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문에게 누군들 기꺼이 충고해 주지 않겠소?"

"다정한 카말라, 그럼 일러 주오. 그 세 가지를 가장 빨리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친구, 그건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거라요. 그대가 배운 것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신을 받아야 하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손에 넣는 길은 그것밖에 없소. 그래, 그대는 무엇을 할 줄 아오?"

"나는 생각할 줄 아요. 기다릴 줄 아요. 굶을 줄 아요."

"그것뿐이요?"

"그것뿐이오. 아니, 시도 지을 줄 아오. 시 한 수에 입맞춤 한 번을 주겠소?"

"그대 시가 마음에 들면 그러리다. 어디, 어떤 시요?"

싯다르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이런 시구를 읊었다.

그늘진 제 숲으로 들어섰네, 아름다운 카말라.

숲 어귀에 서 있었네, 별에 그은 사문.

연꽃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깊이

허리를 굽혔네. 미소 지으며 답례했네, 카말라.

더 달콤하여라, 젊음이는 생각했네, 신들께 제물을 바치기보다

더 달콤하여라,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카말라가 손뼉을 크게 치자 금팔찌들이 찰랑찰랑 울렸다.

"그대 시가 아름답구려, 별에 그은 사문 양반. 정말이지, 그 시 값으로 입맞춤 한 번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겠소."

카말라가 눈길로 그를 끌어당기자, 싯다르타는 제 얼굴을 카말라의 얼굴 위로 숙여, 갓 벌어진 무화과 같은 그 입에 제 입을 포갰다. 카말라는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고, 싯다르타는 깊이 놀라며 느꼈다. 카말라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것을, 카말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자기를 휘어잡고, 밀어내고, 꺾어 들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첫 입맞춤 뒤로 하나하나 서로 다른 입맞춤들이 길게, 가지런히, 빈틈없이 다듬어진 채 줄지어 서서 아직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싯다르타는 숨을 깊이 몰아쉬며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순간 눈앞에 열리는 앞과 배울 거리의 충만함에 아이처럼 놀랐다.

"그대 시는 참 아름답구려." 카말라가 소리쳤다. "내가 부자라면 그 값으로 금화를 주겠소. 하지만 시로 그대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벌기는 어려울 거요. 카말라의 친구가 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하오."

"어쩌면 그렇게 입을 맞출 줄 아오, 카말라!" 싯다르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렇소, 그건 내가 할 줄 아오. 그러니 옷이며 신이며 팔찌며 온갖 아름다운 것이 내게는 모자라는 법이 없소. 하지만 그대는 어찌 되려오? 생각하고, 굶고, 시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소?"

"제사의 노래도 부를 줄 아오." 싯다르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부르고 싶지 않소. 주문도 외 줄 아오. 하지만 이제 더는 외고 싶지 않소. 경전들도 읽었고……"

"잠깐." 카말라가 말을 끊었다. "글을 읽을 줄 아오? 쓸 줄도 아오?"

"물론 할 줄 아오. 그쯤 할 줄 아는 사람은 더러 있소."

"대부분은 할 줄 모르오. 나도 할 줄 모르오. 그대가 읽고 쓸 줄 안다니 아주 잘됐소, 아주 잘됐소. 그 주문들도 언젠가 쓸 데가 있을 거요."

바로 그때 하녀 하나가 달려와 여주인의 귀에 무슨 소식을 속삭였다.

"손님이 오는구려." 카말라가 소리쳤다. "어서 사라지시오, 싯다르타. 아무도 여기서 그대를 보아서는 안 되오. 명심하시오! 내일 다시 봅시다."

카말라는 하녀를 시켜 그 경건한 브라만에게 흰 겹옷 한 벌을 내주게 했다. 싯다르타는 어찌 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하녀에게 이끌려 나가, 에움길을 돌아 정원 별채로 들어갔다가 겹옷 한 벌을 선물로 받았고, 덤불 속으로 안내되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어서 숲을 빠져나가라는 다급한 당부를 들었다.

싯다르타는 흐뭇한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 숲에 익숙한 몸이라 소리 없이 숲을 빠져나와 산울타리를 넘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둘둘 만 옷을 거드랑이에 낀 채 그는 도시로 돌아왔다. 길손들이 묵어 가는 집 문간에 서서 말없이 먹을 것을 청했고, 말없이 쌀떡 한 조각을 받았다.

어쩌면 당장 내일부터는 아무에게도 먹을 것을 청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자존심이 불길처럼 치솟았다. 그는 이제 사문이 아니었고, 빌어먹는 일은 이제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싯다르타는 쌀떡을 개에게 주고, 끼니를 거른 채 지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단순하구나." 싯다르타는 생각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사문이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려웠고, 고달팠고, 끝내는 가망이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쉽다, 카말라가 내게 해 주는 입맞춤 수업처럼 쉽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옷과 돈, 그뿐이고, 그것은 작고 가까운 목표라서 잠을 설칠 일도 없다."

카말라가 도시에 둔 집은 진작 알아 두었으므로, 싯다르타는 이튿날 그리로 찾아갔다.

"일이 잘 풀렸소." 카말라가 그를 맞으며 소리쳤다. "이 도시에서 제일가는 부자 상인인 카마스와의미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소. 그대가 마음에 들면 그대를 데려다 쓸 거요. 영리하게 구시오, 별에 그은 사문 양반. 다른 사람들을 시켜 그대 이야기를 그 사람 귀에 넣어 두었소. 그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니 상냥하게 대하시오. 하지만 너무 겸손하게 굴지는 마시오! 나는 그대가 그 사람의 하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소. 그대는 그 사람과 대등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나는 그대가 마음에 차지 않을 거요. 카마스와의미는 이제 늙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소. 그 사람 마음에 들면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길 거요."

싯다르타는 고맙다고 하며 웃었고, 카말라는 그가 어제와 오늘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빵과 과일을 내오게 하여 그를 대접했다.

"그대는 운이 좋았소." 헤어질 때 카말라가 말했다. "문이 하나 또 하나 그대 앞에 열리는구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무슨 마법이라도 지냈소?"

싯다르타가 말했다. "어제 나는 그대에게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굶을 줄 안다고 말했는데, 그대는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겼소. 하지만 쓸모가 많소, 카말라, 두고 보시오. 숲속의 어리석은 사문들이 그대들은 할 줄 모르는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또 할 줄 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요. 그저께만 해도 나는 머리가 덩수룩한 거지였고, 어제는 벌써 카말라와 입을 맞추었으며, 머지않아 상인이 되어 돈도 생기고 그대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도 생길 거요."

"그건 그렇소." 카말라도 수긍했다.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되었겠소? 카말라가 돕지 않았다면 그대는 무엇이 되었겠소?"

"다정한 카말라." 싯다르타가 몸을 꼳꼳이 세우며 말했다. "그대의 숲으로 그대를 찾아갔을 때,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소.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 여인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내 뜻이었소. 그 뜻을 세운 순간부터 나는 그 뜻을 이루리라는 것도 알았소. 그대가 나를 도우리라는 것도 알았소, 숲 어귀에서 그대가 처음 나를 바라보았을 때 벌써 알았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소?"

"그대는 원했소. 보시오, 카말라. 물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가장 빠른 길로 서둘러 물 밑바닥까지 가라앉소. 싯다르타가 목표를, 뜻을 품으면 그와 같소. 싯다르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생각하고, 굶을 뿐이지만, 돌이 물속을 꿰뚫고 내려가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일을 꿰뚫고 지나가요. 끌려가고, 떨어지는 대로 몸을 맡기오. 목표를 거스를 만한 것은 무엇 하나 영혼 안에 들이지 않으니, 목표가 그를 체계로 끌어당기오. 이것이 싯다르타가 사문들 곁에서 배운 것이오. 어리석은 이들이 마법이라 부르며 마귀들이 부리는

조화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오. 마귀가 부리는 조화란 없소, 마귀란 없소. 누구나 마법을 부릴 수 있고, 누구나 제 목표에 이를 수 있소.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굶을 줄 안다면."

카말라는 귀 기울여 들었다. 카말라는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눈빛을 사랑했다.

"그대 말대로일지도 모르오, 친구." 카말라가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싯다르타가 잘생긴 남자여서, 그 눈빛이 여자들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행운이 그를 마중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오."

싯다르타는 입맞춤으로 작별을 고했다. "그렇게 되기를, 나의 스승이여. 언제나 내 눈빛이 그대 마음에 들기를, 언제나 그대에게서 행운이 나를 마중 나오기를!"

1.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라는 뜻.

어린이 같은 사람들 곁에서

싯다르타는 상인 카마스와의미를 찾아갔고, 안내를 받아 부유한 저택으로 들어섰으며, 하인들이 값진 양탄자 사이로 이끌어 들인 방에서 집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와의미가 들어섰다. 날렵하고 유연한 사내로, 머리는 부쩍 희끗해져 가고, 눈은 몹시 영리하고 조심스럽고, 입매에는 욕심이 서려 있었다. 주인과 손님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듣자 하니," 상인이 말을 꺼냈다. "그대는 브라만이고 학자라는데, 상인 밑에서 일할 자리를 찾는다더구려. 그래, 곤궁에라도 빠진 거요, 브라만이어? 남의 밑에서 일할 자리를 다 찾다니."

"아니오," 싯다르타가 말했다. "나는 곤궁에 빠지지 않았고, 곤궁했던 적도 없소. 알아 두시오, 나는 사문들에게서 오는 길ियो. 그들 곁에서 오랫동안 살았소."

"사문들에게서 왔다면서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소? 사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소?"

"가진 것이 없기는 하오,"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대 말이 그런 뜻이라면. 분명 나는 가진 것이 없소.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그리된 것이니 곤궁한 것은 아니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갈 셈이오?"

"그건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소, 주인장. 나는 세 해 넘게 가진 것 없이 지냈지만,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렇다면 남이 가진 것으로 살아온 셈이구려."

"아마 그럴 거요. 상인 역시 남의 재물로 먹고사니 말ियो."

"말 한번 잘했소. 하지만 상인은 남의 것을 거저 가져가지는 않소. 그 대가로 제 물건을 내어 주오."

"과연 그런 것 같소. 저마다 받고, 저마다 주오. 삶이란 그런 것이오."

"하지만 이것 좀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없다면 그대는 무엇을 주겠다는 거요?"

"저마다 가진 것을 주오. 무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물건을 주고, 스승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주오."

"좋소. 그러면 그대가 줄 것은 무엇ियो? 그대가 배운 것, 그대가 할 줄 아는 것은 무엇ियो?"

"나는 생각할 줄 아오. 기다릴 줄 아오. 굶을 줄 아오."

"그것뿐ियो?"

"아마 그것뿐일 거요!"

"그래, 그게 무슨 쓸모가 있소? 이를테면 굶는 것 말ियो. 그건 어디에 좋소?"

"아주 좋소, 주인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영리한 일이 굶는 것이오. 이를테면 싯다르타가 굶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 당장 그대 밑에서든 어디서든 아무 일이나 떠맡아야 했을 거요. 배고픔이 그렇게 몰아붙였을 테니 말ियो. 하지만 싯다르타는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고, 조바심을 모르고, 곤궁을 모르며, 배고픔에 오래도록 에워싸여도 끄떡없이 그걸 두고 웃을 수도 있소. 주인장, 굶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좋소."

"옳은 말ियो, 사문이여. 잠깐 기다리시오."

카마스와미는 밖으로 나갔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돌아와 손님에게 건네며 물었다. "이걸 읽을 줄 아오?"

싯다르타는 매매 계약서가 쓰인 그 두루마리를 살펴보고는 그 내용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훌륭하오." 카마스와미가 말했다. "이 종이에 무엇이든 좀 써 주겠소?"

카마스와미가 종이 한 장과 철필을 건네자, 싯다르타는 무언가를 써서 종이를 돌려주었다.

카마스와미가 읽었다. "쓰는 것은 좋고, 생각하는 것은 더 좋다. 영리함은 좋고, 참을성은 더 좋다."

"글을 참으로 빼어나게 쓰는구려." 상인이 칭찬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을 거요. 오늘은 부디 내 손님이 되어 이 집에 머무르시오."

싯다르타는 고맙다고 하며 청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상인의 집에서 지냈다. 옷이 들어왔고 신도 들어왔으며, 하인 하나가 날마다 목욕물을 마련해 주었다. 하루 두 번 푸짐한 식사가 차려졌지만 싯다르타는 하루에 한 번만 먹었고, 고기도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자기 장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물건과 창고를 보여 주었고, 셈해 놓은 장부를 보여 주었다. 싯다르타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많이 듣고 적게 말했다. 그리고 카말라의 말을 마음에 새겨 한 번도 상인의 아랫사람 노릇을 하지 않았고, 상인이 자기를 대등한 사람으로, 아니 대등한 사람 이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카마스와미는 노심초사하며, 자주 열정을 쏟아 장사를 꾸렸지만, 싯다르타는 이 모든 것을 한낱 놀이처럼, 규칙은 빈틈없이 익히려 애쓰되 그 알맹이는 가슴에 조금도 와닿지 않는 놀이처럼 바라보았다.

카마스와미의 집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싯다르타는 벌써 집주인의 장사에 한몫 끼었다. 그러나 날마다 카말라가 정해 준 시각이면 고운 옷을 입고 고운 신을 신고 아름다운 카말라를 찾아갔고, 머지않아 선물도 들고 갔다. 카말라의 붉고 영리한 입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카말라의 부드럽고 유연한 손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사랑에서는 아직 소년이어서 바닥 모를 구렁에 뛰어들듯 눈먼 채 물릴 줄 모르고 쾌락 속으로 몸을 던지려 하던 싯다르타에게, 카말라는 그 가르침을 밑바닥부터 가르쳤다. 쾌락을 주지 않고서는 쾌락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 쓰다듬음 하나하나, 닿음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 몸의 가장 작은 곳 하나하나가 저마다 비밀을 품고 있으며 그 비밀을 깨우는 일이 그것을 아는 이에게 행복을 안겨 준다는 가르침을. 카말라는 가르쳤다.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의 잔치를 치른 뒤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하지 않고서는, 이긴 만큼 지지 않고서는 헤어져서는 안 되니, 그래야 둘 가운데 누구에게도 물림과 황량함이, 상대를 함부로 이용했다거나 함부로 이용당했다는 고약한 느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아름답고 영리한 이 기예의 달인 곁에서 싯다르타는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고, 카말라의 제자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고, 벗이 되었다. 지금 싯다르타의 삶이 지닌 값어치와 뜻은 여기, 카말라 곁에 있었지, 카마스와미의 장사에 있지 않았다.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서를 쓰는 일을 싯다르타에게 맡겼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싯다르타와 의논하는 버릇이 들었다. 상인은 곧 알아보았다. 싯다르타가 쌀과 양모에 대해서도, 배로 짐을 나르는 일과 장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손대는 일마다 운이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침착함과 평정에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낮은 사람의 속으로 파고들 줄 아는 재주에서 싯다르타가 자기를, 상인인 자기를 앞선다는 것을. "이 브라만은," 상인이 한 친구에게 말했다.

"제대로 된 상인이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상인이 되지 못할 거요. 저 사람의 영혼이 열정을 품고 장사에 가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소.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성공이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소. 타고난 좋은 별이든, 마법이든, 사문들 곁에서 배운 무엇이든 말이오. 늘 장사를 그저 가지고 노는 것만 같고, 장사가 저 사람 속으로 온전히 파고드는 법이 없고, 저 사람을 휘어잡는 법이 없고, 저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법이 없고, 손해를 보고 속을 끓이는 법이 없소."

그 친구가 상인에게 권했다. "그 사람이 그대를 위해 벌이는 거래에서 나는 이익의 삼분의 일을 그 사람에게 주시오. 대신 손해가 나면 손해도 같은 몫만큼 지게 하시오. 그러면 더 열심을 낼 거요."

카마스와미는 그 충고를 따랐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거기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익이 돌아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손해가 돌아오면 웃으며 말했다. "이런, 보시오, 이번 일은 틀어졌구려!"

정말이지 싯다르타에게 장사는 아무래도 좋은 일처럼 보였다. 한번은 큰 쌀 수확을 사들이려고 어느 마을로 길을 떠났다. 막상 가 보니 쌀은 벌써 다른 상인에게 팔리고 없었다. 그런데도 싯다르타는 그 마을에 여러 날 머물며 농부들을 대접하고, 그 집 아이들에게 구리 동전을 나누어 주고, 어느 혼례 잔치에 함께 어울린 뒤, 몹시 흡족해하며 돌아왔다. 카마스와미는 곧장 발길을 돌리지 않고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며 싯다르타를 나무랐다. 싯다르타가 대답했다. "나무라는 건 그만두시오, 친구! 나무라서 무엇을 이룬 적은 여태 한 번도 없소.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는 내게 지우시오. 나는 이번 길이 아주 흡족하오. 온갖 사람을 알게 되었고, 브라만 한 사람이 내 벗이 되었고, 아이들이 내 무릎에 올라타 말을 탔고, 농부들이 제 밭을 보여 주었고, 아무도 나를 장사꾼으로 여기지 않았소."

"그거 다 참 보기 좋은 이야기요." 카마스와의가 못마땅해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내 보기에 그대는 엄연히 장사꾼이오! 아니면 그저 재미 삼아 다녀왔단 말이오?"

"물론이오," 싯다르타가 웃었다. "물론 재미 삼아 다녀왔소. 아니면 무엇 때문이겠소? 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고장을 알게 되었으며, 다정함과 믿음을 누렸고, 우정을 얻었소. 보시오, 친구. 내가 카마스와의였다면 사들이려던 일이 틀어진 것을 보자마자 부아가 치밀어 부랴부랴 되돌아왔을 테고, 그랬다면 시간과 돈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되었을 거요. 하지만 나는 좋은 날들을 보냈고, 배웠고, 기쁨을 누렸으며,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다가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소.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게 되면, 다음 수확을 사러 가든 무슨 일로 가든, 다정한 사람들이 나를 다정하고 밝게 맞아 줄 테고, 나는 그때 서두르지도 언짢아하지도 않았던 나 자신을 칭찬하게 될 거요. 그러니 이쯤 해 두시오, 친구. 나무라다가 괜히 그대 속만 상하게 하지 마시오! 이 싯다르타가 내게 손해를 끼치는구나, 하고 그대가 알게 되는 날이 오거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싯다르타는 제 갈 길을 갈 거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흡족하게 지냅시다."

싯다르타가 자기, 곧 카마스와의의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던 상인의 시도도 헛일이었다. 싯다르타는 제 밥을 먹었다. 아니, 두 사람 다 남의 밥을, 모든 사람의 밥을 먹었다. 싯다르타는 카마스와의의 근심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카마스와의에게는 근심이 많았다. 벌여 놓은 거래가 틀어질 듯하거나, 실어 보낸 물건이 사라진 듯하거나, 빚진 사람이 갚지 못할 듯할 때에도, 근심이나 노여움의 말을 쏟아 내고 이마에 주름을 짓고 잠을 설치는 것이 쓸모 있는 일이라고 카마스와의는 제 동업자를 한 번도 설득하지 못했다. 언젠가 카마스와의가, 싯다르타가 아는 것은 모두 자기한테서 배운 것이라며

따지자, 싯다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농담으로 나를 놀리려 들지 마시오! 내가 그대에게서 배운 것은 물고기 한 바구니가 얼마인지, 빌려준 돈에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요. 그게 그대의 학문이요. 생각하는 법은 그대에게서 배우지 않았소, 귀하신 카마스와미. 차라리 그대가 내게서 그걸 배우려 애써 보시오."

참으로 싯다르타의 영혼은 장사에 있지 않았다. 장사는 카말라에게 쓸 돈을 벌어서 주기에 좋았고,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서 주었다. 그 밖에 싯다르타의 관심과 호기심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그 장사며 손일이며 근심이며 흥겨운 놀이며 어리석음이 예전에는 달만큼이나 낮설고 멀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가 있었다.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려 살고, 누구에게서나 쉽게 배웠지만, 그런 만큼 자기를 그들과 갈라놓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또한 또렷이 알았으니, 그 갈라놓는 것은 싯다르타의 사문다움이었다. 싯다르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또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런 삶을 사랑하는 동시에 업신여겼다.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보기에 그런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전혀 아닌 것들, 곧 돈과 작은 쾌락과 작은 명예 때문에 괴로워하며 머리가 세어 가는 것을 보았으며, 서로 꾸짖고 헐뜯는 것을 보았고, 사문이라면 미소 짓고 말 아픔에 울부짖고, 사문이라면 느끼지도 않을 궁핍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라면 무엇에나 싯다르타는 마음을 열었다. 아마포를 사라고 내미는 상인도 반가웠고, 돈을 꾸러 온 빚진 사람도 반가웠고, 한 시간이나 제 가난의 내력을 늘어놓는 거지도 반가웠는데, 그 거지는 여느 사문의 절반만큼도 가난하지 않았다. 부유한 외국 상인도 자기 수염을 깎아 주는 하인이나, 바나나를 살 때 푼돈을 속여 먹어도 내버려 두는 길거리 장수와 다름없이 대했다. 카마스와의

근심을 하소연하거나 무슨 거래를 두고 나무라려고 찾아오면, 싯다르타는 호기심을 품고 밝은 얼굴로 귀를 기울였고, 카마스와의 신기하게 여기며 이해해 보려 애썼고, 꼭 필요해 보이는 만큼만 조금 옳다고 해 주고는, 돌아서서 자기를 찾는 다음 사람에게로 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싯다르타를 찾아왔으니, 많은 사람이 거래하러, 많은 사람이 속이러, 많은 사람이 속을 떠보러, 많은 사람이 동정을 구하러, 많은 사람이 조언을 들으러 왔다. 싯다르타는 조언을 해 주었고, 가엾게 여겼고, 베풀었고, 조금은 속아 주었으며, 이 놀이 전체가, 모든 사람이 이 놀이를 벌이는 그 열정이, 예전에 신들과 브라흐만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싯다르타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따금 싯다르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꺼져 가는 나직한 목소리를 느꼈다. 목소리는 나직이 일깨우고 나직이 하소연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럴 때면 한 시간쯤, 자기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한날 놀이에 지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명랑하기도 하고 이따금 기쁨도 느끼지만 참된 삶은 자기를 비껴 흘러갈 뿐 자기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이 또렷이 느껴졌다. 공놀이하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놀듯 싯다르타는 장사를 가지고 놀았고, 주위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으며, 그들을 구경하며 재미를 보았지만, 가슴은, 제 존재의 샘은 거기 함께 있지 않았다. 샘은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흐르는 듯했고, 보이지 않게 흐르고 또 흘렀으며, 이제는 그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몇 번인가 싯다르타는 그런 생각에 소스라치며, 자기에게도 이것이 허락되기를 바랐다. 낮 동안 벌이는 어린아이 같은 이 모든 일에 열정과 가슴을 다해 함께하기를, 구경꾼으로 곁에 서 있기만 하지 말고 참으로 살고, 참으로 행하고, 참으로 누리며 살기를. 그러나 싯다르타는 언제나 다시 카말라에게로 갔고, 사랑의 기예를 익혔고, 그 어디에서보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쾌락의 의례를 행했으며, 카말라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말라에게서 배웠고, 카말라에게 조언을 주었고, 조언을 받았다. 카말라는 예전의 고빈다보다 싯다르타를 더 잘 이해했다. 카말라는 고빈다보다 싯다르타와 더 닮은 사람이었다.

한번은 싯다르타가 카말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같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라. 당신은 카말라야, 다른 무엇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 안에는 고요가, 안식처가 있어서, 당신은 언제나 그리로 들어가 제 집에 온 듯 머물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듯이. 그런 걸 지닌 사람은 드물어. 그런데도 누구나 지닐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다 영리한 건 아니잖아." 카말라가 말했다.

"아니,"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래서가 아니야. 카마스와미도 나만큼 영리하지만 제 안에 안식처가 없어. 생각하는 힘으로는 어린아이인데도 안식처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카말라, 사람들은 대개 떨어지는 나뭇잎 같아. 바람에 날려 허공에서 맴돌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땅으로 떨어지지. 하지만 몇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별과 같아. 정해진 궤도를 가고, 어떤 바람도 그들에게 닿지 못하고, 제 안에 제 법칙과 제 궤도를 지니고 있어. 내가 알았던 수많은 학자와 사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이런 부류였어. 완전한 사람이었지.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잊지 못해. 바로 그 고타마야. 세존,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제자 천 명이 날마다 고타마의 가르침을 듣고 시시각각 고타마의 계율을 따르지만, 그들은 모두 떨어지는 나뭇잎이야. 가르침과 법칙을 제 안에 지니고 있지 않아."

카말라가 미소 지으며 싯다르타를 바라보았다. "또 그 사람 이야기네." 카말라가 말했다. "또 사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싯다르타는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은 사랑의 놀이를 했다. 카말라가 아는 서른 가지인가 마흔 가지 놀이 가운데 하나였다. 카말라의 몸은 재규어의 몸처럼, 사냥꾼의 활처럼 잘 휘었다. 카말라에게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비밀에 밝았다. 카말라는 오래도록 싯다르타와 놀았다. 꺾어 들이고, 밀어내고, 억누르고, 휘감으며 그의 능숙함을 기뻐했고, 마침내 싯다르타는 저서 기진한 채 카말라 곁에 누워 쉬었다.

기녀는 싯다르타 위로 몸을 숙여 그의 얼굴을, 지쳐 버린 두 눈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연인이야." 카말라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누구보다 힘세고, 누구보다 유연하고, 누구보다 기꺼이 응해. 내 기예를 잘도 배웠어, 싯다르타. 언젠가 내가 더 나이 들면 당신 아이를 갖고 싶어. 그런데도, 내 사랑, 당신은 여전히 사문이야.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도 모르지." 싯다르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아. 당신도 사랑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랑을 기예로 삼을 수 있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사랑할 줄 모르나 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아. 그게 그들의 비밀이야."

윤희

오랫동안 싯다르타는 세상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에 속하지는 않았다. 뜨거운 사문 시절에 죽여 없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났고, 싯다르타는 부를 맛보았고, 관능을 맛보았고, 권세를 맛보았다. 그런데도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으로는 여전히 사문이었고, 영리한 카말라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았다. 여전히 싯다르타의 삶을 이끄는 것은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굶을 줄 아는 그 기예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싯다르타에게 낯설었다. 싯다르타가 그들에게 낯설었듯이.

세월이 흘러갔으나, 넉넉한 살림에 폭 감싸인 싯다르타는 세월이 스러져 가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싯다르타는 부자가 되었고, 진작부터 제 집과 제 하인들을 거느렸으며, 도시 밖 강가에 정원도 하나 두었다. 사람들은 싯다르타를 좋아했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그를 찾아왔지만, 카말라 말고는 아무도 그와 가깝지 않았다.

한때 젊음의 절정에서, 고타마의 설법을 들은 뒤, 고빈다와 헤어진 뒤의 나날에 겪었던 그 드높고 환한 깨어 있음, 그 팽팽한 기대,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선 그 당당함, 제 가슴속에서 울리는 신성한 목소리를 들으려던 그 유연한 채비는 차츰 기억이 되었고,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 한때 가까이 있던 거룩한 샘, 한때 싯다르타 안에서 소리 내어 흐르던 그 샘은 이제 멀리서 나직이 물소리를 냈다. 사문들에게서 배우고, 고타마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인 브라만에게서 배운 많은 것이,

곧 절제하는 삶과 생각하는 기쁨과 명상의 시간이, 자아에 대한, 몸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자아에 대한 은밀한 앎이 오랫동안 싯다르타 안에 남아 있기는 했다. 그 가운데 더러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라앉아 먼지를 뒤집어썼다. 한번 돌려놓은 도공의 물레가 오래도록 돌다가 천천히 지쳐 흔들림이 잦아들듯이, 싯다르타의 영혼 속에서도 고행의 바퀴, 생각의 바퀴, 분별의 바퀴가 오래도록 돌았고, 아직도 돌고 있었으나, 이제는 느리게, 머뭇거리며 돌았고, 멈춰 서기 직전이었다. 천천히, 죽어 가는 나무 그루터기에 물기가 스며들어 천천히 그 속을 채우고 썩게 하듯이, 세상과 게으름이 싯다르타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천천히 그 영혼을 채우며,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잠재웠다. 그 대신 감각들은 살아났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겪었다.

싯다르타는 장사하는 법을, 사람들 위에 권세를 부리는 법을, 여자와 즐기는 법을 배웠고, 고운 옷을 입는 법을,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법을, 향내 나는 물로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생선도, 고기와 새고기도, 향신료와 단것도 먹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나른하게 하고 잊게 하는 술을 마시는 법을 배웠다. 주사위를 굴리고 장기를 두는 법을, 무희들을 구경하는 법을, 가마를 타고 다니는 법을, 폭신한 잠자리에서 자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여전히 싯다르타는 자기가 남들과 다르고 남들보다 낫다고 느꼈고, 언제나 조금은 비웃으며, 조금은 비웃음 섞인 업신여김을 품고, 사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 품는 바로 그 업신여김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카마스와미가 몸이 시원찮을 때도, 짜증을 낼 때도,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도, 장사꾼의 근심에 시달릴 때도, 싯다르타는 늘 그것을 비웃으며 바라보았다. 다만 천천히, 눈치채지 못할 만큼, 추수 철과 우기가 지나가는 사이에 그 비웃음은 조금씩 지쳐 갔고, 남보다 낫다는

느낌은 조금씩 잠잠해졌다. 다만 천천히, 불어 가는 재산 한가운데서, 싯다르타 자신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됃됨이를, 그들의 어린아이다움과 겁 많음을 얼마간 닮아 갔다. 그러면서도 싯다르타는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을 닮아 갈수록 더 부러워했다. 자기에게는 없고 그들에게는 있는 단 하나를, 그들이 제 삶에 실을 줄 아는 그 무게를, 그들의 기쁨과 두려움에 서린 뜨거운 열정을, 늘 사랑에 빠져 사는 데서 오는 그 조마조마하면서도 달콤한 행복을 부러워했다. 제 자신에게, 여자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명예나 돈에, 계획이나 희망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그들에게서 이것을, 하필 이것을, 이 어린아이의 기쁨과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을 배우지 못했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하필이면 스스로 업신여기던 언짢은 것들이었다. 흥겨운 모임이 있는 이튿날 아침이면 늦도록 누워 멍하고 나른하게 지내는 일이 갈수록 잦아졌다. 카마스와의 거리가 근심거리를 늘어놓으며 지루하게 하면 짜증을 내고 조바심을 치는 일이 생겼다. 주사위 놀이에서 지면 지나치게 크게 웃는 일이 생겼다. 싯다르타의 얼굴은 아직도 남들보다 영리하고 정신이 깃들어 보였지만, 좀처럼 웃지 않았고, 부자들의 얼굴에서 그토록 흔히 보이는 그런 표정을, 불만과 병약함과 언짢음과 게으름과 사랑 없음의 그 표정을 하나씩 하나씩 띠어 갔다. 천천히, 부자들이 앓는 영혼의 병이 싯다르타를 사로잡았다.

피로가 너울처럼, 옅은 안개처럼 싯다르타 위로 내려앉았다. 천천히, 날마다 조금씩 더 질게, 달마다 조금씩 더 흐리게, 해마다 조금씩 더 무겁게. 새 옷이 세월이 가면서 낡고, 세월이 가면서 고운 빛깔을 잃고, 얼룩이 지고, 구김이 가고, 옷단이 닳고, 여기저기 해지고 옷이 드러난 데가 보이기 시작하듯이, 고빈다와 헤어진 뒤 시작한 싯다르타의 새 삶도 그렇게 낡아 버렸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빛깔과 윤기를

있었으며, 그렇게 그 위에 구김과 얼룩이 쌓였고, 밑바닥에 숨어서, 여기저기서 벌써 흉하게 고개를 내밀며, 환멸과 역겨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싯다르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한때 제 안에서 깨어나 빛나던 시절마다 번번이 자기를 이끌어 주던 그 환하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말이 없어졌다는 것만을 알아차렸다.

세상이 싯다르타를 사로잡았다. 쾌락이, 욕심이, 게으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어리석은 악덕이라 여겨 늘 누구보다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그 악덕, 탐욕까지. 재산도, 소유와 부도 끝내 싯다르타를 사로잡았고, 이제는 놀이나 노리개가 아니라 사슬이 되고 짐이 되었다. 기이하고도 교활한 길을 거쳐, 곧 주사위 노름을 거쳐 싯다르타는 이 마지막이자 가장 비루한 얽매임에 빠져들었다. 가슴속으로 사문이기를 그만둔 그때부터, 싯다르타는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풍습이려니 하고 미소 지으며 느긋하게 어울려 주던, 돈과 보물을 건 노름을 갈수록 더해 가는 광기와 열정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싯다르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노름꾼이어서, 판돈을 어찌나 높고 뻔뻔하게 거는지 감히 맞붙으려는 사람이 드물었다. 싯다르타는 가슴의 절박함 때문에 노름을 했고, 그 하찮은 돈을 잃고 흠뻑리는 일은 성난 기쁨을 안겨 주었으며, 장사꾼들의 우상인 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이보다 더 또렷하게, 더 조롱하듯 드러낼 길은 달리 없었다. 그렇게 싯다르타는 제 자신을 미워하고 제 자신을 비웃으며 판돈을 크게, 사정없이 걸었고, 수천 금을 쓸어 담았다가 수천 금을 내던졌고, 돈을 잃고, 패물을 잃고, 시골 별장을 잃고, 다시 따고, 다시 잃었다. 그 두려움, 주사위를 굴리는 동안, 큰 판돈을 두고 마음 줄이는 동안 느끼는 그 무섭고 숨 막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싯다르타는 사랑했고, 늘 새로 일으키고, 늘 더 키우고, 늘 더 높이까지 간질여 올리려 했다. 배부르고 미지근하고

밍밍한 삶 한복판에서, 오직 이 느낌 속에서만 아직 행복 같은 것을, 도취 같은 것을, 드높아진 삶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크게 잃을 때마다 싯다르타는 새로 재물을 모을 궁리를 했고, 더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고, 빚진 사람들을 더 모질게 몰아붙여 빚을 받아 냈으니, 계속 노름을 하고 싶었고, 계속 탕진하고 싶었고, 계속 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싯다르타는 잃고도 태연하던 마음을 잃었고,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던 참을성을 잃었고, 거지들에게 베풀던 너그러움을 잃었고, 청하는 이들에게 돈을 선뜻 내주거나 꾸어 주던 즐거움을 잃었다. 주사위 한 번에 만 금을 잃고도 웃던 그가 장사에서는 더 깐깐하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밤이면 이따금 돈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 흥한 홀림에서 깨어날 때마다, 침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늙고 더 흥해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역겨움이 덮쳐 올 때마다, 싯다르타는 더 멀리 달아났으니, 새 노름 속으로 달아났고, 관능과 술이 주는 마비 속으로 달아났으며, 거기서 다시 굶어모으고 벌어들이려는 충동 속으로 되돌아왔다. 이 무의미한 순환 속에서 그는 지치도록 달렸고, 늙도록 달렸고, 병들도록 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꿈 하나가 싯다르타를 일깨웠다. 그날 싯다르타는 저녁 시간을 카말라 곁에서, 카말라의 아름다운 즐거움의 정원에서 보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카말라는 생각에 잠긴 말을, 그 뒤에 슬픔과 피로가 숨어 있는 말을 했다. 카말라는 고타마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했고, 그 눈이 얼마나 맑았는지, 그 입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웠는지, 그 미소가 얼마나 자애로웠는지,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아무리 들어도 성에 차지 않아 했다. 싯다르타는 오래도록 거룩한 붓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고, 카말라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언젠가, 어쩌면 머지않아, 나도 이

붓다를 따를 거야. 내 즐거움의 정원을 붓다께 바치고,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할 거야." 그러더니 카말라는 싯다르타를 달아오르게 했고, 사랑의
 놀이 속에서 아프도록 뜨겁게, 깨물고 눈물 흘리며 싯다르타를 제게
 붙들어 매었다. 이 헛되고 덧없는 쾌락에서 마지막 달콤한 한 방울을 한
 번 더 짜내려는 것만 같았다. 관능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싯다르타에게 이토록 기이하게 또렷해진 적은 없었다. 그 뒤 싯다르타는
 카말라 곁에 누웠고, 카말라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으며, 카말라의 눈
 밑과 입가에서 여태 한 번도 이토록 또렷이 본 적 없는 불안한 글씨를
 읽었다. 가느다란 선들로, 희미한 고랑들로 쓰인 글씨, 가을과 늙음을
 떠올리게 하는 글씨였다. 이제 겨우 마흔 줄에 든 싯다르타 자신도 검은
 머리 사이로 센 머리카락을 벌써 여기저기서 알아본 터였다. 카말라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피로가, 즐거운 목표도 없는 먼 길을 걸어온 피로가,
 피로와 막 시작된 시늉이, 그리고 숨겨 둔,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은,
 어쩌면 아직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불안이, 곧 늙음에 대한 두려움,
 가을에 대한 두려움, 죽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쓰여 있었다.
 영혼 가득 불쾌함을, 영혼 가득 숨겨 둔 불안을 안은 채 싯다르타는
 한숨을 쉬며 카말라와 작별했다.

그리고 나서 싯다르타는 제 집에서 무희들과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같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한 수
 위인 사람 행세를 했고, 술을 많이 마셨고, 자정이 한참 지나서야
 잠자리를 찾았다. 지쳤으면서도 들떠 있었고, 울음과 절망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다. 오래도록 헛되이 잠을 청했다. 가슴에는 더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비참함이 가득했고, 역겨움이 가득했으며, 그 역겨움이
 온몸에 속속들이 배어든 것 같았다. 미지근하고 메스꺼운 술맛이,
 너무나 달기만 하고 공허한 음악이, 무희들의 너무나 부드러운 미소가,
 그들의 머리카락과 젖가슴에서 풍기는 너무나 달콤한 향내가

배어들듯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싯다르타는 제 자신이 역겨웠다. 향내나는 제 머리카락이,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가, 늘어지고 지쳐 생기 잃은 제 살갗이 역겨웠다. 너무 많이 먹거나 마신 사람이 고통 속에 도로 게워내고도 속이 가벼워져 기뻐하듯이, 잠 못 드는 이 사람은 엄청난 역겨움을 한꺼번에 쏟아 내며 이 향락들을, 이 버릇들을, 이 무의미한 삶 전체를, 그리고 제 자신을 떨쳐 버리기를 바랐다. 아침 햇빛이 비쳐 들고 도시에 있는 제 집 앞 거리에서 첫 분주함이 깨어날 무렵에야 싯다르타는 겨우 선잠이 들었고, 잠깐 동안 반쯤 마비된 듯한 상태를, 잠의 기미 같은 것을 얻었다. 그 잠깐 사이에 꿈을 꾸었다.

카말라는 작고 귀한 노래하는 새 한 마리를 황금 새장에 넣어 길렀다. 싯다르타는 이 새의 꿈을 꾸었다. 꿈에서, 늘 아침이면 노래하던 이 새가 잠잠해져 있었고, 그것이 이상해 새장 앞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새는 죽어서 바닥에 뻗뻗하게 누워 있었다. 싯다르타는 새를 꺼내어 잠시 손바닥 위에서 무게를 가늠해 보고는 밖으로, 골목으로 내던졌는데, 바로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고 가슴이 아팠다. 이 죽은 새와 함께 모든 값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제게서 내던져 버린 것만 같았다.

이 꿈에서 소스라쳐 깨어난 싯다르타는 깊은 서글픔에 휩싸였다. 값없이, 값없고 뜻 없이 제 삶을 흘려보냈구나 싶었다. 살아 있는 것 하나, 조금이라도 값지거나 간직할 만한 것 하나 손에 남아 있지 않았다. 싯다르타는 홀로, 텅 빈 채 서 있었다. 난파를 겪고 기슭에 떠밀려 온 사람처럼.

어두운 얼굴로 싯다르타는 자기가 가진 즐거움의 정원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망고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가슴속에 죽음을, 가슴팍에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느끼며 앉아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 가고, 제 안에서 시들어 가고, 제 안에서 끝나 가는 것을 느꼈다. 차츰 생각을

가다듬은 싯다르타는 기억할 수 있는 맨 처음 날들부터 제 삶의 온 길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걸어 보았다. 대체 언제 행복을 겪었던가, 참된 환희를 느꼈던가? 오, 그래,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소년 시절, 브라만들에게서 칭찬을 얻었을 때, 거룩한 시구를 외는 일에서, 학자들과 벌이는 논쟁에서, 제사를 돕는 일에서 남달리 뛰어났을 때 그것을 맛보았다. 그때 가슴속에서 느꼈다. "네 앞에 길이 놓여 있다. 너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 신들이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청년 시절, 모든 사색의 목표가 점점 더 높이 달아나며 같은 것을 좇는 무리 속에서 자기를 끌어내어 위로 잡아채 올렸을 때, 브라흐만의 뜻을 붙잡으려 아픔 속에서 씨름했을 때, 얻어 낸 앎마다 새 목마름만 지켰을 때, 그때 다시 목마름 한가운데서, 아픔 한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느꼈다.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너는 부름을 받았다!" 고향을 떠나 사문의 삶을 택했을 때 이 목소리를 들었고, 사문들을 떠나 그 완성에 이른 이에게로 갔을 때, 그리고 완성에 이른 이마저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갔을 때 다시 들었다. 얼마나 오래 이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얼마나 오래 어떤 높이에도 이르지 못했던가, 얼마나 땃땃하고 황량하게 그의 길은 흘러왔던가, 여러 해, 긴 세월을, 높은 목표도 없이, 목마름도 없이, 드높아짐도 없이, 작은 쾌락들에 흡족해하면서도 끝내 채워지지 않은 채! 그 모든 세월 동안 싯다르타는 스스로도 모르는 채, 이 못사람들 같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그러기를 갈망해 왔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의 삶은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난했다. 그들의 목표는 자기 목표가 아니었고, 그들의 근심도 자기 근심이 아니었으니, 카마스وام이 같은 사람들의 이 온 세상은 싯다르타에게 그저 놀이였고, 구경하는 춤이었고, 한 편의 희극이었다. 오직 카말라만이 사랑스러웠고, 값졌다. 그러나 카말라는 아직도 그러했던가? 아직도 카말라가 필요했던가, 카말라에게 아직도 그가

필요했던가? 두 사람은 끝없는 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 놀이를 위해 살아야 했던가? 아니,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 놀이의 이름은 윤회¹였다. 어린아이들의 놀이, 한 번, 두 번, 열 번쯤은 어쩌면 즐겁게 놀 만한 놀이. 그러나 언제까지나, 거듭하고 또 거듭하랴?

그때 싯다르타는 놀이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더는 그 놀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고, 싯다르타는 느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을.

그날 온종일 싯다르타는 망고나무 아래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빈다를 생각하고, 고타마를 생각했다. 카마스وام이 같은 사람이 되려고 이들을 떠나야 했던가? 밤이 내렸을 때도 싯다르타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별들을 보았을 때 그는 생각했다. "여기 나는 내 망고나무 아래, 내 즐거움의 정원에 앉아 있구나." 싯다르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망고나무 한 그루를 가졌다는 것이, 정원 하나를 가졌다는 것이 대체 필요했던가, 옳았던가, 어리석은 놀이가 아니었던가?

그것과도 싯다르타는 끝을 냈고, 그것도 그의 안에서 죽었다. 싯다르타는 일어나 망고나무와 작별하고, 즐거움의 정원과 작별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므로 몹시 허기가 졌고, 도시에 있는 제 집을, 제 방과 잠자리를, 음식이 차려진 상을 떠올렸다. 싯다르타는 지친 미소를 짓고 몸을 한 번 부르르 털고는, 이것들과도 작별했다.

바로 그날 밤 그 시각에 싯다르타는 제 정원을 떠났고, 도시를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카마스وام이는 싯다르타가 도적 떼의 손에 걸려들었으리라 여기고 오랫동안 사람을 풀어 찾게 했다. 카말라는 찾게 하지 않았다. 싯다르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카말라는 놀라지 않았다. 늘 이날을 기다려 오지 않았던가? 싯다르타는 사문이 아니었던가, 고향 없는 사람, 순례자가 아니었던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카말라는 이것을 가장 절실히 느꼈고, 잃어버린 아픔

한가운데서도 기뻐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그를 그토록 깊이 제 가슴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이, 다시 한번 그토록 온전히 그에게 사로잡히고 속속들이 그로 채워졌다는 것이.

싯다르타가 사라졌다는 첫 소식을 받았을 때, 카말라는 귀한 노래하는 새 한 마리를 황금 새장에 가두어 기르던 창가로 갔다. 새장 문을 열고 새를 꺼내어 날려 보냈다. 오래도록 카말라는 그 뒤를,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더는 손님을 받지 않았고, 집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나 얼마 뒤, 카말라는 싯다르타와 마지막으로 함께 지낸 그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1. 산스크리트어 '삼사라'(흘러 떠돌)를 옮긴 말. 인도의 여러 종교와 불교에서, 못생명이 죽고 태어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일을 이른다.

강가에서

싯다르타는 도시에서 벌써 멀리 떨어진 숲속을 떠돌았고,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 해 동안 살아온 이 삶은 지나가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역겨움이 치밀도록 맛볼 대로 맛보고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었다는 것. 꿈에서 본 그 노래하는 새는 죽었다. 그의 가슴속 새는 죽었다. 싯다르타는 윤회 속에 깊이 얽혀 들었고, 역겨움과 죽음을 사방에서 제 안으로 빨아들었다. 해면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빨아들이듯이. 싫증으로 가득했고, 비참함으로 가득했고, 죽음으로 가득했으며, 세상에는 이제 그를 찢어낼 것도, 기쁘게 할 것도, 위로할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간절히 그는 바랐다. 더는 자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기를, 안식을 얻기를, 죽어 버리기를. 벼락이라도 떨어져 자기를 쳐 죽였으면! 호랑이라도 나타나 자기를 잡아먹었으면! 마비를, 망각과 잠을 가져다주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게 해 줄 술이, 독이 있었으면! 제 몸에 아직 뒤집어쓰지 않은 더러움이, 아직 저지르지 않은 죄와 어리석음이, 아직 제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영혼의 황량함이 하나라도 남아 있었던가? 그래도 아직 살아갈 수 있었던가? 또다시, 또다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허기를 느끼고, 다시 먹고, 다시 자고, 다시 여자 곁에 누울 수 있었던가? 이 순환은 그에게 이미 바닥나고 끝나 버리지 않았던가?

싯다르타는 숲속의 큰 강에, 언젠가 아직 젊은이였을 적 고타마의 도시에서 오던 길에 한 뱃사공이 그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강에 이르렀다. 이 강가에서 그는 발을 멈추었고, 머뭇거리며 기슭에 서 있었다. 피로와 허기로 몸은 약해져 있었고, 하기야 무엇 하러 더 걸어가랴, 대체 어디로, 무슨 목표를 향해? 아니, 목표는 이제 없었다. 이 난잡한 꿈을 통째로 제게서 떨쳐 버리고, 이 김빠진 술을 뱉어 버리고, 이 가련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끝장내고 싶은 깊은 괴로운 갈망, 그것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강기슭 위로 나무 한 그루가, 야자나무 한 그루가 굽은 채 드리워 있었고, 싯다르타는 그 줄기에 어깨를 기대고 한 팔로 줄기를 감싸 안은 채 발아래로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초록빛 물을 내려다보았다. 내려다보다가, 제 몸을 놓아 버리고 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싶은 소망으로 자기가 온통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다. 소름 끼치는 공허가 물속에서 마주 비쳐 올라왔고, 영혼 속의 무시무시한 공허가 거기에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끝에 이르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를 꺼 버리는 일뿐이었다. 잘못 빚어진 제 삶을 깨부수어, 비웃는 신들의 발치에 내던져 버리는 일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토록 갈망해 온 크나큰 구토였다. 죽음, 미워하던 형체를 깨부수는 일! 물고기들이나 뜯어 먹으라지, 이 개 같은 싯다르타를, 이 미치광이를, 이 상하고 썩어 문드러진 몸뚱이를, 이 늘어지고 흑사당한 영혼을! 물고기와 악어들이나 뜯어 먹으라지, 악귀들이나 갈가리 찢으라지!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물속을 노려보다가,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거기에 침을 뱉었다. 깊은 피로 속에서 싯다르타는 나무줄기에서 팔을 풀고, 곧장 아래로 떨어져 마침내 가라앉으려고 몸을 조금 돌렸다. 두 눈을 감은 채, 그는 죽음 쪽으로 가라앉아 갔다.

그때 영혼의 아득히 외진 구석에서, 지쳐 버린 삶의 지난날들로부터 한 소리가 불현듯 떨려 왔다. 그것은 한 낱말, 한 음절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그가 혼자 읊조린 그 음절은 모든 브라만 기도의 오래된 첫 말이자 끝말인, '완전한 것' 또는 '완성'을 뜻하는 거룩한 '옴'이었다. 그리고 '옴'이라는 소리가 싯다르타의 귀에 닿은 그 순간, 잠들어 있던 그의 정신이 갑자기 깨어나 제가 하려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보았다.

싯다르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니까 제 꼴이 이 지경이었구나. 죽음을 찾아 나설 수 있을 만큼, 이런 소망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소망이 제 안에서 그토록 커질 수 있을 만큼, 이토록 길을 잃었고, 이토록 헤매었고, 모든 앞에게서 버림받았구나. 제 몸을 꺼 버려 안식을 찾겠다는 소망이라니! 요즈음의 온갖 고통도, 온갖 허탈함도, 온갖 절망도 이루지 못한 일을 옴이 의식 속으로 파고든 이 순간이 이루어졌으니, 그는 비참함에 빠진 자기를, 길을 잃고 헤매는 자기를 알아보았다.

옴! 그는 혼자 읊조렸다. 옴! 그리고 브라흐만을 알았고, 생명이 부서지지 않음을 알았고, 잊고 있던 모든 신성한 것을 다시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한 줄기 번개였을 뿐이었다. 싯다르타는 피로에 겨워 야자나무 밑동에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옴을 웅얼거리며 나무뿌리에 머리를 누이고는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잠은 깊었고 꿈 한 자락 없었으니, 이런 잠을 모르고 지낸 지 오래였다. 여러 시간이 지나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십 년이 흘러간 것만 같았고, 물이 나직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누가 자기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자 머리 위로 나무들과 하늘이 보여 놀랐고, 그제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떠올렸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한참이 걸렸고, 지나간 일은

너울에 덮인 듯 한없이 멀고, 한없이 아득한 곳에 놓여 있고, 한없이 남의 일처럼 여겨졌다. 그가 아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었다. 자기가 지난 삶을(정신이 돌아온 첫 순간, 이 지난 삶은 까마득한 옛날 한때 받았던 몸처럼, 지금의 자아가 오래전에 거친 전생처럼 여겨졌다), 자기가 지난 삶을 떠나왔다는 것, 역겨움과 비참함에 가득 차서 목숨마저 내던지려 했다는 것, 그러나 어느 강가, 야자나무 아래에서 정신이 들었고, 거룩한 말 옴을 입술에 머금은 채 잠들었으며, 이제 깨어나 새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는 잠들면서 입에 올렸던 말, 옴을 나직이 혼자 읊조렸다. 그러자 그 길고 긴 잠이 통째로, 명상에 깊이 잠긴 채 옴을 길게 읊는 일, 옴을 생각하는 일, 옴 속으로, 이름 없는 것, 완성된 것 속으로 잠겨 들어가 온전히 스며드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만 같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잠이었던가! 어떤 잠도 그를 이토록 상쾌하게, 이토록 새롭게, 이토록 젊게 해 준 적은 없었다! 어쩌면 정말로 죽었던 것일까, 가라앉았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알았고, 제 손과 발을 알았고, 제가 누워 있는 곳을 알았고, 가슴속의 이 자아를, 이 싯다르타를, 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이 별난 사람을 알았다. 그런데도 이 싯다르타는 변모해 있었고, 새로워져 있었고, 이상하리만치 폭 자고 난 듯 개운했고, 이상하리만치 또렷이 깨어 있었으며, 기쁨과 호기심에 차 있었다.

싯다르타가 몸을 일으키자, 맞은편에 한 사람이, 낮선 사내 하나가, 누런 옷을 입고 머리를 민 승려 하나가 깊은 생각에 잠긴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싯다르타는 머리카락도 수염도 없는 그 사내를 바라보았고, 오래 바라보기도 전에 이 승려가 고빈다임을, 젊은 날의 벗 고빈다, 거룩한 붓다께 귀의한 고빈다임을 알아보았다. 고빈다 역시 늙어 있었다. 그래도 얼굴에는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어 열성을,

한결같음을, 찾아 헤매를, 겁 많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러다 고빈다가 그 시선을 느끼고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을 때, 싯다르타는 고빈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빈다는 그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분명 오랫동안 여기 앉아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나는 잠들어 있었소."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런데 그대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소?"

"잠들어 계셨소." 고빈다가 대답했다. "뱀이 자주 나오고 숲의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인 이런 곳에서 잠드는 건 좋지 않소. 나리, 나는 거룩한 고타마, 붓다, 석가모니의 제자요. 우리 무리 몇 사람과 이 길을 순례하던 중에, 잠자기에 위험한 곳에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았소. 그래서 깨워 드리려 했소, 나리. 그런데 잠이 아주 깊이 드신 것을 보고는 일행에게서 뒤처져 곁에 앉아 있었소. 그러다가, 보아하니, 잠을 지켜 드리려던 나 자신이 그만 잠들어 버린 모양이오.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려. 피로에 지고 말았소. 하지만 이제 깨어나셨으니, 형제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나를 보내 주시오."

"내 잠을 지켜 주어 고맙소, 사문이여." 싯다르타가 말했다. "세존의 제자들은 다정하기도 하구려. 이제 가도 좋소."

"가겠소, 나리. 나리께서 늘 평안하시기를."

"고맙소, 사문이여."

고빈다는 작별 인사의 몸짓을 해 보이고 말했다. "평안히 계시오."

"평안히 가시오, 고빈다." 싯다르타가 말했다.

승려가 걸음을 멈추었다.

"실례지만, 나리,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그러자 싯다르타가 미소 지었다.

"나는 너를 알아, 오, 고빈다. 네 아버지의 오두막에서부터, 그리고 브라만 학당에서부터, 그리고 제사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문들에게로 가던 길에서부터, 그리고 네가 제타바나 동산에서 세존께 귀의하던 그 시각부터."

"너 싯다르타로구나!" 고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야 알아보겠어. 어떻게 너를 대번에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젠 도무지 모르겠다. 반갑다, 싯다르타. 너를 다시 보니 기쁘기 그지없어."

"나도 너를 다시 보니 기뻐. 너는 내 잠을 지켜 준 파수꾼이었지. 그 일은 다시 한번 고마워, 파수꾼이 필요하지는 않았겠지만. 오, 친구야, 어디로 가는 길이야?"

"아무 데도 가지 않아. 우리 승려들은 우기가 아닐 때면 늘 길 위에 있어. 늘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계율대로 살고, 가르침을 전하고, 탁발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나지. 늘 그래. 그런데 너는, 싯다르타, 어디로 가는 길이야?"

싯다르타가 말했다.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야, 친구야. 나도 아무 데도 가지 않아. 그저 길 위에 있을 뿐이야. 나는 순례하는 중이야."

고빈다가 말했다. "순례하는 중이라고 하니, 네 말을 믿을게. 그래도 미안하지만, 오, 싯다르타, 너는 순례자처럼 보이지 않아. 너는 부자의 옷을 입었고, 지체 높은 사람의 신을 신었고, 향내 나는 물 냄새가 풍기는 네 머리카락은 순례자의 머리카락이 아니야. 사문의 머리카락이 아니야."

"그래, 친구야, 잘 보았어. 네 날카로운 눈은 무엇이든 다 보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내가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순례하는 중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 말 그대로야. 나는 순례하는 중이야."

"순례하는 중이라,"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옷을 입고 순례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런 신을 신고 순례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

머리를 하고 순례하는 사람도 드물어. 벌써 여러 해째 순례하고 있는 나도 그런 순례자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어."

"네 말을 믿어, 나의 고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너는 바로 그런 순례자를 만난 거야. 그런 신을 신고, 그런 옷을 입은 순례자를. 기억해 봐, 친구야. 덧없어, 형상의 세계는. 덧없어, 더없이 덧없어, 우리가 입은 옷도, 우리가 매만진 머리 모양도, 우리의 머리카락과 몸 그 자체도. 나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어. 그건 네가 제대로 보았어. 내가 이 옷을 입은 건 부자였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난봉꾼들처럼 머리를 한 건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은, 싯다르타, 지금 너는 무엇이야?"

"모르겠어. 너만큼이나 나도 몰라. 나는 길 위에 있어. 나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내일 무엇이 될지는 나도 몰라."

"재산을 잃은 거야?"

"내가 재산을 잃었지. 아니면 재산이 나를 잃었거나. 어느새 내게서 사라져 버렸어. 형상의 바퀴는 빨리 돌아, 고빈다. 브라만 싯다르타는 어디 있지? 사문 싯다르타는 어디 있지? 부자 싯다르타는 어디 있지? 덧없는 것은 빨리 바뀌어, 고빈다. 너도 알잖아."

고빈다는 눈에 의심을 담은 채 젊은 날의 벼슬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지체 높은 사람에게 하듯 인사를 건네고 제 길을 갔다.

미소 띤 얼굴로 싯다르타는 고빈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고빈다를, 이 한결같은 사람을, 이 겁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놀라운 잠을 자고 난 뒤의 이 눈부신 시간에, 옴이 속속들이 배어든 채로, 어찌 누구 하나, 무엇 하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잠 속에서, 그리고 옴을 통해 그의 안에서 일어난 마법이란, 그가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한 기쁜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전에

그토록 앓았던 병도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

미소 띤 얼굴로 싯다르타는 멀어져 가는 승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잠 덕분에 기운은 무척 되살아났으나 허기가 무척 괴로웠으니, 벌써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허기 앞에서 꺾겼하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였다. 시름에 잠겨, 그러면서도 웃음을 머금고 싯다르타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시절 그는 카말라 앞에서 세 가지를 뽐냈었고, 고귀하고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세 가지 기예를 지녔었다. 굶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았다. 이것이 그의 재산이었고, 권세이자 힘이었고, 든든한 지팡이였으니, 부지런하고 고된 젊은 날 동안 배운 것은 이 세 가지 기예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기예들은 떠나 버렸고, 어느 것 하나 더는 제 것이 아니었다. 굶을 줄 아는 것도,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생각할 줄 아는 것도. 그것들을 내주고 얻은 것은 더없이 비루한 것, 더없이 덧없는 것, 감각의 쾌락, 호의호식, 부였다! 참으로 기이하게 흘러온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보아하니, 이제 그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싯다르타는 제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는 일은 힘겨웠고, 실은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억지로 생각했다.

이제 이 더없이 덧없는 것들이 모두 다시 내게서 빠져나갔으니,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다시 해 아래 서 있구나, 언젠가 어린아이였을 때 서 있던 그대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이 얼마나 기묘한가! 지금, 더는 젊지 않은 지금, 머리가 벌써 반쯤 세고 기운이 달리는 지금, 나는 다시 처음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는 또다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기이한 운명이었다! 그는 내리막을 가고

있었고, 이제 다시 텅 비고, 벌거벗고, 우둔한 채로 세상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일로 시름에 잠길 수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웃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일었다. 자기 자신을 두고 웃고, 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두고 웃고 싶은 마음이.

"너는 내리막을 가는구나!" 싯다르타는 혼잣말을 하고는 웃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 눈길이 강에 가 닿았고, 강도 내리막을 가는 것이, 늘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어, 그는 강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이것은 언젠가, 백 년 전에, 그가 빠져 죽으려 했던 그 강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것은 꿈이었던가?

참으로 기묘했구나, 내 삶은, 그는 생각했다. 참으로 기묘한 에움길을 돌아왔구나. 소년 시절 나는 신들과 제사밖에 몰랐다. 청년 시절에는 고행과 생각과 명상밖에 몰랐고, 브라흐만을 찾아다녔고, 아트만 안의 영원한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젊은 사내가 되어서는 참회자들을 따라나서 숲에서 살았고, 더위와 추위를 견뎠고, 굶는 법을 배웠고, 내 몸에게 죽어 가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자 위대한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인식이 놀랍게도 나를 마중 나왔고, 세상이 하나임을 아는 얇이 내 피처럼 내 안을 도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붓다에게서도, 그 위대한 앞에게서도 나는 다시 떠나야 했다. 나는 떠나서 카말라에게 사랑의 쾌락을 배웠고, 카마스وام이에게 장사를 배웠고, 돈을 쌓았다가 돈을 탕진했고, 내 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내 감각에 아첨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 해를 나는 정신을 잃고, 생각하는 법을 도로 잊고, 하나임을 잊는 데 보내야 했다. 마치 내가 천천히, 크게 에돌아서, 어른에서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길은 참 좋았고, 그런데도 내 가슴속 새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얼마나 기막힌 길이었던가! 그 많은 우둔함을,

그 많은 악덕을, 그 많은 잘못을, 그 많은 역겨움과 환멸과 비탄을 나는 헤치고 지나와야 했다, 그저 다시 아이가 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된 것이 옳았다. 내 가슴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내 눈은 웃음으로 대답한다. 나는 절망을 겪어야 했고,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생각, 자살이라는 생각에까지 가라앉아야 했다, 은총을 겪을 수 있으려면, 다시 몸을 들을 수 있으려면, 다시 제대로 잠들고 제대로 깨어날 수 있으려면. 내 안에서 아트만을 다시 찾으려면 나는 바보가 되어야 했다. 다시 살 수 있으려면 나는 죄를 지어야 했다. 내 길은 나를 또 어디로 이끌어 가려는가? 엉뚱하구나, 이 길은. 고리를 그리며 가고, 어쩌면 빙빙 원을 그리며 가는지도 모른다.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라지. 나는 그 길을 가련다.

놀랍게도 그는 가슴속에서 기쁨이 물결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대체 어디서, 그는 제 가슴에게 물었다, 너는 대체 어디서 이 즐거움을 얻었느냐? 나를 그토록 개운하게 해 준 이 길고 좋은 잠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입에 올린 몸이라는 말에서? 아니면 내가 빠져나왔다는 것, 내 도망이 이루어졌다는 것, 마침내 다시 자유로워져 어린아이처럼 하늘 아래 서 있다는 것에서? 오, 이렇게 달아나 있다는 것, 이렇게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여기는 공기가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가, 숨쉬기는 얼마나 좋은가!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 그곳에서는 모든 것에서 향유 냄새가, 향신료 냄새가, 술 냄새가, 넘쳐나는 풍요의 냄새가, 게으름의 냄새가 났다. 부자들의, 탐식가들의, 노름꾼들의 그 세상을 나는 얼마나 미워했던가! 그 끔찍한 세상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다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던가! 나는 얼마나 나를 미워했던가, 나를 약탈하고, 나에게 독을 먹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늙고 악하게 만들었던가! 아니, 한때 그토록 즐겨 그랬듯이 싯다르타가 지혜롭다고 우쭐해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것만은 잘했다, 이것은 마음에 든다, 이것은 칭찬해 주어야겠다, 나 자신을 향한 그 미움에, 그 어리석고 황량한 삶에 이제 끝이 났다는 것! 너를 칭찬한다, 싯다르타, 그 많은 어리석은 세월 끝에 너는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을 떠올렸고, 무언가를 해냈고, 네 가슴속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 새를 따랐구나!

그렇게 그는 자기를 칭찬했고, 자기 자신이 흐뭇했고, 허기로 꼬르륵거리는 배 속에 호기심 어린 귀를 기울였다. 괴로움 한 조각을, 비참함 한 조각을 요즈음의 나날 동안 남김없이 맛보고 게워 냈으며, 절망에 이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먹어 치웠다고 이제 그는 느꼈다. 그렇게 된 것이 좋았다. 카마스와의 곁에서라면 아직도 오래도록 머물 수 있었으리라. 돈을 벌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배를 살찌우고 영혼은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면서, 이 부드럽고 폭신한 지옥에서 아직도 오래도록 살 수 있었으리라. 만일 그 일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위안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흐르는 물 위에 매달려 스스로를 없애 버리려 하던 그 막다른 순간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이 절망을, 이 가장 깊은 역겨움을 느꼈으면서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 새가, 제 안의 기쁜 샘이자 목소리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이 기쁨을 느꼈고, 그 때문에 웃었고, 그 때문에 희끗해진 머리카락 아래 얼굴이 환히 빛났다.

"알아야 할 것이면 무엇이든 몸소 맛보는 것이 좋구나," 그는 생각했다. "세속의 쾌락과 부가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건 어릴 적에 벌써 배웠다. 알기는 오래전부터 알았으나, 겪기는 이제야 겪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안다. 기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가슴으로, 내 배로 안다.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복되구나!"

오래도록 싯다르타는 제 변모를 곰곰이 생각했고, 새가 기뻐 노래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안에서 이 새는 죽지 않았던가, 새의 죽음을

느끼지 않았던가? 아니, 죽은 것은 다른 무엇, 벌써 오래전부터 죽기를 갈망해 온 무엇이었다. 그것은 한때 뜨거운 참회자 시절에 죽여 없애려 했던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그의 자아, 작고 불안하고 거만한 자아가 아니었던가?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싯다르타와 싸워 번번이 이겨 온 자아, 죽여 없앨 때마다 다시 살아나 기쁨을 금하고 두려움을 느끼던 그 자아가 아니었던가? 오늘 마침내 여기 숲속에서, 이 사랑스러운 강가에서 죽음을 맞은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지금 그가 어린아이처럼 이토록 믿음에 차 있고, 이토록 두려움이 없고, 이토록 기쁨에 차 있는 것은 이 죽음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싯다르타는 이것도 어렵פות이 알 것 같았다. 브라만으로서, 참회자로서 이 자아와 싸운 것이 왜 헛수고였는지를. 너무 많은 얕이 길을 막았다. 너무 많은 거룩한 시구가,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이, 너무 많은 고행이, 너무 많은 행함과 애씀이! 그는 오만으로 가득했다. 언제나 가장 영리한 사람, 언제나 가장 열성스러운 사람, 언제나 모두보다 한 걸음 앞선 사람, 언제나 아는 사람이자 정신의 사람, 언제나 사제이거나 현자였다. 이 사제다움 속으로, 이 오만 속으로, 이 정신성 속으로 자아는 기어들어 숨었고, 그가 굶고 참회하며 자아를 죽이고 있다고 여기는 동안 거기 단단히 들러붙어 자라났다. 이제 싯다르타는 그것을 보았고, 은밀한 목소리가 웅었다는 것을, 어떤 스승도 결코 자기를 해탈에 이르게 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보았다. 그랬기에 세상으로 나가야 했고, 쾌락과 권세에, 여자와 돈에 자기를 잃어야 했고, 장사꾼이, 주사위 노름꾼이, 술꾼이,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야 했다. 제안의 사제와 사문이 죽을 때까지. 그랬기에 그는 이 흉한 세월을 계속 견뎌야 했다. 역겨움을 견디고, 공허를, 황량하고 길 잃은 삶의 무의미를 견뎌야 했다. 끝까지, 쓰디쓴 절망에 이를 때까지, 난봉꾼 싯다르타도, 탐욕스러운 싯다르타도 죽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싯다르타는 죽었고,

새로운 싯다르타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 싯다르타도 늙으리라, 이 싯다르타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리라. 싯다르타는 덧없었고, 모든 형상은 덧없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싯다르타는 젊었고, 어린아이였고,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는 미소 지은 채 제 배 속에 귀를 기울였고, 웅웅거리는 벌 한 마리의 소리를 고마운 마음으로 들었다. 밝은 얼굴로 흐르는 강을 바라보니, 한 번도 어떤 물이 이 물만큼 마음에 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흘러가는 물의 목소리와 비유를 이토록 힘차고 아름답게 들은 적이 없었다. 강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들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이 강에 싯다르타는 빠져 죽으려 했고, 이 강에서 늙고 지치고 절망한 옛 싯다르타는 오늘 빠져 죽었다. 그러나 새로운 싯다르타는 이 흐르는 물에 깊은 사랑을 느꼈고, 이 물을 그리 쉬이 다시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뱃사공

이 강가에 머물리라, 잊다르타는 생각했다. 이 강은 언젠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로 가던 길에 건넌던 바로 그 강이고, 그때 다정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주었으니, 그 사람에게로 가리라. 언젠가 그의 오두막에서 떠난 내 길은 나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갔고, 그 삶은 이제 늙어서 죽어 버렸다. 지금의 내 길도, 지금의 새로운 삶도 부디 그곳에서 첫걸음을 내딛기를!

다정한 눈길로 잊다르타는 흐르는 물을, 투명한 초록빛을, 비밀로 가득한 물무늬의 수정 같은 선들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데서 환한 구슬들이 떠오르고, 고요한 공기 방울들이 거울 같은 수면 위를 떠다니고, 그 수면에 하늘의 푸른빛이 비쳐 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은 천 개의 눈으로 잊다르타를 바라보았다. 초록빛으로, 흰빛으로, 수정빛으로, 하늘빛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잊다르타는 이 물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 물은 그를 얼마나 황홀하게 했던가, 그는 이 물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가슴속에서 새로 깨어난 목소리가 말하는 것이 들렸다.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물을 사랑하라! 이 물 곁에 머물라! 이 물에게서 배우라! 오, 그렇다, 잊다르타는 이 물에게서 배우고 싶었고, 이 물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다. 잊다르타에게는 이렇게 여겨졌다. 이 물을, 이 물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많은 것도 이해하리라. 많은 비밀을, 모든 비밀을.

그러나 강의 비밀 가운데 오늘 싯다르타가 본 것은 단 한 가지였고, 그 한 가지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싯다르타는 보았다. 이 물은 흐르고 또 흘렀고, 쉬지 않고 흘렀으며, 그런데도 늘 거기 있었고, 언제나, 어느 때나 똑같은 물이면서도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었다! 오, 이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싯다르타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했다. 다만 어렴풋한 예감이, 아득한 기억이, 신성한 목소리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싯다르타는 일어섰다. 배 속에서 몰아치는 허기를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녀을 빼앗긴 채 싯다르타는 강기슭 오솔길을 따라 물줄기를 거슬러 걸어 올라가며, 물살에 귀를 기울이고, 배 속에서 꼬르륵거리는 허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루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배 한 척이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었고, 언젠가 젊은 사문을 강 건너로 건네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배 위에 서 있었다. 싯다르타는 그를 알아보았다. 뱃사공 역시 몹시 늙어 있었다.

"나를 건네주겠소?" 싯다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그토록 지체 높아 보이는 사람이 혼자서, 그것도 걸어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를 배에 태우고 강기슭을 밀어 배를 띄웠다.

"좋은 삶을 골랐구려," 손님이 말했다. "날마다 이 물가에 살면서 이 물위를 오가는 삶은 분명 좋을 것이오."

노 젓는 사공이 미소 지으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좋습니다, 나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삶인들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일인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모르겠소. 그래도 나는 그대의 일이 부럽구려."

"원, 나리께서는 금세 이 일에 싫증이 나실 겁니다. 고운 옷을 입은 분들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씻다르타는 웃었다. "오늘 이미 한 번, 이 옷 때문에 누가 나를 쳐다보았소.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소. 뱃사공이여, 내게 거추장스러운 이 옷을 그대가 받아 주지 않겠소? 실은 말이오, 내게는 그대에게 치를 뱃삿이 없소."

"나리께서 농을 하십니다." 뱃사공이 웃었다.

"농이 아니오, 벗이여. 보시오, 그대는 전에도 한 번 나를 그대의 배에 태워 이 물을 건네준 적이 있소. 샀도 받지 않고, 공덕 삼아서.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해 주고, 그 대신 내 옷을 받아 주시오."

"그럼 나리께서는 옷도 없이 길을 계속 가시렵니까?"

"아, 무엇보다 나는 길을 더 가고 싶지 않소. 뱃사공이여,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내게 헨 앞치마 하나를 주고 나를 일꾼으로, 아니 그보다는 도제로 그대 곁에 두는 것이오. 나는 배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 말이오."

뱃사공은 오래도록 낫선 이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찾는 눈길이었다.

"이제야 알아보겠습니다," 마침내 뱃사공이 말했다. "언젠가 제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스무 해도 더 되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강을 건네 드렸고, 우리는 좋은 벗처럼 작별했습니다. 사문이 아니셨습니까? 존함은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씻다르타요. 그대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문이었소."

"그렇다면 잘 왔네, 씻다르타. 나는 바수데바라고 하네. 바라건대 오늘도 내 손님이 되어 내 오두막에서 자고 가게. 그리고 어디서 오는 길인지, 그 좋은 옷이 어째서 그리도 거추장스러운지 들려주게."

두 사람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고, 바수데바는 물살을 이겨 내려고 노에 몸을 더 실었다. 바수데바는 뱃머리에 눈길을 둔 채 억센 팔로 차분하게 일했다. 씻다르타는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언젠가

사문 시절의 그 마지막 날에도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던 일을 떠올렸다. 싯다르타는 고마운 마음으로 바수데바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강기슭에 배를 대자 싯다르타는 바수데바를 도와 배를 말뚝에 붙들어 댔고, 뱃사공은 싯다르타에게 오두막으로 들어오라 하고는 빵과 물을 내주었으며, 싯다르타는 달게 먹었고, 바수데바가 내준 망고도 달게 먹었다.

그 뒤 해 질 녘이 가까워 오자 두 사람은 강가의 통나무에 걸터앉았고, 싯다르타는 뱃사공에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그 절망의 시간에 눈앞에 펼쳐져 보였던 그대로 이야기했다. 싯다르타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바수데바는 온 마음을 기울여 들었다. 태어난 내력과 어린 시절을, 그 모든 배움을, 그 모든 찾아 헤멤을, 모든 기쁨을, 모든 고난을, 바수데바는 귀 기울여 들으며 모두 제 안에 받아들였다. 들을 줄 안다는 것, 이것은 뱃사공이 지닌 가장 큰 덕 가운데 하나였다. 그만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바수데바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이는 바수데바가 제 말을 고요히,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것을, 한마디도 흘려버리지 않고, 한마디도 조바심치며 기다리지 않고, 칭찬도 나무람도 곁들이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사람에게 제 속을 털어놓는 것이, 그 가슴속에 제 삶을, 제 찾아 헤멤을, 제 괴로움을 가라앉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싯다르타는 느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 갈 무렵, 싯다르타가 강가의 나무 이야기를 하고, 제 깊은 추락 이야기를, 거룩한 옴 이야기를 하고, 잠에서 깨어난 뒤 강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뱃사공은 두 배로 귀를 기울였다. 온전히, 남김없이 제 몸과 마음을 내맡긴 채, 눈을 감고서.

싯다르타가 입을 다물고 오랜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바수데바가 말했다. "내 생각대로일세. 강이 자네에게 말을 걸었네. 강은 자네에게도 벗이고, 자네에게도 말을 한다네. 좋은 일일세, 참으로 좋은 일일세. 내 곁에 머물게, 싯다르타, 내 벗이여. 내게도 한때 아내가 있었네. 아내의 잠자리가 내 잠자리 곁에 있었네. 하지만 아내는 죽은 지 오래고, 나는 오래도록 혼자 살았네. 이제 자네가 나와 함께 살게. 둘이 지낼 자리도, 먹을 것도 넉넉하네."

"고맙소," 싯다르타가 말했다. "고맙소, 그 청을 받아들이겠소. 그리고 바수데바, 그대가 내 말을 그토록 잘 들어 준 것도 고맙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오. 그대처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소. 이 일에서도 나는 그대에게 배우겠소."

"배우게 될 걸세," 바수데바가 말했다. "하지만 나한테서 배우는 건 아닐세. 듣는 법은 강이 내게 가르쳐 주었네. 자네도 강에게서 배우게 될 걸세. 강은 모든 걸 안다네, 강은. 강에게서는 모든 걸 배울 수 있네. 보게, 자네는 이것도 벌써 물에게서 배웠네. 아래로 향하는 것이, 가라앉는 것이, 깊은 곳을 찾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부유하고 지체 높은 싯다르타가 노 젓는 머슴이 되고, 학식 높은 브라만 싯다르타가 뱃사공이 되네. 이것 역시 강이 자네에게 일러 준 것일세. 자네는 다른 것도 강에게서 배우게 될 걸세."

한참 말이 없던 싯다르타가 입을 열었다. "다른 것이라니, 무엇 말이오, 바수데바?"

바수데바가 일어섰다. "밤이 깊었네," 바수데바가 말했다. "자러 가세. 그 다른 것은 내가 자네에게 말해 줄 수 없네, 오, 벗이여. 자네는 그것을 배우게 될 걸세.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네. 보게, 나는 학자가 아닐세. 나는 말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네. 들을 줄 알고 경건할 줄 알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네. 내가 그것을 말로 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어쩌면 현자이겠지만, 나는 한낱 뱃사공일 뿐이고, 사람들을 이 강 건너로 실어 나르는 것이 내 일일세. 나는 많은 사람을, 수천 명을 건네주었지만, 그 모두에게 내 강은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았네. 그들은 돈과 장사를 좇아, 혼인 잔치에, 순례길에 나섰고, 강은 그들 앞을 가로막았고, 뱃사공은 그들을 그 걸림돌 너머로 얼른 건네주려고 거기 있었네. 하지만 그 수천 명 가운데 몇 사람, 아주 몇 안 되는 네댓 사람에게는 강이 더는 걸림돌이 아니었으니, 그들은 강의 목소리를 들었고, 강에 귀를 기울였으며, 강은 내게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었네. 이제 쉬러 가세, 싯다르타."

싯다르타는 뱃사공 곁에 머물며 배 부리는 법을 배웠고, 나루에 할 일이 없을 때면 바수데바와 함께 논에서 일하고, 땀나무를 모으고, 바나나나무의 열매를 따다. 노를 깎아 만드는 법을 배웠고, 배를 손보는 법을 배웠고, 바구니 엮는 법을 배웠으며, 배우는 것마다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나 바수데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이 가르쳐 주었다. 싯다르타는 강에게서 침 없이 배웠다. 무엇보다도 강에게서 듣는 법을 배웠다. 고요한 가슴으로, 기다리며 열린 영혼으로, 걱정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판단 없이, 의견 없이 귀 기울이는 법을.

싯다르타는 바수데바 곁에서 다정하게 지냈고, 이따금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았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오래 곱씹은 말들이었다. 바수데바는 말을 즐기지 않아서, 싯다르타가 그의 입을 열게 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대도," 언젠가 싯다르타가 이렇게 물었다. "그대도 강에게서 그 비밀을 배웠소? 시간은 없다는 것을?"

바수데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네, 싯다르타," 바수데바가 말했다. "자네가 말하는 건 바로 이것 아닌가? 강은 어디에나 동시에 있다는 것, 발원지에도 강어귀에도,

폭포에도, 나루에도, 여울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어디에나, 동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강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 말일세."

"바로 그것ियो,"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것을 배우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 삶도 하나의 강이었소. 소년 싯다르타와 어른 싯다르타와 노인 싯다르타를 갈라놓은 것은 그림자일 뿐, 실재하는 무엇이 아니었소. 싯다르타의 전생들도 과거가 아니었고, 싯다르타의 죽음도, 브라흐마에게로 돌아가는 일도 미래가 아니었소. 아무것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있을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지금 있고, 모든 것에 본질과 현재가 있소."

싯다르타는 황홀에 젖어 말했다. 이 깨달음이 그를 깊이 행복하게 했다. 오, 모든 괴로움이 시간이 아니었던가, 스스로를 들볶는 일도 두려워하는 일도 모두 시간이 아니었던가, 시간을 이겨 내자마자, 시간을 생각에서 지워 버릴 수 있게 되자마자, 세상의 무거운 것도, 적의에 찬 것도 모두 사라지고 극복되지 않았던가? 싯다르타는 황홀하게 말했지만, 바수데바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으로 싯다르타의 어깨를 쓸어 주고 다시 제 일로 돌아갔다.

또 한번은 우기를 맞아 강물이 불어나 우렁차게 소리치며 흐를 때,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렇지 않소, 오, 벗이여? 강에는 목소리가 많소, 아주 많은 목소리가. 강에는 왕의 목소리가, 전사의 목소리가, 황소의 목소리가, 밤새의 목소리가, 아이를 낳는 여인의 목소리가, 한숨짓는 이의 목소리가, 그리고 또 다른 천 가지 목소리가 있지 않소?"

"그렇다네," 바수데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뭇 생명의 목소리가 다 강의 목소리 안에 있네."

"그러면 그대는 아시오," 싯다르타가 말을 이었다. "강의 만 가지 목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바수데바의 얼굴이 행복하게 웃었다. 바수데바는 싯다르타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대고 거룩한 음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싯다르타가 들은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싯다르타의 미소는 갈수록 뱃사공의 미소를 닮아 갔다. 거의 그만큼 환해지고, 거의 그만큼 행복으로 속속들이 빛나고, 똑같이 천 갈래 잔주름 사이로 빛이 배어 나오고, 똑같이 아이 같고, 똑같이 노인 같아졌다. 많은 길손이 두 뱃사공을 보고는 형제로 여겼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자주 강가의 통나무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둘 다 물에 귀를 기울였는데, 두 사람에게 그것은 물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 존재하는 것의 목소리, 영원히 되어 가는 것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따금 두 사람은 강에 귀를 기울이다가 같은 것을, 그저께 나눈 이야기기를, 얼굴과 운명이 마음에 걸리던 어느 길손을, 죽음을, 저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강이 무언가 좋은 것을 말해 주었을 때면, 두 사람은 같은 순간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똑같은 것을 생각하며, 둘 다 같은 물음에 주어진 같은 대답에 기뻐하며.

나루와 두 뱃사공에게서는 무언가가 풍겨 나왔고, 길손 가운데 더러는 그것을 느꼈다. 때로는 어떤 길손이 두 뱃사공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서 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슬픔을 털어놓고, 저지른 악을 고백하고,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 때로는 누군가가 강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니 하룻저녁 그들 곁에 머물게 해 달라고 청하는 일이 있었다. 이 나루에 두 현자가, 아니 두 마법사가, 아니 두 성자가 산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호기심에 찬 이들은 이것저것 많이 물었지만 대답은 하나도 듣지 못했고, 마법사도 현자도 찾지 못했으며, 그들이 찾은 것은 말도 못

하는 듯하고 어딘가 별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 좋은 늙은이 둘이 전부였다. 그러자 호기심에 찬 이들은 웃으며, 사람들이란 얼마나 어리석고 귀가 얇기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느냐고 저희끼리 떠들었다.

세월이 흘렀고, 아무도 그 헛수를 세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타마를, 붓다를 따르는 승려들이 순례길에 나루를 찾아와 강을 건너 달라고 청했고, 뱃사공들은 그들에게서 승려들이 위대한 스승에게로 서둘러 돌아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존께서 병이 위중하시어 머지않아 사람의 몸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고 해탈에 드시리라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무리의 승려들이 순례해 왔고, 또 한 무리가 왔으며, 승려들도, 그 밖의 길손과 나그네들도 대부분 고타마와 그의 가까워진 죽음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출정이나 왕의 즉위식이 있을 때면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쏟아져 나와 개미 떼처럼 무리를 짓듯이,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몰려갔다. 위대한 붓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한 세계 시대의 위대한 이, 완성에 이른 이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곳으로.

그 무렵 싯다르타는 죽어 가는 현자를, 위대한 스승을 자주 생각했다. 그 목소리로 못 백성을 타이르고 수십만 사람을 깨어나게 한 스승, 싯다르타도 언젠가 그 목소리를 들었고, 그 거룩한 얼굴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던 스승이었다. 싯다르타는 다정한 마음으로 스승을 생각했고, 완성에 이르는 그의 길을 눈앞에 그려 보았으며, 젊은 날 세존께 드렸던 말들을 미소 지으며 떠올렸다. 싯다르타가 보기에 그것은 오만하고 애늙은이 같은 말이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그 말들을 떠올렸다. 싯다르타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고타마와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고타마의 가르침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도. 아니, 참으로 찾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내려는 사람은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다 좋다 할 수 있었고, 어떤 길이든, 어떤 목표든 좋다 할 수 있었으며, 영원한 것 안에 살며 신성한 것을 숨 쉬는 다른 모든 천 사람과 그런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붓다에게로 순례하던 그 무렵의 어느 날, 한때 기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카말라도 붓다에게로 순례길에 올랐다. 카말라는 오래전에 지난날의 삶에서 물러나, 자기 정원을 고타마의 승려들에게 바치고, 그 가르침에 귀의하여, 순례하는 이들의 벗이자 은인이 되어 있었다. 고타마의 죽음에 머지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카말라는 아들인 소년 싯다르타를 데리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길을 나섰다. 카말라는 어린 아들과 함께 강을 따라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이는 금세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조르고, 쉬어 가자고 조르고,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며, 떼를 쓰고 칭얼거렸다.

카말라는 아이 때문에 자주 쉬어 가야 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제 고집을 내세우는 버릇이 들어 있었고, 카말라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했고, 달래야 했고, 꾸짖어야 했다. 아이는 어째서 어머니와 함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거룩하다는, 죽어 가고 있다는 낯선 사내에게로 이 고되고 서글픈 순례길을 떠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사내가 죽든 말든, 그게 아이와 무슨 상관이었으랴?

두 순례자가 바수데바의 나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어린 싯다르타가 또다시 어머니를 졸라 쉬어 가게 했다. 어머니도, 카말라 자신도 지쳐 있었다. 아이가 바나나를 씹는 동안 카말라는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카말라가 애처로운 비명을 질렀고, 아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으며, 어머니의 옷자락 밑에서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르 빠져나갔다. 카말라를 문 뱀이었다.

두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닿으려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나루 가까이까지 왔지만, 거기서 카말라가 쓰러져 더는 걷지 못했다. 아이는 서럽게 울부짖으며 그 사이사이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목에 매달렸고, 카말라도 아이를 따라 살려 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으며, 마침내 그 소리가 나루에 서 있던 바수데바의 귀에 닿았다. 바수데바는 걸음을 재촉해 다가와 여인을 두 팔에 안아 배에 실었고, 아이도 따라 달렸으며, 이윽고 모두 오두막에 이르렀을 때 싯다르타는 화덕 앞에 서서 막 불을 피우던 참이었다. 싯다르타는 고개를 들어 먼저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기이하게도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고,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다음 카말라를 보았다. 카말라는 정신을 잃고 뱃사공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싯다르타는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싯다르타는 알았다. 그토록 무언가를 일깨우던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아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가슴속에서 심장이 크게 출렁였다.

카말라의 상처를 씻어 냈지만, 상처는 이미 검게 변했고 온몸이 부어올라 있었다. 달인 약을 카말라의 입에 흘려 넣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카말라는 오두막 안 싯다르타의 잠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 위로 한때 카말라를 그토록 사랑했던 싯다르타가 몸을 굽히고 서 있었다. 카말라에게는 꿈만 같았다. 카말라는 미소 지으며 벗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제 처지를 깨닫고, 뱀에 물린 일을 떠올리고는, 겁에 질려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당신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싯다르타가 말했다.

카말라는 싯다르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독에 마비되어 혀가 무거웠다. "늠었구나, 내 사랑," 카말라가 말했다. "머리가 하얗게 섰어. 그래도 당신은 그 젊은 사문을 닮았어. 언젠가 옷도 없이 먼지투성이 발로 내 정원에 들어왔던 그 사문을. 나와 카마스와의미를 두고 떠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닮았어. 눈이 그 사문을 닮았어, 싯다르타. 아, 나도 늙었어, 이렇게 늙었는데, 그래도 나를 알아보았어?"

싯다르타는 미소 지었다. "단번에 알아보았어, 카말라, 내 사랑."

카말라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도 알아보았어? 당신 아들이야."

카말라의 눈이 초점을 잃고 해매다가 감졌다. 아이는 울었고, 싯다르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울게 두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 싯다르타 자신이 어린 소년이던 시절에 배운 브라만의 기도 하나가 떠올랐다. 싯다르타는 노래하는 목소리로 천천히 그 기도를 읊기 시작했고, 지나간 날에서, 어린 시절에서 그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 노랫가락을 들으며 아이는 잠잠해졌고, 이따금 흐느끼다가 잠이 들었다. 싯다르타는 아이를 바수데바의 잠자리에 눕혔다. 바수데바는 화덕 앞에 서서 밥을 짓고 있었다. 싯다르타가 눈길을 보내자, 바수데바는 미소로 답했다.

"이 사람은 죽을 것이오." 싯다르타가 나직이 말했다.

바수데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정한 얼굴 위로 화덕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카말라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싯다르타의 눈은 카말라의 입가에서, 핏기 가신 뺨에서 괴로움을 읽었다. 조용히, 주의 깊게, 기다리며, 그 괴로움 속에 깊이 잠겨 싯다르타는 그것을 읽었다. 카말라는 그것을 느꼈고, 카말라의 눈길이 싯다르타의 눈을 찾았다.

카말라가 싯다르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보니 당신 눈도 변했어. 아주 판 눈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보고 아직도 당신이 싯다르타라는 걸 알아보는 걸까? 당신은 싯다르타이면서, 싯다르타가 아니야."

싯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싯다르타의 눈이 고요히 카말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룬 거야?" 카말라가 물었다. "평화를 찾았어?"

싯다르타는 미소 지으며 카말라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다.

"보여," 카말라가 말했다. "보여. 나도 평화를 찾을 거야."

"당신은 벌써 찾았어." 싯다르타가 속삭였다.

카말라는 눈을 떼지 않고 싯다르타의 눈을 바라보았다. 카말라는 생각했다. 완성에 이른 이의 얼굴을 보려고, 그 평화를 숨 쉬려고 고타마에게로 순례하려 했는데, 이제 고타마 대신 이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고타마를 보았을 때와 똑같이 좋았으리라는 것을. 카말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혀가 더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카말라는 말없이 싯다르타를 바라보았고, 싯다르타는 카말라의 눈 속에서 생명이 꺼져 가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고통이 카말라의 눈을 가득 채우고 그 눈빛이 스러졌을 때, 마지막 떨림이 팔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싯다르타의 손가락이 카말라의 눈을 감겨 주었다.

오래도록 싯다르타는 앉아서 잠든 카말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카말라의 입을, 입술이 얇아진 그 늙고 지친 입을 바라보며, 언젠가 인생의 봄날에 이 입을 갓 벌어진 무화과에 견주었던 일을 떠올렸다. 오래도록 앉아서, 핏기 없는 얼굴을, 지친 주름을 읽고, 그 모습으로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제 얼굴도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을, 그렇게 하얗게, 그렇게 꺼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보았으며, 동시에 제 얼굴과 카말라의 얼굴이 붉은 입술과 타오르는 눈을 지닌 젊은 얼굴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현재의 느낌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있다는 느낌이 싯다르타를 온통 꿰뚫었다. 영원의 느낌이다. 이 시간에

싯다르타는 깊이, 어느 때보다도 깊이, 모든 생명이 부서지지 않음을, 모든 순간이 영원함을 느꼈다.

싯다르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바수데바는 그를 위해 밥을 차려 두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먹지 않았다. 염소를 매어 두는 헛간에 두 늙은이는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했고, 바수데바는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밖으로 나가 오두막 앞에 앉아, 강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날의 물결에 씻기며, 제 삶의 모든 시간에 한꺼번에 어루만져지고 감싸 안긴 채로 밤을 새웠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일어나 오두막 문가로 가서 아이가 잘 자는지 귀를 기울였다.

이른 아침, 해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바수데바가 헛간에서 나와 벋에게로 다가왔다.

"자네, 자지 않았구먼," 바수데바가 말했다.

"그렇소, 바수데바. 여기 앉아 강에 귀를 기울였소. 강이 내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소. 나를 낫게 하는 생각으로, 하나임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깊이 채워 주었소."

"자네는 슬픔을 겪었네, 싯다르타. 하지만 보아하니 자네 가슴에 서글픔이 깃들지는 않았구먼."

"아니오, 사랑하는 벋이여, 내가 어찌 서글퍼하겠소? 부유하고 행복했던 내가 이제 더욱 부유하고 더욱 행복해졌소. 내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말이오."

"자네 아들은 내게도 반가운 손님일세. 자, 이제 싯다르타, 일하러 가세. 할 일이 많네. 카말라는 예전에 내 아내가 죽은 바로 그 잠자리에서 죽었네. 예전에 내가 아내를 태울 장작더미를 쌓았던 바로 그 언덕에, 카말라를 태울 장작더미도 쌓으세."

아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두 사람은 장작더미를 쌓아 올렸다.

아들

잔뜩 움츠러든 채 울면서 소년은 어머니의 장례를 지켜보았고, 자기를 아들로 맞아들이며 바수데바의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자고 반기는 싯다르타의 말을 어둡고 움츠러든 얼굴로 들었다. 소년은 여러 날 동안 창백하게 질린 채 죽은 이의 언덕에 앉아 있었고, 먹으려 하지 않았고, 눈길을 닫았고, 마음을 닫았으며, 운명에 맞서 버티고 뻘뻘했다.

싯다르타는 소년을 다그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으며, 소년의 슬픔을 존중했다. 싯다르타는 이해했다. 아들이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를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천천히 그는 이것도 알아보고 이해했다. 이 열한 살배기가 응석받이 소년이라는 것을, 어머니 품에서만 자란 아이라는 것을, 부유한 살림의 버릇 속에서 자라 귀한 음식과 폭신한 잠자리에 길들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데 길들어 있다는 것을. 싯다르타는 이해했다. 슬픔에 잠긴 응석받이가 낯선 곳에서, 가난 속에서 하루아침에 순순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들 몫의 일을 이것저것 대신 해 주었고, 언제나 가장 맛난 한 입을 골라 아들에게 주었다. 천천히, 다정한 인내로 아들의 마음을 얻기를 바랐다.

소년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싯다르타는 자기가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소년이 낯설고 어두운 채로 남아 오만하고 고집 센 마음을 내보이고, 아무 일도 하려 들지 않고, 두 늙은이를 공경하지 않고, 바수데바의 과일나무를 털어 가자, 싯다르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자기에게 온 것은 행복과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과 근심이라는 것을. 그래도 싯다르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이 없이 누리던 행복과 기쁨보다 사랑의 괴로움과 근심이 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다. 어린 싯다르타가 오두막에 온 뒤로 두 늙은이는 일을 나누었으니, 바수데바가 다시 혼자서 뱃사공 일을 떠맡았고, 싯다르타는 아들 곁에 있으려고 오두막 일과 밭일을 맡았다.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싯다르타는 기다렸다. 아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자기 사랑을 받아 주기를, 어쩌면 그 사랑에 답해 주기를. 여러 달 동안 바수데바는 지켜보며 기다렸고, 기다리며 침묵했다. 어느 날, 어린 싯다르타가 또다시 고집과 변덕으로 아버지를 몹시 괴롭히고 밥그릇 두 개를 다 깨뜨려 버리자, 그날 저녁 바수데바는 벼를 한쪽으로 불려 이야기를 꺼냈다.

"미안하네," 바수데바가 말했다. "다정한 마음에서 자네에게 하는 말일세. 자네가 스스로를 들볶는 게 보이네. 자네가 시름에 잠긴 게 보이네. 자네 아들이, 사랑하는 벼이며, 자네를 근심하게 하고, 나도 근심하게 하네. 저 어린 새는 다른 삶에, 다른 등지에 길들어 있네. 그 아이는 자네처럼 역겨움과 싫증에 겨워 부와 도시를 버리고 달아난 게 아니라, 제 뜻과 달리 그 모든 걸 뒤에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네. 나는 강에게 물었네, 오, 벼이며, 몇 번이고 물었네. 그런데 강은 웃네, 나를 비웃네, 나도 비웃고 자네도 비웃으며 우리 어리석음이 우스워 몸을 들썩이네. 물은 물에게로 가려 하고 젊음은 젊음에게로 가려 하는데, 자네 아들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네. 자네도 강에게 물어보게. 자네도 강에 귀를 기울여 보게!"

싯다르타는 시름에 잠겨, 술한 주름마다 한결같은 밝음이 깃든 바수데바의 다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찌 그 아이와 헤어질 수 있겠소?" 싯다르타가 부끄러워하며 나직이 말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오, 사랑하는 벗이여! 보시오, 나는 그 아이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소. 그 아이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고 있소. 사랑으로, 다정한 인내로 그 마음을 붙잡겠소. 언젠가는 강이 그 아이에게도 말을 걸 거요. 그 아이도 부름을 받았소."

바수데바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피어났다. "오, 그렇고말고. 그 아이도 부름을 받았네. 그 아이도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네. 하지만 자네와 나, 우리가 과연 알겠나? 그 아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길로, 어떤 행실로, 어떤 괴로움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아이의 괴로움은 작지 않을 걸세. 그 아이 마음은 오만하고 모질지 않은가. 그런 사람은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헤매고, 많이 그릇된 짓을 하고, 많은 죄를 짊어져야 하네. 말해 보게, 사랑하는 벗이여. 자네는 아들을 가르치지 않나? 강요하지 않나? 때리지 않나? 벌주지 않나?"

"하지 않소, 바수데바.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소."

"그럴 줄 알았네. 자네가 강요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명령하지 않는 건, 부드러움이 단단함보다 강하고, 물이 바위보다 강하고, 사랑이 폭력보다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일세. 아주 좋네, 자네를 칭찬하네. 그런데 자네가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벌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건 자네의 착각이 아닌가? 자네는 자네 사랑으로 아이를 옴아매고 있지 않나? 자네의 어진 마음과 인내로 날마다 아이를 부끄럽게 하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그 거만한 응석받이 소년에게, 바나나나 먹고 살아 쌀밥만 해도 별미로 아는 두 늙은이, 그 아이와 생각이 통할 수 없고 가슴은 높고 고요해서 그 아이 가슴과는 다른 걸음으로 뛰는 두 늙은이와 오두막에서 함께 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나? 이 모든 것으로 그 아이는 강요당하고, 벌받고 있지 않은가?"

싯다르타는 가슴이 뜨끔하여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직이 물었다. "그대 생각에는 내가 어찌해야 하겠소?"

바수데바가 말했다. "아이를 도시로 데려가게. 제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게. 거기 아직 하인들이 있을 테니, 그들에게 아이를 맡기게. 하인들이 더는 없거든 스승에게 데려가게. 가르침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소년들 틈에, 소녀들 틈에, 제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라는 걸세. 자네는 이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대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구려." 싯다르타가 서글프게 말했다. "나도 자주 그 생각을 했소. 하지만 보시오, 그러잖아도 마음이 순하지 못한 그 아이를 어떻게 그런 세상에 내준단 말이오? 호사에 물들지 않겠소? 쾌락과 권세에 빠져 제 자신을 잃지 않겠소? 제 아버지의 잘못을 모두 되풀이하지 않겠소? 어쩌면 윤회 속에서 송두리째 길을 잃고 말지 않겠소?"

벧사공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바수데바는 싯다르타의 팔에 살며시 손을 대며 말했다. "그걸 강에게 물어보게, 벗이여! 강이 그걸 두고 웃는 소리를 들어 보게! 자네는 정말로 믿나? 자네가 그 어리석은 짓들을 저지른 게, 아들은 그걸 면하게 해 주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자네가 아들을 윤회로부터 지켜 줄 수 있겠나? 어떻게 말인가? 가르침으로? 기도로? 타이름으로? 사랑하는 벗이여, 언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자네가 내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브라만의 아들 싯다르타에 관한 그 교훈 가득한 이야기를 자네는 까맣게 잊었나? 누가 사문 싯다르타를 윤회로부터,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 주었나? 아버지의 경건함이, 스승들의 타이름이, 제 앎이, 제 찾아 헤매임 그를 지켜 줄 수 있었나? 스스로 삶을 살아 내고, 스스로 삶에 제 몸을 더럽히고, 스스로 허물을 짊어지고, 스스로 쓴잔을 들이켜고, 스스로 제 길을 찾아내는 그 일을, 어느 아버지가, 어느 스승이 막아 줄 수 있었나?"

"사랑하는 벗이여, 자네는 이 길을 누군가는 어쩌면 면할 수도 있으리라 믿나? 자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네가 그 아이에게 괴로움과 아픔과 환멸을 면하게 해 주고 싶으니까, 어쩌면 자네의 그 어린 아들만은 면하리라고? 하지만 자네가 그 아이를 위해 열 번을 죽는다 해도, 그걸로 그 아이의 운명에서 가장 작은 한 조각도 덜어 줄 수는 없을 걸세."

바수데바가 이토록 많은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싯다르타는 다정하게 고마움을 전하고는 시름에 잠겨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수데바가 한 말은 하나같이 싯다르타가 이미 스스로 생각해 보고 알고 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행할 수 없는 앞이었으니, 앞보다 강한 것은 소년을 향한 사랑이었고, 앞보다 강한 것은 애뜻함이었고, 소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싯다르타가 일찍이 그 무엇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던가, 일찍이 그 누구를 이토록, 이토록 눈멀게, 이토록 괴롭게, 이토록 보람 없이, 그러면서도 이토록 행복하게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싯다르타는 벗의 충고를 따를 수 없었다. 아들을 내줄 수 없었다. 그는 소년이 자기에게 명령하게 두었고, 소년이 자기를 업신여기게 두었다. 그는 침묵하며 기다렸고, 날마다 다정함의 말 없는 싸움을, 인내의 소리 없는 전쟁을 새로 시작했다. 바수데바도 침묵하며 기다렸다. 다정하게, 다 알면서, 오래 참으며. 인내라면 두 사람 다 달인이었다.

언젠가 소년의 얼굴을 보다가 카말라가 몹시 떠올랐을 때, 싯다르타는 문득 카말라가 오래전, 젊은 날에 자기에게 한 번 했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사랑할 줄 몰라." 카말라는 그렇게 말했고, 싯다르타는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며 자기를 별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떨어지는 나뭇잎에 건주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말에서 나무람도 느꼈었다. 참으로 싯다르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자기를 잃고 내맡기지 못했고, 자기를 잊지 못했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사랑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못했다.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그때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자기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과 갈라놓는 큰 차이였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곁에 온 뒤로, 이제 그도, 싯다르타도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랑에 자기를 잃고, 한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이. 이제 그도, 늦게나마, 한평생에 한 번 이 가장 강하고 가장 기이한 열정을 느꼈고, 그 열정으로 괴로워했고, 가련하게 괴로워했으며, 그러면서도 지복에 젖었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새로워지고, 조금은 더 부유해졌다.

싯다르타도 느끼고는 있었다. 이 사랑이, 아들을 향한 이 눈먼 사랑이 하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아주 인간다운 무엇이라는 것을, 그것이 윤회라는 것을, 흐린 샘이요 어두운 물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느꼈다. 이 사랑은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이었고, 제 본질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 이 즐거움도 값을 치러야 했고, 이 아픔도 맛보아야 했고, 이 어리석은 짓도 저질러야 했다.

그사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었고, 제 마음을 사려고 애쓰게 내버려 두었고, 날마다 제 변덕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게 내버려 두었다. 이 아버지에게는 소년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소년이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아버지는 좋은 사람, 좋고 어질고 순한 사람, 어쩌면 아주 경건한 사람, 어쩌면 성자였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소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었다. 자기를 이 초라한 오두막에 가두어 두는 이 아버지가 소년에게는 따분했다. 따분하기만 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버릇없는 짓마다 미소로, 욕설마다 다정함으로, 못된 짓마다 어진 마음으로

값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늙은 능구렁이의 가장 가증스러운 술수였다. 소년은 차라리 이 아버지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는 편이 훨씬 나았으리라.

그러다 어느 날이 왔다. 어린 싯다르타의 속마음이 터져 나와, 드러내 놓고 아버지에게 맞선 날이었다. 아버지가 소년에게 일을 하나 시켰다.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라고 일렸다. 그러나 소년은 오두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고집스럽게, 씩씩대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발을 구르고 주먹을 움켜쥐더니, 견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기세로 아버지 얼굴에 대고 증오와 경멸을 내질렀다.

"잔가지는 당신이 직접 주워 와!" 소년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난 당신 종이 아니야. 당신이 날 안 때린다는 거 다 알아. 감히 못 때리잖아. 당신이 그 경건함하고 너그러움으로 날 줄곧 벌주고 주눅 들게 하려는 것도 다 알아. 당신은 내가 당신처럼 되길 바라지. 당신처럼 경건하고, 당신처럼 순하고, 당신처럼 지혜롭게! 하지만 난, 잘 들어, 당신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라도, 당신처럼 되느니 차라리 노상강도에 살인자가 돼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난 당신이 미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이 우리 어머니 정부였던 게 열 번이라 해도!"

분노와 울분이 소년의 속에서 넘쳐흘러, 거칠고 모진 말 백 마디가 되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아버지에게 쏟아졌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달아났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소년은 사라지고 없었다. 두 가지 빛깔의 나무껍질로 엮은 작은 바구니도 사라지고 없었다. 두 뱃사공이 뱃삿으로 받은 동전과 은전을 넣어 두던 바구니였다. 배도 사라지고 없었다. 싯다르타가 보니 배는 건너편 강기슭에 놓여 있었다. 소년은 달아나 버렸다.

"그 아이를 뒤쫓아야 하오." 어제 소년이 퍼부은 욕설을 들은 뒤로 비통함에 떨고 있던 싯다르타가 말했다. "어린아이 혼자서는 숲을 지나갈 수 없소. 그 아이는 죽고 말 거요. 물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어야 하오, 바수데바."

"뗏목은 만드세," 바수데바가 말했다. "그 아이가 몰고 간 우리 배를 도로 가져와야 하니 말일세. 하지만 아이는 가게 두게, 벗이여. 그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닐세. 제 앞가림은 할 줄 아네. 그 아이는 도시로 가는 길을 찾고 있네. 그리고 그 아이가 옳네. 그걸 잊지 말게. 그 아이는 자네가 하지 않고 미뤄 둔 일을 하고 있네. 제 몸을 제가 돌보고, 제 길을 가고 있네. 아, 싯다르타, 자네가 괴로워하는 게 보이네만, 자네가 겪는 아픔은 누구라도 웃고 싶어질 아픔이고, 머지않아 자네 스스로도 웃게 될 아픔일세."

싯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도끼를 손에 들고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고, 바수데바는 싯다르타를 도와 대나무 줄기들을 풀로 끈 밧줄로 한데 묶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강을 건넜는데, 물살에 멀리 떠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건너편 강기슭에 닿고 나서는 뗏목을 끌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도끼는 왜 가져왔소?" 싯다르타가 물었다.

바수데바가 말했다. "우리 배의 노가 없어졌을지도 모르니 말일세."

그러나 싯다르타는 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바수데바는 소년이 양갓음을 하려고, 또 두 사람이 뒤쫓지 못하게 하려고 노를 내던졌거나 부러뜨렸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배 안에는 노가 없었다. 바수데바는 배 바닥을 가리키고는 미소 띤 얼굴로 벗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았다. "자네 아들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보이지 않나? 그 아이가 쫓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지 않나?" 그러나 바수데바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새 노를 깎기 시작했다. 싯다르타는 달아난 아이를 찾으러 떠나겠다며 작별을 고했다. 바수데바는 싯다르타를 말리지 않았다.

숲길을 한참 걸었을 때, 싯다르타에게 이렇게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은 벌써 멀찍이 앞서가 이미 도시에 닿았거나, 아직 길 위에 있다 해도 뒤쫓아 오는 자기를 피해 몸을 숨기리라고 싯다르타는 생각했다. 생각을 더 이어 가다 보니, 자기가 실은 아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이가 죽지도 않았고 숲에서 무슨 위험이 닥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런데도 싯다르타는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구하려고서가 아니라 그저 갈망에 끌려, 그저 어찌면 한 번 더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렇게 그는 도시 앞까지 내쳐 걸었다.

도시 가까이에서 넓은 한길로 나섰을 때, 싯다르타는 한때 카말라의 것이었던 아름다운 즐거움의 정원, 언젠가 가마에 탄 카말라를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정원의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시절이 영혼 속에서 되살아나, 싯다르타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별거벗은 젊은 사문으로, 머리카락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쓴 채 그곳에 서 있던 자기 모습을 다시 보았다. 오래도록 싯다르타는 서서 열린 문 너머로 정원 안을 들여다보았고, 누런 가사를 걸친 승려들이 아름다운 나무들 아래를 거니는 것을 보았다.

오래도록 그는 서 있었다. 생각에 잠기고,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제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오래도록 그는 서서 승려들 쪽을 바라보았으나, 승려들 대신 젊은 싯다르타를 보았고, 높은 나무들 아래를 거니는 젊은 카말라를 보았다. 싯다르타는 또렷이 보았다. 카말라에게 대접받던 자기를, 카말라의 첫 입맞춤을 받던 자기를, 브라만으로 살던 지난날을 오만하게, 업신여기며 돌아보던 자기를,

오만하게, 갈망에 차서 세속의 삶을 시작하던 자기를. 싯다르타는 카마스와미를 보았고, 하인들을, 술잔치를, 주사위 노름꾼들을, 악사들을 보았고, 새장 속에 든 카말라의 노래하는 새를 보았으며,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았고, 윤회를 숨 쉬었고, 다시 한번 늙고 지쳤고, 다시 한번 역겨움을 느꼈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꺼 버리고 싶은 소망을 느꼈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옴으로 나왔다.

정원 문 곁에 오래도록 서 있고 나서야 싯다르타는 자기를 이곳까지 몰아온 갈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자기는 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들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아난 아이를 향한 사랑을 그는 가슴 깊이 상처처럼 느꼈고, 동시에 이 상처가 그 속을 헤집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꽃이 되어 빛나야 한다는 것도 느꼈다.

상처가 이 시간에 아직 꽃피지 않고 아직 빛나지 않아서, 싯다르타는 서글펐다. 자기를 이곳으로, 달아난 아들의 뒤로 끌고 온 소망의 목표가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공허가 서 있었다. 싯다르타는 서글프게 주저앉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죽어 가는 것을 느꼈고, 공허를 느꼈고, 더는 아무 기쁨도, 아무 목표도 보지 못했다. 싯다르타는 깊이 잠겨 앉아 기다렸다. 이것을 그는 강가에서 배웠다. 이것 하나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을. 그리고 한길의 먼지 속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지치고 서글프게 뛰는 제 심장에 귀를 기울이며, 한 목소리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고 그는 귀 기울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더는 아무 모습도 보지 않았으며, 공허 속으로 가라앉았고, 길 하나 보이지 않는 채로 가라앉는 대로 저를 내맡겼다. 그리고 상처가 쓰라리게 타오를 때면 소리 없이 옴을 읊었고, 옴으로 제 안을 채웠다. 정원 안의 승려들이 싯다르타를 보았는데, 그가 여러 시간이나 웅크리고 있고 잿빛 머리 위로 먼지가 쌓여 가자, 한 승려가 다가와 바나나 두 개를 앞에 내려놓았다. 노인은 승려를 보지 못했다.

얼어붙은 듯 굳어 있던 그를 깨운 것은 어깨에 와 닿은 손이었다. 그는 곧 이 손길을, 그 여리고 수줍은 손길을 알아보고 정신을 차렸다. 몸을 일으켜, 자기를 뒤따라온 바수데바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바수데바의 다정한 얼굴을, 온통 미소로만 채워 놓은 듯한 자잘한 주름들을, 그 밝은 두 눈을 들여다보자, 그도 미소 지었다. 그제야 앞에 놓인 바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나나를 집어 들어 하나는 뱃사공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먹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바수데바와 함께 숲으로 되돌아가, 나루로,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누구도 소년이 달아난 일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처를 말하지 않았다. 오두막에서 싯다르타는 제 잠자리에 누웠고, 얼마 뒤 바수데바가 야자즙 한 사발을 권하려고 다가가 보니, 벗은 벌써 잠들어 있었다.

옴

상처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쓰라리게 타올랐다. 싯다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가는 길손을 여럿 강 건너로 실어 날라야 했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토록 수천수만 사람이 이 더없이 고운 행복을 누리는데, 어째서 나는 아닌가? 악한 사람들도, 도둑들도, 강도들도 자식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사랑받는다. 나만 빼고." 이제 싯다르타는 이토록 단순하게, 이토록 분별없이 생각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이토록 닮아 있었다.

이제 싯다르타는 예전과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다. 덜 영리하게, 덜 오만하게, 그 대신 더 따뜻하게, 그 대신 더 궁금해하며, 더 마음을 쏟으며. 혼한 부류의 길손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전사들을, 아낙네들을 강 건너로 실어 나를 때면,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싯다르타는 그들을 이해했다. 생각과 통찰이 아니라 오로지 충동과 소망에 이끌려 가는 그들의 삶을 이해했고 함께 나누었으며, 자기도 그들과 같다고 느꼈다. 완성에 가까이 이르렀고 마지막 상처를 앓고 있었는데도, 싯다르타에게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제 형제들로 여겨졌다. 그들의 허영과 탐욕과 우스꽝스러운 짓들은 그의 눈에 우스꽝스러움을 잃었고, 이해할 만한 것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고, 심지어 공경할 만한 것이 되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먼 사랑, 우쭐대는 아버지가 하나뿐인 어린 아들을 두고

품은 어리석고 눈먼 자랑, 허영에 찬 젊은 여자가 장신구를, 감탄하는 사내들의 눈길을 좇아 눈멀고 거칠게 내닫는 마음, 이 모든 충동, 이 모든 어린애 같은 짓, 이 모든 단순하고 어리석지만 엄청나게 강한, 강하게 살아 있고 강하게 제 뜻을 밀고 나가는 충동과 탐욕이 싯다르타에게는 이제 더는 어린애 같은 짓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싯다르타는 보았고, 그것 때문에 끝없는 일을 해내고, 길을 떠나고, 전쟁을 벌이고, 끝없이 괴로워하고, 끝없이 견디는 것을 보았으며, 그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걱정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에서 그는 생명을, 살아 있는 것을, 부서지지 않는 것을, 브라흐만을 보았다. 눈먼 충실함 속에서, 눈먼 힘과 끈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사랑스러웠고 감탄스러웠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고, 아는 이와 생각하는 이가 그들보다 앞선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만 빼고. 그것은 의식,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또렷이 의식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싯다르타는 때때로 이 얇이, 이 생각이 그토록 높이 쳐줄 만한 것인지, 어쩌면 이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어린애 같은 짓이 아닐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현자와 대등했고, 흔히 현자보다 훨씬 나았다. 짐승들도 꼭 해야 할 일을 끈질기게, 흔들림 없이 해내는 모습에서는 어떤 순간 사람보다 나아 보일 수 있듯이.

싯다르타 안에서 인식이 천천히 꽃피었고, 천천히 무르익었다. 지혜란 본디 무엇인지, 그 오랜 찾아 헤매는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얇이. 그것은 영혼의 채비, 하나의 능력, 하나의 비밀스러운 기예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에나,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임을 생각하고, 하나임을 느끼고 들이설 수 있는 기예. 천천히 이것이 싯다르타 안에서 피어났고,

바수데바의 늙은 아이 얼굴에서 그에게로 되비쳐 왔다. 조화가, 세상의 영원한 완전함을 아는 앎이, 미소가, 하나임이.

그러나 상처는 아직도 쓰라리게 타올랐다. 싯다르타는 애타게, 쓰디쓰게 아들을 생각했고, 가슴속에 사랑과 애뜻함을 가꾸었고, 아픔이 제 살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으며, 사랑의 온갖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이 불길은 저절로 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처가 몹시 쓰라리게 타오르자 싯다르타는 그리움에 쫓겨 배를 저어 강을 건넜고, 배에서 내려 도시로 가서 아들을 찾을 작정이었다. 강은 부드럽고 나직하게 흘렀다. 건기였다. 그런데 강의 목소리가 야릇하게 울렸다. 목소리가 웃고 있었다! 또렷이 웃고 있었다. 강이 웃었다. 늙은 뱃사공을 두고 환하고 맑은 소리로 비웃었다. 싯다르타는 걸음을 멈추고 더 잘 들으려고 물 위로 몸을 숙였다. 고요히 흘러가는 물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비친 그 얼굴 속에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곰곰이 되짚어 보다가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이 얼굴은 다른 얼굴을, 싯다르타가 한때 알았고 사랑했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 브라만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싯다르타는 떠올렸다. 아득한 옛날 젊은이였던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붙여 참회자들에게 가도록 허락을 받아 냈던 일을, 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했던 일을, 떠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일을. 아버지도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아들 때문에 겪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았던가?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홀로 오래전에 죽지 않았던가? 자기도 바로 이 같은 운명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 되풀이, 숙명의 원을 따라 이렇게 맴도는 일은 한 편의 희극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던가?

강이 웃었다. 그랬다, 정말 그러했다. 끝까지 괴로워하여 풀어내지 못한 것은 모두 다시 돌아왔고, 똑같은 괴로움을 거듭거듭 다시 겪어야 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다시 배에 올라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들을 생각하며, 강에게 비웃음을 사고, 자기 자신과 다투며, 절망 쪽으로 기울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자기와 온 세상을 두고 소리 높여 함께 웃고 싶은 쪽으로 기울면서. 아, 상처는 아직 꽃피지 않았고, 가슴은 아직 운명에 맞서 버텼으며, 괴로움에서는 아직 밝음도 승리도 빛나지 않았다. 그래도 싯다르타는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바수데바 앞에 제 속을 열어 보이고 싶은, 모든 것을 보여 주고 싶은, 듣는 일의 달인인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누를 길 없는 갈망이 일었다.

바수데바는 오두막에 앉아 바구니를 엮고 있었다. 이제는 나룻배를 몰지 않았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고, 눈만이 아니라 팔과 손도 그랬다. 변함없이 꽃피어 있는 것은 오직 그 얼굴에 어린 기쁨과 밝은 호의뿐이었다.

싯다르타는 노인 곁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일을 이제 싯다르타는 이야기했다. 그때 도시로 갔던 일을, 쓰라리게 타오르는 상처를, 행복한 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치밀던 시샘을, 그런 소망이 어리석은 줄 아는 앓을, 그 소망에 맞선 부질없는 싸움을.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다. 가장 부끄러운 일까지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내보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싯다르타는 제 상처를 내보였고, 오늘 달아났던 일도 이야기했다. 어린애 같은 도망자가 되어 강을 건넜고 도시까지 걸어갈 작정이었다는 것도, 강이 웃었다는 것도.

싯다르타가 말하는 동안, 오래도록 말하는 동안, 바수데바가 고요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는 동안, 싯다르타는 바수데바가 이렇게 들어 주는

것을 일찍이 느껴 본 적 없을 만큼 강하게 느꼈다. 제 아픔이, 제 불안이 건너편으로 흘러가는 것을, 남몰래 품은 희망이 건너편으로 흘러갔다가 건너편에서 다시 자기에게로 마주 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들어 주는 이에게 상처를 보이는 것은, 상처를 강물에 담가 서늘해지고 강과 하나가 될 때까지 씻는 것과 같았다. 여전히 말하는 동안, 여전히 털어놓고 고백하는 동안, 싯다르타는 점점 더 뚜렷이 느꼈다.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이가 더는 바수데바가 아니고, 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꿈쩍 않고 귀 기울이는 이 사람이 나무가 비를 빨아들이듯 자기 고백을 제 안으로 빨아들인다는 것을, 꿈쩍 않는 이 사람이 강 그 자체이고, 신 그 자체이고, 영원한 것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싯다르타가 자기 자신과 제 상처를 생각하기를 그치자, 바수데바의 달라진 본질을 알아본 이 인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속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그것은 덜 별스러워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자연스럽다는 것이, 바수데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이, 다만 자기가 그것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 아니, 자기도 이제 바수데바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더욱 뚜렷이 보였다. 이제 자기가 늙은 바수데바를 못사람이 신들을 보듯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오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싯다르타는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바수데바에게 작별을 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줄곧 말을 이어 갔다.

싯다르타가 말을 다 마치자, 바수데바는 다정하고 조금 흐려진 눈길을 그에게로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과 밝음을, 이해와 앎을 말없이 비추어 보냈다. 바수데바는 싯다르타의 손을 잡아 강가의 그 자리로 데려가 함께 앉았고, 강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자네는 강이 웃는 소리를 들었네," 바수데바가 말했다. "하지만 다 들은 건 아닐세.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세. 더 많은 걸 듣게 될 걸세."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여러 목소리로 부르는 강의 노래가 부드럽게 울렸다. 싯다르타가 물속을 들여다보자, 흘러가는 물에 모습들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외로이, 아들을 두고 슬퍼하며. 싯다르타 자신이 나타났다. 외로이, 그 또한 멀리 있는 아들에게 그리움의 끈으로 묶인 채. 아들이 나타났다. 소년 또한 외로이, 젊은 소망들의 불타는 길 위를 탐욕스레 내달리며. 저마다 제 목표를 겨누고, 저마다 목표에 사로잡혀, 저마다 괴로워하며. 강은 괴로움의 목소리로 노래했다. 애타게 노래했고, 애타게 제 목표를 향해 흘렀으며, 그 목소리는 탄식하듯 울렸다.

"들리나?" 바수데바의 말 없는 눈길이 물었다. 싯다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잘 들어 보게!" 바수데바가 속삭였다.

싯다르타는 더 잘 들으려고 애썼다. 아버지의 모습, 자기 모습, 아들의 모습이 서로에게 흘러들었고, 카말라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흘러 흩어졌고, 고빈다의 모습도, 다른 모습들도 나타나 서로에게 흘러넘쳤으며, 모두가 강이 되었고, 모두가 강이 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애타게, 탐하며, 괴로워하며. 그리고 강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타오르는 쓰라림으로 가득 차, 달랠 길 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 울렸다. 목표를 향해 강은 나아갔다. 싯다르타는 강이, 자기와 자기 사람들과 자기가 일찍이 보았던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강이 서둘러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모든 물결과 물이 괴로워하며 목표를 향해, 많은 목표를 향해, 폭포를 향해, 호수를 향해, 여울을 향해, 바다를 향해 서둘렀고, 모든 목표에 이르렀으며, 목표마다 새 목표가 뒤따랐고, 물은 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비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새로이 나아갔고, 새로이 흘렀다. 그러나 애타는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울렸다. 괴로움에 차서, 찾아 헤매며.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그 목소리와 어울렸다. 기쁨의 목소리와 괴로움의 목소리, 착한 목소리와 악한 목소리, 웃는 목소리와 슬퍼하는 목소리, 백 가지 목소리, 천 가지 목소리가.

싯다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는 온전히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온전히 듣는 일에 잠겨, 온전히 비어, 온전히 빨아들이며. 이제 귀 기울이는 법을 끝까지 다 배웠다고 그는 느꼈다. 이 모든 것을, 강에 깃든 이 많은 목소리를 싯다르타는 벌써 여러 번 들었으나, 오늘은 그것이 새롭게 울렸다. 싯다르타는 이제 그 많은 목소리를 더는 가려낼 수 없었다. 기쁜 목소리와 우는 목소리를, 아이의 목소리와 사내의 목소리를 가려낼 수 없었고, 그리움의 탄식도 아는 이의 웃음도, 분노의 외침도 죽어 가는 이들의 신음도 모두 한데 어울려, 모든 것이 하나였고, 모든 것이 서로 짜이고 엮여 천 겹으로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한데 모여, 모든 목소리, 모든 목표, 모든 그리움, 모든 괴로움, 모든 쾌락, 모든 선과 악, 그 모두가 한데 모여 세상이었다. 그 모두가 한데 모여 일어나는 일들의 강이었고, 삶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싯다르타가 이 강에, 천 가지 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일 때, 괴로움에도 웃음에도 귀를 내주지 않을 때, 제 영혼을 어느 한 목소리에 묶어 자아를 안고 그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든 목소리를 들을 때, 전체를, 하나임을 들을 때, 천 가지 목소리의 큰 노래는 단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었으니, 그 낱말은 옴, 곧 완성이었다.

"들리나?" 바수데바의 눈길이 다시 물었다.

바수데바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그 늙은 얼굴의 모든 주름 위로 미소가 빛을 내며 떠 있었다. 강의 모든 목소리 위로 옴이 떠 있듯이. 벼를 바라볼 때 바수데바의 미소는 환하게 빛났고, 이제 싯다르타의

얼굴에도 똑같은 미소가 환하게 빛나며 떠올랐다. 싯다르타의 상처가 꽃피었고, 괴로움이 빛났고, 자아는 하나임 속으로 흘러들었다.

이 시간에 싯다르타는 운명과 싸우기를 그쳤고, 괴로워하기를 그쳤다. 그의 얼굴에 앎의 밝음이 꽃피었다. 더는 어떤 의지도 맞서지 않는 앎, 완성을 아는 앎, 일어나는 일들의 강을,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앎,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며, 흐름에 제 몸을 내맡기고, 하나임에 속한 앎의 밝음이었다.

바수데바가 강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싯다르타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앎의 밝음이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여린 손길로 싯다르타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려 왔네, 사랑하는 벗이여. 이제 이 시간이 왔으니 나를 보내 주게. 오래도록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려 왔고, 오래도록 뱃사공 바수데바로 살아왔네. 이제 되었네. 잘 있게, 오두막이여, 잘 있게, 강이여, 잘 있게, 싯다르타!"

싯다르타는 작별을 고하는 이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절했다.

"알고 있었소." 싯다르타가 나직이 말했다. "숲으로 가겠소?"

"숲으로 가네. 하나임 속으로 가네." 바수데바가 환히 빛나는 얼굴로 말했다.

환히 빛나며 바수데바는 떠나갔고, 싯다르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깊은 기쁨으로, 깊은 엄숙함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화로 가득한 걸음을 보았고, 광채로 가득한 머리를 보았고, 빛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

고빈다

언젠가 고빈다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쉬어 가는 철을 맞아 기녀 카말라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 바친 즐거움의 숲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숲에서 하루 길 떨어진 강가에 늙은 뱃사공 하나가 사는데 많은 이가 현자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고빈다는 이 뱃사공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루로 가는 길을 골랐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계율에 따라 살았고, 나이와 겸손함 때문에 젊은 승려들에게서도 경외의 눈길을 받았지만, 고빈다의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찾아 헤매미 아직 꺼지지 않았다.

고빈다는 강에 이르러 노인에게 건네 달라고 청했고, 건너편에 닿아 배에서 내릴 때 노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우리 승려들과 순례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푸는구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를 벌써 강 건너로 건네주었소. 뱃사공이여, 그대 또한 바른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오?"

싯다르타가 늙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 존귀하신 분이시여, 그대는 스스로를 찾는 사람이라 하오? 벌써 나이가 지긋하고, 고타마의 승려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늙기는 늙었소,"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찾기를 그만두지는 않았소. 나는 결코 찾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요. 그것이 내가 타고난 길인 듯하오. 내가 보기에 그대도 찾아 헤맨 사람 같구려. 내게 한마디 들려주겠소, 존경하는 이여?"

싯다르타가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내가 그대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어쩌면 그대가 너무 많이 찾는다는 말이겠소? 찾느라고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이겠소?"

"어째서 그렇소?" 고빈다가 물었다.

"누군가 찾을 때면,"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 눈이 제가 찾는 것만 보게 되기 쉽고, 그 사람은 늘 찾는 것만 생각하고 목표가 있고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 안에 들이지 못하게 되기 쉽소. 찾는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찾아낸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 열려 있다는 것, 목표가 없다는 것이요. 존귀하신 분이시여, 그대는 제 목표를 좇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니, 어쩌면 참으로 찾는 사람일지도 모르요."

"아직 나는 알아듣지 못하겠소," 고빈다가 청하듯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싯다르타가 말했다. "오, 존귀하신 분이시여, 여러 해 전 언젠가 그대는 이미 한 번 이 강가에 온 적이 있소. 그리고 강가에서 잠든 사람 하나를 보고는, 그 사람의 잠을 지켜 주려고 곁에 앉았소. 그러나 오, 고빈다, 너는 그 잠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

놀란 승려는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뱃사공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네가 싯다르타야?" 고빈다가 수줍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도 너를 못 알아볼 뻔했구나! 진심으로 반갑다, 싯다르타. 너를 다시 보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 많이 변했구나, 친구야. 그래서 이제 뱃사공이 된 거야?"

싯다르타가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뱃사공이야. 고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변해야 하고 온갖 옷을 걸쳐 봐야 해.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야, 친구야. 잘 왔어, 고빈다. 오늘 밤은 내 오두막에서 묵어 가."

고빈다는 그날 밤 오두막에 묵으며, 한때 바수데바의 잠자리였던 잠자리에서 잤다. 그는 젊은 날의 벳에게 많은 것을 물었고, 싯다르타는 제 삶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다.

이튿날 아침, 하루 길을 떠날 때가 되자 고빈다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길을 다시 떠나기 전에, 싯다르타, 하나만 더 묻게 해 줘. 너에게는 가르침이 있어? 네가 따르는 믿음이나 앎이, 네가 살아가고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이나 앎이 있어?"

싯다르타가 말했다. "알잖아, 친구야, 나는 젊었을 때 벌써, 우리가 숲에서 참회자들과 함께 살던 그 시절에 벌써, 가르침과 스승을 믿지 못하게 되어 그들에게 등을 돌렸어. 지금도 그대로야. 그런데도 그 뒤로 나는 많은 스승을 두었어. 아름다운 기녀 하나가 오랫동안 내 스승이었고, 부유한 상인 하나가 내 스승이었고, 주사위 노름꾼 몇몇도 내 스승이었어. 한번은 떠돌아다니는 붓다의 제자 하나가 내 스승이 된 적도 있는데, 순례길에 내가 숲에서 잠들었을 때 내 곁에 앉아 있던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서도 나는 배웠고, 그 사람에게도 나는 고마워, 아주 고마워.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건 여기, 이 강에게서, 그리고 내 앞사람인 뱃사공 바수데바에게서였어. 바수데바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것을 고타마만큼이나 잘 알았으며, 완전한 사람이었고, 성자였어."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싯다르타, 너는 아직도 짓궂게 놀리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구나. 네가 어느 스승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나도 믿고, 알아. 하지만 너 스스로는, 가르침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만의 것이고 네가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어떤 생각들을, 어떤 인식들을 찾아내지 않았어? 그 가운데 무언가를 내게 들려준다면 내 마음이 기쁠 거야."

싯다르타가 말했다. "생각들은 있었지, 그래, 인식들도 이따금 있었어. 나는 때때로, 한 시간 동안이나 하루 동안, 사람이 제 가슴속에서 생명을

느끼듯 내 안에서 앓을 느꼈어. 여러 가지 생각이었지만, 그걸 너에게 전하기는 어려울 거야. 봐, 나의 고빈다, 이걸 내가 찾아낸 생각 가운데 하나야. 지혜는 전할 수 없다. 현자가 전하려고 애쓰는 지혜는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

"농담이야?" 고빈다가 물었다.

"농담이 아니야. 내가 찾아낸 것을 말하는 거야. 앓은 전할 수 있어도 지혜는 전할 수 없다. 지혜는 찾아낼 수 있고, 살아 낼 수 있고, 지혜에 실려 갈 수도 있고, 지혜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어. 내가 젊었을 때 벌써 이따금 어렵פות이 느꼈고, 나를 스승들에게서 떠나도록 몰아낸 게 바로 이거야. 고빈다, 나는 생각 하나를 찾아냈는데, 너는 이것도 농담이나 바보 같은 소리로 여기겠지만, 이게 내 가장 좋은 생각이야. 그 생각은 이래.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똑같이 참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야. 진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만 입 밖에 내어 말로 감쌀 수 있어.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모두 치우쳐 있고, 모두 반쪽이고, 온전함도, 둥글도, 하나임도 모두 없어. 거룩한 고타마께서 가르치시며 세상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상을 윤회와 열반으로, 착각과 진리로, 괴로움과 해탈로 나누셔야 했어. 달리 어쩔 수 없어. 가르치려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 하지만 세상 그 자체는, 우리 둘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 사람이든 행위든 결코 온전히 윤회이거나 온전히 열반인 법이 없고, 사람은 결코 온전히 거룩하거나 온전히 죄 많은 법이 없어. 우리가 착각에 매여 있으니 시간이 실재하는 무엇처럼 보일 뿐이야. 시간은 실재하지 않아, 고빈다. 나는 이것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겪었어. 그리고 시간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영원 사이에, 괴로움과 지복 사이에, 악과 선 사이에 가로놓인 듯 보이는 거리도 착각이야."

"어째서 그래?" 고빈다가 두려운 듯 물었다.

"잘 들어, 친구야, 잘 들어! 죄인은, 나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한 그 죄인은 죄인이지만, 언젠가 다시 브라흐만이 될 거고, 언젠가 열반에 이를 거고, 붓다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봐, 이 '언젠가'는 착각이고, 비유일 뿐이야! 우리 생각은 사물을 달리 그려 볼 줄 모르지만, 죄인은 붓다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로 발전해 가는 중인 것도 아니야. 아니야, 죄인 안에는 지금 오늘 벌써 앞으로 올 붓다가 있고, 그의 미래는 이미 다 여기 있으니, 너는 그 사람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되어 가는 붓다를, 될 수 있는 붓다를, 숨은 붓다를 공경해야 해. 고빈다, 친구야, 세상은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함을 향해 느린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세상은 순간마다 완전하고, 모든 죄는 이미 은총을 제 안에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노인을 제 안에 품고 있고, 모든 젖먹이는 죽음을, 모든 죽어 가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어. 누구도 남을 보고 그가 제 길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없고, 강도와 노름꾼 안에서 붓다가 기다리며, 브라만 안에서 강도가 기다려. 깊은 명상 속에서는 시간을 없앤 채, 있었던 삶과 있는 삶과 있을 삶을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야. 그래서 내게는 있는 것이 좋아 보여. 죽음도 삶도, 죄도 거룩함도, 영리함도 어리석음도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그래야만 하며, 모든 것에 필요한 건 오직 내 동의, 오직 내 기꺼운 마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뿐이니, 그러면 모든 것이 내게 좋고, 나를 복돋을 뿐,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어. 나는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겪어서 알아. 내게는 죄가 몹시 필요했고, 관능이, 재물을 좇는 일이, 허영이 필요했고, 가장 부끄러운 절망이 필요했어. 그래야 거스르는 마음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더는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 내가 그려 낸 어떤 세상, 내가

생각해 낸 어떤 완전함과 견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고 사랑하며
기꺼이 세상에 속할 수 있었으니까. 오, 고빈다, 이것이 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 가운데 몇 가지야."

싯다르타는 몸을 굽혀 땅에서 돌 하나를 주워 들고, 손바닥에 얹어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이건," 싯다르타가 장난스레 말했다. "돌인데, 이 돌은 어느 때가
되면 어쩌면 흙이 될 테고, 흙에서 초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될 거야.
예전 같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 돌은 한날 돌일 뿐이고
값어치가 없으며 마야의 세계에 속한 것이지만, 탈바꿈의 순환 속에서
어쩌면 사람도 되고 정신도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나는 이 돌에게도
값어치를 인정해 준다. 예전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돌은 돌이고, 짐승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붓다이기도 하다. 나는 이 돌이 언젠가 이것이나 저것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을 공경하고 사랑해. 그리고 바로 이것, 이 돌이 돌이라는 것, 지금
오늘 내게 돌로 나타난다는 것, 바로 그래서 나는 이 돌을 사랑하고, 그
걸 하나하나에서, 오목한 곳 하나하나에서, 그 노란빛에서, 그 잿빛에서,
그 단단함에서, 내가 두드리면 울려 나오는 그 소리에서, 그 겉면이
마르고 젖은 데서 값어치와 뜻을 봐. 기름이나 비누처럼 만져지는 돌이
있고, 나뭇잎처럼, 모래처럼 만져지는 돌도 있는데, 저마다 남다르고
저마다 제 나름대로 옴을 읊어 기도하며, 저마다 브라흐만이면서도
그만큼 똑같이 돌이고, 기름지거나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바로 그게 내
마음에 들고, 경이롭고 경배할 만해 보여.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래. 말은 숨은 뜻에 이롭지 않아서, 무엇이든 입 밖에 내면 모든 게
곧 조금 달라지고, 조금 뒤틀리고, 조금 바보 같아져. 그래, 그것도 아주
좋고 내 마음에 아주 들어서, 한 사람에게 보물이요 지혜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여."

고빈다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왜 나한테 그 돌 이야기를 했어?" 잠시 말이 끊긴 뒤 고빈다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별 뜻 없이 한 이야기야. 아니, 어쩌면 내가 바로 그 돌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이 모든 사물을 사랑한다는 뜻이었는지도 몰라. 나는 돌 하나를 사랑할 수 있어, 고빈다. 나무 한 그루나 나무껍질 한 조각도 사랑할 수 있어. 그건 사물이고, 사물은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가르침은 나와 맞지 않아. 가르침에는 단단함도, 부드러움도, 빛깔도, 모서리도, 냄새도, 맛도 없고, 말밖에 없으니까. 네가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막는 게 어쩌면 이것인지도, 어쩌면 그 많은 말인지도 몰라. 해탈과 덕도, 윤회와 열반도 그저 말일 뿐이니까, 고빈다. 열반이라는 사물은 없어. 열반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야."

고빈다가 말했다. "열반은 그저 말이 아니야, 친구야. 열반은 생각이야."

싯다르타가 말을 이었다. "생각, 그럴지도 모르지. 친구야, 너한테 털어놓아야겠어. 나는 생각과 말을 그다지 가르치 않아. 솔직히 말하면 생각도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사물을 더 대단하게 여겨. 이를테면 여기 이 나룻배에서 한 사람이 내 앞사람이자 스승이었는데, 거룩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저 강을 믿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그 사람은 강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목소리에게서 배웠고,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을 기르고 가르쳤어. 그 사람에게 강은 신처럼 보였고, 어느 바람이든, 어느 구름이든, 어느 새든, 어느 딱정벌레든 저 공경받는 강과 꼭 마찬가지로

신성하고 강만큼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몰랐어. 하지만 이 성자가 숲으로 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스승도 없이, 책도 없이, 오직 강을 믿었다는 것 하나로 모든 걸 알았고, 너나 나보다 더 많이 알았어."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사물'이라 부르는 것이 정말 실재하는 무엇이냐? 본질을 지닌 무엇이냐? 그건 마야의 속임수일 뿐이고, 한낱 그림이요 헛것일 뿐이지 않아? 네 돌, 네 나무, 네 강, 그것들이 정말 실재야?"

"그것도," 싯다르타가 말했다. "나는 크게 마음 쓰지 않아. 사물이 헛것이든 아니든, 그렇다면 나 또한 헛것이니, 사물은 언제나 나와 같은 것들이야. 사물이 나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 바로 그게 사물을 내게 그토록 사랑스럽고 공경할 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사물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네가 웃을 가르침인데, 오, 고빈다, 내게는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해 보여.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업신여기는 건 위대한 사상가들이 할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오직,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감탄과 경외로 바라볼 수 있는 것뿐이야."

"그건 알겠어,"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그분이, 세존께서 속임수로 꿰뚫어 보셨어. 세존께서는 호의와 너그러움과 연민과 관용을 명하시지, 사랑을 명하시지는 않아.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이 땅의 것에 묶어 두는 걸 금하셨어."

"알아." 싯다르타가 말했다. 그의 미소가 금빛으로 빛났다. "알아, 고빈다. 그런데 봐, 우리는 지금 견해의 덩굴 한가운데에, 말다툼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어. 사랑에 관한 내 말이 고타마의 말씀과 모순된다는 걸, 모순되어 보인다는 걸 나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모순이 착각이라는 걸 알기에, 바로 그래서 나는 말을 그토록 믿지 않아. 나는 내가 고타마와 한마음이라는 걸 알아. 그분이 어찌 사랑을 모르셨겠어, 사람의 모든 존재를 그 덧없음 속에서, 그 헛됨 속에서 꿰뚫어 보셨으면서도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길고 고된 한평생을 오로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데 바치신 그분이! 그분에게서도, 네 위대한 스승에게서도, 내게는 말보다 사물이 더 소중하고, 그분의 말씀보다 그분의 행함과 삶이, 그분의 견해보다 그분 손의 몸짓이 더 중요해. 나는 그분의 위대함을 말씀에서도, 생각에서도 보지 않아. 오직 행함에서, 삶에서 봐."

두 노인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이윽고 고빈다가 작별의 절을 하며 말했다. "고마워, 싯다르타, 네 생각을 조금 들려줘서. 더러는 기이한 생각이라 다 곧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어. 그건 어찌 되든, 고마워. 평온한 날들 보내길 빌게."

(그러나 속으로 남몰래 고빈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싯다르타는 별난 사람이고, 별난 생각을 입 밖에 내며, 그 가르침은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 세존의 순수한 가르침은 다르게, 더 맑고 더 순수하고 더 알아듣기 쉽게 들리고, 그 안에는 기이한 것도, 바보 같은 것도, 우스꽝스러운 것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싯다르타의 손과 발, 그 눈, 그 이마, 그 숨결, 그 미소, 그 인사, 그 걸음걸이는 그 생각과 달라 보인다. 우리의 거룩한 고타마께서 열반에 드신 뒤로 다시는, 다시는 이 사람은 성자로구나 하고 느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오직 이 사람, 이 싯다르타만을 그렇게 만났다. 그 가르침이 기이하다 해도, 그 말이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 해도, 그 눈길과 그 손, 그 살갗과 그 머리칼, 그의 모든 것에서 순수함이 빛나고, 평온이 빛나고, 밝음과 온화함과 거룩함이 빛나는데, 우리 거룩한 스승께서 마지막 죽음을 맞으신 뒤로 나는 그런 빛을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고빈다는 이렇게 생각하며, 가슴속에서 두 마음이 다투는 가운데, 사랑에 이끌려 다시 한번 싯다르타에게로 몸을 숙였다. 평온히 앉아 있는 이 앞에 고빈다는 깊이 머리 숙여 절했다.

"싯다르타,"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늙은이가 되었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모습으로 서로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거야.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평화를 찾은 게 보여. 고백할게, 나는 평화를 찾지 못했어. 내가 우러르는 친구야, 한마디만 더 해 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들려 보내 줘! 내 길에 무언가를 들려 보내 줘. 내 길은 자주 고되고, 자주 어두워, 싯다르타."

싯다르타는 말이 없었고, 늘 한결같은 고요한 미소를 띠고 고빈다를 바라보았다. 고빈다는 두려움을 안고, 그리움을 안고 싯다르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에는 괴로움과 영원한 찾아 헤매임, 영원히 찾아내지 못함이 쓰여 있었다.

싯다르타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게로 몸을 숙여!" 싯다르타가 고빈다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리 내게로 몸을 숙여! 그래,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이마에 입 맞춰 줘, 고빈다!"

그러나 고빈다가 의아해하면서도 커다란 사랑과 예감에 이끌려 그 말을 따라, 싯다르타에게 가까이 몸을 숙이고 그의 이마에 입술을 대는 동안, 고빈다에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고빈다의 생각이 아직 싯다르타의 별난 말들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고빈다가 아직 헛되이, 마음 한편으로 거스르면서 시간을 생각에서 지워 버리려고, 열반과 윤회를 하나로 그려 보려고 애쓰는 동안, 벗의 말을 알아보는 마음마저 얼마간 그의 안에서 엄청난 사랑과 경외와 다투는 동안, 고빈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고빈다는 벗 싯다르타의 얼굴을 더는 보지 못했고, 그 대신 다른
 얼굴들을, 수많은 얼굴을, 기나긴 행렬을, 얼굴들이 흐르는 강을, 수백,
 수천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들은 모두 왔다가 사라지면서도 모두
 한꺼번에 거기 있는 듯했고, 모두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워지면서도 모두
 싯다르타였다. 고빈다는 물고기의 얼굴을, 잉어의 얼굴을, 한없이
 고통스럽게 입을 벌리고 눈빛이 꺼져 가는, 죽어 가는 물고기의 얼굴을
 보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붉고 주름투성이인 채 울음을
 터뜨리려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고, 살인자의 얼굴을 보았고, 그가
 사람의 몸에 칼을 찔러 넣는 것을 보았고, 바로 같은 순간에 그 죄인이
 묶인 채 무릎 꿇고 망나니가 내리친 칼 한 번에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별거벗은 사내와 여인의 몸들이 미쳐 날뛰는 사랑의 자세로,
 사랑의 싸움으로 뒤엉킨 것을 보았고, 주검들이 고요하고 차갑고 텅 빈
 채 길게 누운 것을 보았고, 짐승의 머리들을, 멧돼지의, 악어의,
 코끼리의, 황소의, 새의 머리들을 보았고, 신들을 보았고, 크리슈나¹를
 보았고, 아그니²를 보았고, 이 모든 형상과 얼굴이 서로 천 가지로 얹혀
 저마다 다른 것을 돕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없애고, 새로 낳는 것을
 보았는데, 저마다 죽고자 하는 몸부림이요 덧없음을 뜨겁고도 아프게
 털어놓는 고백이었으나 어느 것도 죽지 않았고, 저마다 모습을 바꿀 뿐
 늘 새로 태어나고 늘 새 얼굴을 얻었으며 한 얼굴과 다른 얼굴 사이에
 시간이 놓이는 일은 없었으며, 이 모든 형상과 얼굴은 쉬고, 흐르고,
 스스로를 낳고, 떠내려가고, 서로에게 흘러들었고, 그 모두의 위에는
 얇고 실체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무언가가 얇은 유리나 얼음처럼, 투명한
 살갗처럼, 물로 된 껍데기나 거꾸집이나 가면처럼 늘 씌워져 있었는데,
 이 가면이 미소 지었고, 이 가면은 싯다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 그가,
 고빈다가 바로 이 같은 순간에 입술을 대고 있는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고빈다가 보니, 가면의 이 미소, 흐르는 형상들 위에 드리운 하나님³의 이

미소, 천 번의 태어남과 죽음 위에 드리운 동시에 있음의 이 미소, 싯다르타의 이 미소는 고빈다 자신이 백 번이나 경외하며 보았던 고타마의, 붓다의 미소, 그 고요하고 섬세하고 꿰뚫어 볼 수 없는, 어쩌면 어질고 어쩌면 짓궂은, 지혜로운, 천 겹의 미소와 바로 같은 미소, 꼭 같은 미소였다. 완성에 이른 이들은 그렇게 미소 짓는다는 것을, 고빈다는 알았다.

시간이 있는지, 자기가 본 것이 한순간이었는지 백 년이었는지 더는 알지 못한 채, 싯다르타라는 이가 있는지, 고타마라는 이가 있는지, 나와 너라는 것이 있는지 더는 알지 못한 채, 가장 깊은 곳을 신의 화살에, 입은 상처마저 달콤한 그 화살에 꿰뚫린 듯, 가장 깊은 곳까지 마법에 걸려 녹아 버린 채, 고빈다는 조금 전 입 맞춘 싯다르타의 고요한 얼굴, 조금 전까지 모든 형상과 모든 생성과 모든 존재의 무대였던 그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잠시 더 서 있었다. 결면 아래로 천 겹의 깊이가 다시 닫힌 뒤, 그 얼굴은 변함이 없었고, 싯다르타는 고요히 미소 지었고, 나직하고 부드럽게, 어쩌면 몹시 어질게, 어쩌면 몹시 짓궂게, 꼭 세존이 미소 짓던 그대로 미소 지었다.

고빈다는 깊이 머리 숙여 절했고, 저도 모르는 눈물이 늙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으며, 더없이 지극한 사랑의, 더없이 겸허한 공경의 느낌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꿈쩍 않고 앉아 있는 이 앞에, 살면서 언젠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언젠가 살면서 소중하고 거룩했던 모든 것을 그 미소로 떠올리게 하는 이 앞에, 고빈다는 땅에 닿도록 깊이 머리 숙여 절했다.

1. 힌두교에서 널리 섬기는 신.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2. 베다의 불의 신. 제사의 불 속에서 제물을 받아 신들에게 나른다고 여겨졌다.

판권면

싯다르타

인도의 시

원제 · Siddhartha. Eine indische Dichtung

지은이 ·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1877~1962)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1922년 초판(베를린, S. 피셔)을 스캔한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 독일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34,322단어 · 2부 12장 · 원문 524문단, 번역 524문단 · 옮긴이 주 16개

바로잡은 곳 · 저본의 깨진 문장 한 곳(7장). 「일러두기」에 밝혔다.

저작권 · 대한민국에서는 저자가 1962년에 사망해 구법의 사후 50년 기준으로 2012년 말 보호기간이 끝났으며,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사후 70년 연장은 이미 만료된 저작물에 소급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22년에 출판된 저작물로서 퍼블릭도메인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에서는 저자 사후 70년이 되는 2032년 말까지 원저작물이 보호된다.**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을 기준으로 공개하며, 그 밖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원저 퍼블릭 도메인(대한민국·미국)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0